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 14책

양평 병산리 유적

윤내현·한창균 엮음

199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경 기 도

《양평 병산리 유적》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4책)

찍은날 1992년 12월 25일

펴낸날 1992년 12월 30일

연은곳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우) 140-714
전화 : 709-2186

등 록 1968년 2월 27일 No.가 제 3-95
단국대학교 출판부

인 쇄 백 산 문 화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334-1
전화 : 268-8668

차례

유적의 조사경위와 조사단 구성	5
1. 조사경위	5
2. 조사단 구성	6
유적의 지형과 지질	11
1. 지세	11
2. 유적의 층위조사	13
유적의 발굴과 유물의 분석	17
1. 발굴조사	17
2. 지층과 문화층	23
가. 지층	23
나. 문화층	24
3.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발굴 유물	24
가. 1문화층	24
나. 2문화층	25
다. 3문화층	31
4. 겹에서 찾은 유물	31
가. 구석기시대 유물	35
(1) 1문화층의 유물	35
(2) 2문화층의 유물	37
(3) 제자리를 잃은 유물	46
나. 철기시대 유물	69
(1) 병산 4리	69
(2) 양덕리	76
5. 종합관찰	88
가. 구석기시대 유물	88

(1) 석기의 암질	88
(2) 찻개의 제작방법에 대한 검토	90
(3) 여러면석기의 기능에 대한 검토	94
(4) 구석기문화층의 연대	99
나. 철기시대 유물	103
(1) 토기로 본 특징	103
(2) 유적의 성격	105
(3) 유적의 연대	106
 유적의 발굴성과와 보존대책	 135
 지도위원회 회의록(초록).....	 137

유적의 조사경위와 조사단 구성

윤내현 · 한창균

1. 조사경위

한강 지역은 우리 나라 선사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한강 큰줄기를 비롯하여 북한강과 남한강 언저리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여러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연구성과는 한국의 선사시대와 고대사회의 모습을 밝혀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남한강 하류 지역의 고고학 유적이 우리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다. 팔당дук 수몰지구의 발굴조사를 하면서 이 지역의 고고학 유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문화재관리국 1974). 연세대학교 박물관은 팔당дук 수몰지구 문화유적의 조사작업을 펼치면서 1970년 말에 양평 일대의 교평리, 송학리 등에서 구석기시대의 땃석기를 찾은 바 있다(손보기·이용조 1974; 이용조 1981). 1978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남한강 줄기 언저리 유적을 조사하면서 양평군 병산리에서 바둑판식 고인돌로 추정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이건무·이강승·한영희·이백규 1980).

198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와 관계가 깊은 유적은 충주дук, 주암дук, 합천дук 등의 수몰지구를 중심으로 발굴되었다. 따라서 한강 하류 지역에 있는 구석기유적의 조사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는 1986년부터 한강 하류 언저리에 있는 선사유적을 조사하였고, 1989년에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갱신세 쌓임층에서 구석기시대의 석기를 찾게 되었다. 발견 당시에 이곳의 대부분 지역은 이미 농지정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사진 1,2). 밭을 논으로 농지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디 이곳에 쌓여 있었던 제4기 퇴적의 많은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미 옮겨져 있었다.

병산리에서 구석기유적을 찾은 다음,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논이나 밭에서 적지않은 구석기시대의 땃석기를 찾게 되었다(사진 3,4). 지표조사를 하면서 짝개, 여러면석기와 같이 무겁고 큰 종류와 함께 밀개, 굽개, 툽니날 따위의 격지석기를 찾았다. 이와 함께 양평 일대에 발달되어 있는 제4기 강언덕(段丘, terrace)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

산리 구석기유적은 두번째 강언덕 위에 놓인 쌓임층 안에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북한강 윗줄기에 있는 양구군 상무릉리 유적(최복규 1989; 황용훈·신복순 1989)과 남한강 강가에서 드러난 단양군 금굴 유적(손보기 1984; 1985)과 수양개 유적(이용조 1984; 1985), 제원군 창내 유적(박희현 1984; 1989)과 명오리 큰 길가 유적(최무장 1984), 여주군 단현리 유적(이선복 1988), 영월군 후탄리 뒷들 유적과 사정리 유적(한창균·장명수·신숙정 1989) 등에서 찾은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한국 구석기문화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최근 한강 하류에 자리잡은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손보기·신숙정·장호수 1992; 이용조·박선주·강상준·박원규·하문식·윤용현 1992; 윤내현·한창균·신숙정·양현주·성현경·손기언·진소래 1992)이 발굴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병산리 유적과 더불어 위에서 말한 여러 지역에서 나온 유물은 한강 물줄기 언저리에 이룩된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사단 구성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병산리 일대에서 찾은 구석기유적은 한강 줄기에 발달한 구석기문화의 성격을 밝히고 그 계통을 세우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문화유물이 나오는 이곳의 쌓임층은 마지막 간빙기 이후에 쌓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병산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적지 언저리에는 제4기 동안에 이룩된 강 언덕이 여러 곳에 잘 드러나 있었다. 선사시대의 문화를 밝히고, 그때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병산리 유적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경기도청에 병산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 조 사 명 : 경기도 양평 병산 4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 * 조 사 지 역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 4리(전 136-8)일대의 구석기유적
- * 발 굴 기 관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 발 굴 기 간 : 1992년 4월 7일 - 5월 6일(한달간)
- * 조 사 단 장 : 윤내현(단국대학교 교수, 중앙박물관장)
- * 지 도 위 원 : 손보기(문화재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김원용(문화재위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용조(충북대학교 교수)
- * 책임조사원 : 한창균(단국대학교 교수)
- * 조 사 원 : 배기동(한양대학교 교수)

이동영(한국자원연구소 연구원)

*조사보조원 : 양현주(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연구원)

성현경(단국대학교 대학원생)

손기연(단국대학교 대학원생)

진소래(단국대학교 대학원생)

병산리 유적 발굴에 경기도는 1,265만원을 지원하여 주었다. 이 비용은 작물보상비(250만원), 발굴비(715만원), 보고서 간행비(300만원)로 이루어졌다. 올해에 이루어진 병산리 선사 유적의 발굴은 시굴작업의 성격으로 시작하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병산리 유적발굴에 재정을 지원해준 경기도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구제발굴의 성격도 아닌 순수한 학술발굴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여준 강대욱 학예연구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특히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충분하지 못한 발굴비로 인하여 병산리 일대의 지형과 지질을 연구해준 이동영 박사님과 김주용 박사님께 시료 분석비조차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발굴조사를 하는 동안 현장에 머물며 수고를 하여준 김인한님과 유영도님께 감사를 드린다. 강원대학교 최복규 교수님과 서울시립대학교 박희현 교수님은 발굴장을 방문하여 많은 도움말을 주었다. 한·중 제4기-선사학 심포지움에 참가한 중국학자 유동생(劉東生, Liu Tungsheng), 오여강(吳汝康, Wu Rukang), 오신지(吳新智, Wu Xinzhi), 이전기(李傳夔, Li Chuankui), 정가건(鄭家堅, Jheng Jiajian), 김창주(金昌柱, Jin Changzhu) 등이 발굴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주신 손보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린다. 발굴현장을 방문하여준 양평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발굴하는 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이규용 선생님과 이규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유물 그림에 박준범님이 수고하였다.

참고문헌

문화재관리국 1974. 《팔당 소양댐 수몰지구 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박희현 1984. <제원사기리 후기구석기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I)》(충북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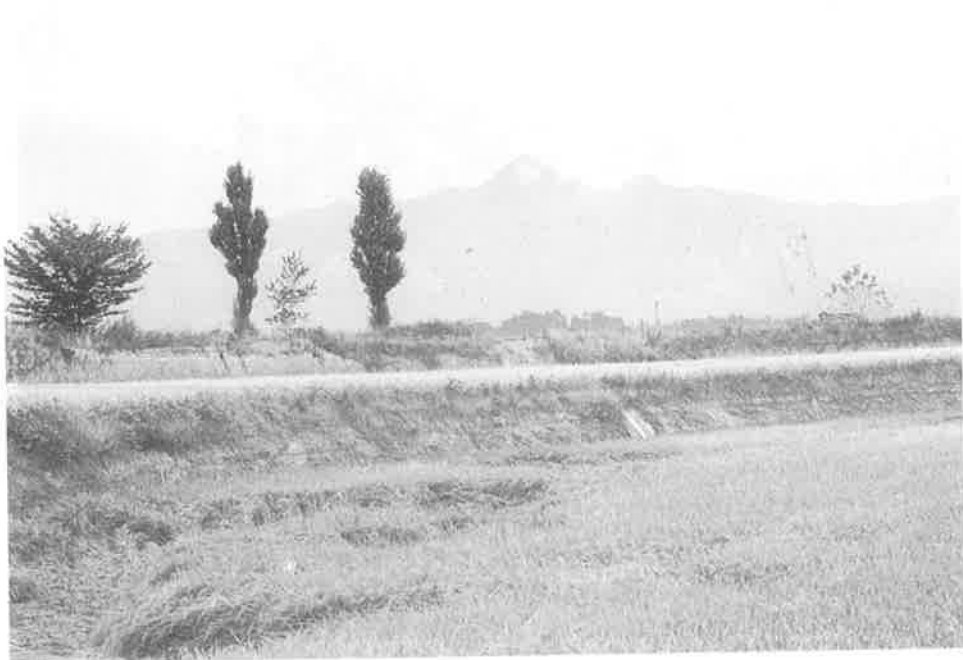
박희현 1989. 《제원 창내 후기 구석기 문화의 연구》(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보기 1984. <단양 도담리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I)》(충북대 박물관).

- 손보기 1985. <단양도담리금굴유적 발굴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연장발굴 조사 보고서》(충북대 박물관).
- 손보기 · 신숙정 · 장호수 1992. <일산 1지역 고고학조사>《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 조사보고》1.
- 손보기 · 이용조 1974. <양평군 양근리지역 양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팔당 소양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문화재관리국).
- 윤내현 · 한창균 · 신숙정 · 양현주 · 성현경 · 손기언 · 진소래 1992. <일산 3지역 고고학 조사>《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1.
- 이건무 · 이강승 · 한영희 · 이백규 1980. <한강유역지표조사보고>《중도: 진진보고 I》(국립 중앙박물관).
- 이선복 1988. <신발전 구석기유적 소개>《손보기박사 정년기념 고고인류학논총》.
- 이용조 1981. <팔당댐 수몰지역의 구석기유물>《한국의 선사문화》(탐구당).
- 이용조 1984. <단양 수양개구석기유적발굴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I)》(충북대 박물관).
- 이용조 1985. <단양 수양개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연장발굴조사보고서》(충북대 박물관).
- 이용조 1991. <한강유역의 구석기문화>《선사와 고대》1(한국고대학회).
- 이용조 · 박선주 · 강상준 · 박원규 · 하문식 · 윤용현 1992. <일산 3지역 고고학조사>《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1.
- 최무장 1984. <제원명오리B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고고·고분분야(II)》(충북대 박물관).
- 최복규 1989. <강원대학교 조사>《상무릉리》(강원대 박물관).
- 한창균 · 장명수 · 신숙정 1989. <남한강 상류의 구석기유적 조사예보>《박물관기요》5(단국대 중앙박물관).
- 황용훈 · 신복순 1989. <경희대학교 조사>《상무릉리》(강원대 박물관).



〈사진 1〉 농지정리를 마친 유적 언저리 모습



〈사진 2〉 유적 언저리 모습



〈사진 3〉 유적 언저리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 4〉 유적 언저리를 조사하는 모습

유적의 지형과 지질

이 동 영

1. 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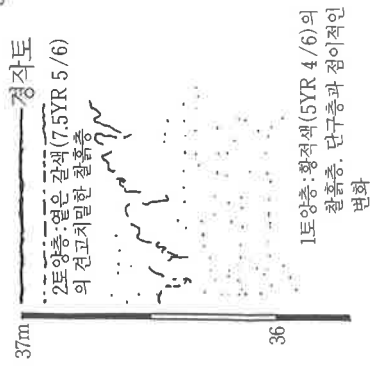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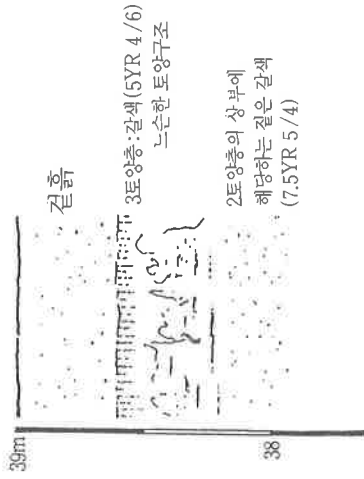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 4리에 있는 유적의 발굴조사가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의하여 1992년 4~5월 사이에 한달간 발굴되었고, 이 기간 동안 발굴지역의 지질과 층위조사 및 지형에 대한 야외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병산리 일대의 구석기유적 발굴지역은 한강 유역을 따라 찾아진 여러 다른 유적지들과 비교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구석기시대의 문화와 지층발달을 비교하여 시기를 설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병산리 유적은 양평읍의 맞은편 남서부 하안 산기슭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한강을 따라 발달한 강언덕이 연속되는 지역으로서 대체로 평탄한 경사를 보인다. 그리고 강언덕이 끝나는 사면에서는 가파른 경사의 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서부 주변에 710m 높이의 양자산과 423.5m 높이의 백병봉을 잇는 능선을 주축으로 하여 가파른 경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지형발달은 주변 암석의 종류에 따라 풍화정도가 서로 달리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 지역의 기반암을 살펴보면, 발굴장이 위치한 병산리 일대는 쥬라기의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구릉지형을 보인다. 한편 백병봉이 위치한 서부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시대 미상의 화성암류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암석은 대체로 풍화에 강하여 가파른 계곡들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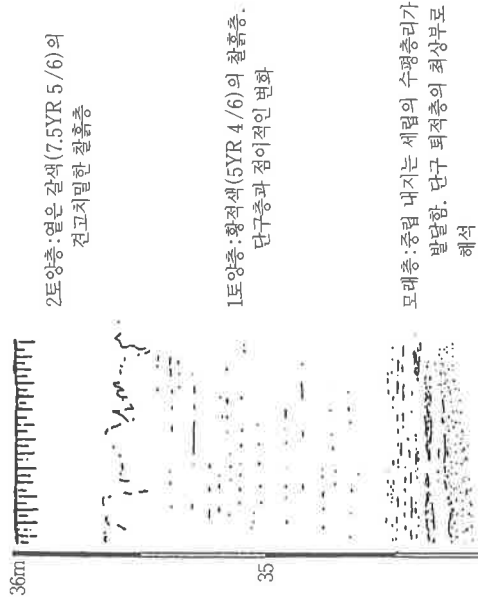
한강주변에는 일련의 강언덕이 발달하여 있다. 이들 중에서도 병산리 일대와 양평읍 하안에 발달하여 있는 것과 같은 제2강언덕이 지형적으로 가장 뚜렷하고, 현재의 한강 바닥으로부터 약 10~15m 더 높은 위치까지 자갈과 모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언덕층이 분포하며 이의 상부는 산기슭에서 이동해 온 사면붕적토가 발달하여 있다. 한편 제3강언덕은 그 형성 시기가 오래되어 지형적으로 강언덕의 구별이 불가능하나, 제2강언덕보다 약 20m 더 높은 산기슭에 굽은 자갈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강언덕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산리 일대의 지질은 화성암류와 변성암류를 바탕으로 하였고, 이 지역에 제2강언덕의 퇴적 지층 위에 사면붕적토가 발달하여 있다.

제 II 지구



제 I 지구



〈그림 1〉 병신비 유적의 층위 자름면

2. 유적의 층위조사

유적의 층위는 이번에 실시된 여러 발굴칸에서 조사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대표될 수 있는 3개 지점의 층위를 기재하여 지층의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설명하기로 하겠다(그림 1 참조).

조사지역은 한강변 남부의 하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갱신세의 강언덕이 발달하여 있는 곳이다(사진 1). 주변의 산기슭은 암석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지형을 보이고 있다. 병산리 남동부의 산구릉은 쥬라기에 관입한 것으로 해석되는 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편의 계곡 들에는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을 기저로 하여 쥬라기나 혹은 그 이전에 관입한 일련의 화성암류들이 분포하여 있다. 이들은 화강암, 섬록암 등의 다양한 산출을 보이며 백병봉을 중심으로 가파른 지세를 보이고 있다. 발굴지점에서는 대체로 강언덕 퇴적으로 해석되는 모래층이 산출하는 곳에서 이번 발굴을 끝냈기 때문에 기반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림 1〉의 자름면 중에서 제 I 지구가 지형적으로 36.2m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제 II 지구가 지표고도 38.9m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 중에서 최하위의 지층은 모래층으로서 중립 내지는 세립을 띠며 아래로 갈수록 더욱 굵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빛깔은 대체로 적갈색(5YR 3/4)을 나타내며 수평으로 발달한 층리구조를 보인다. 토양층과 점이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관계는 불분명하다(사진 2). 이러한 모래층의 하부는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한강에서 강언덕이 발달하여 있는 곳을 참고로 할 때, 강언덕 퇴적층의 최상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 강언덕층의 일반적인 구성은 최하부에 굵은 자갈이 분포하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가는 모래로 세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적 발굴지점에서는 자갈층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병산리 마을 주변 산기슭에 둥글둥글한 자갈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모래층부터 점이적으로 변하고 있는 토양층은 찰흙이 우세하나 모래 및 뿔들도 포함하고 있어 분급은 불량한 편이다.

이 지역 토양층은 빛깔에 따라 여러 층위의 구별이 가능하다. 최하위 토양층(1토양층)은 제 I·II 지구에서 관찰되는데 황적색(5YR 4/6)을 띠는 것이 특색이다. 2토양층은 옅은 갈색(7.5YR 5/6)과 짙은 갈색(7.5YR 5/4)을 띠며 1토양층과 빛깔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토양구조를 보이고 있다(사진 3). 2토양층은 위로 갈수록 전고치밀한 구조를 지니며 짙은 갈색(7.5YR 5/4)으로 점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3토양층은 발굴지점들 중에서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로 제 II 지구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며 갈색(5YR 4/6)을 띠고 있다. 대체로 느슨한 토양 구조이며 석영 입자들을 더 많이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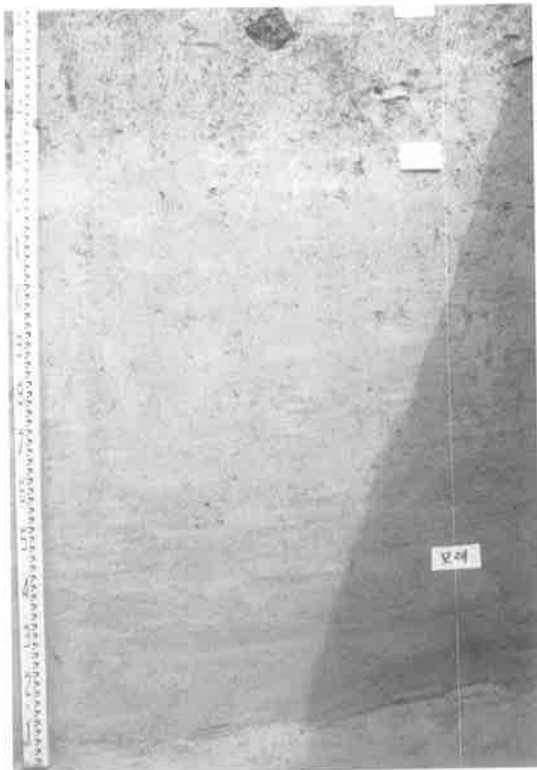
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사진 4). 3토양층 위에는 지표의 경작토가 쌓여 있다. 이 지역의 토양층들은 강언덕 퇴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남부 산사면 등에서 이루어진 풍화생성물질이 중력과 수분의 도움으로 서서히 경사면 아래로 이동하여 단구퇴적층으로 발달한 지층으로 해석된다.

3토양층 윗부분과 2토양층 윗부분에 썩기모양으로 변형된 토양구조(soil wedge)가 있으며 주변 토양의 빛깔과 썩기모양 안쪽의 토양빛깔은 서로 달라서 구별이 용이한 편이다. 썩기 안쪽의 토양은 회백색 또는 황회색을 띠며 이는 썩기구조가 형성된 이후에 토양수분의 이동이 썩기구조내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나 탈색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썩기 모양의 토양구조는 추운 기후(periglacial climate)에서 형성될 수 있는 토양구조이거나 나무뿌리의 흔적 혹은 건조기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건흔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관찰된 토양 썩기는 지표 평면에서는 오각형 구조(polygonal structure)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과 토양 입도 및 토양구성 광물 등으로 보아 건흔이 형성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추운 기후에 동토에서 형성된 언땅트기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의 여러 구석기유적 발굴 지층에서 이와같은 언땅트기 현상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지층의 형성시기를 해석하는데 주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진 1〉 병산리 유적의 모습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서 하부는 강언덕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는 주변 산기슭에서 이동하여 쌓인 사면붕적토가 발달하여 있다.



〈사진 2〉 [지구 7칸의 자름면

아래는 모래로 구성된 강언덕 퇴적층이며, 그 위의 토양층과 점이 적으로 변하는 층위를 보이고 있다.



〈사진 3〉 1토양층과 2토양층의 자름면
두 토양층 사이에 썩기모양의 언땅트기 구조가 발달하여 있다.(Ⅱ지구).



〈사진 4〉 2토양층과 3토양층의 자름면
2토양층은 짙은 갈색을 띠며 단단하고 치밀한 토양구조를 보인다. 두 토양층 사이에 썩기모양의 언땅트기 구조가 발달하여 있다.

유적의 발굴과 유물의 분석

윤내현 · 한창균 · 신숙정 · 양현주
성현경 · 손기언 · 진소래 · 박상빈

1. 발굴조사

유적 앞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강건너에 양평읍이 있다(지도 1,2). 병산리 서쪽으로는 백병봉(百屏峰, 해발 423.5m)이 있다.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산줄기는 병산리와 송학리를 둘러싸고 유적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는 해발 394.9m의 봉우리와 이어지며, 이 봉우리의 몇몇 골짜기에 있는 작은 물줄기가 송학리 마을 앞을 지나며 송학천을 이루어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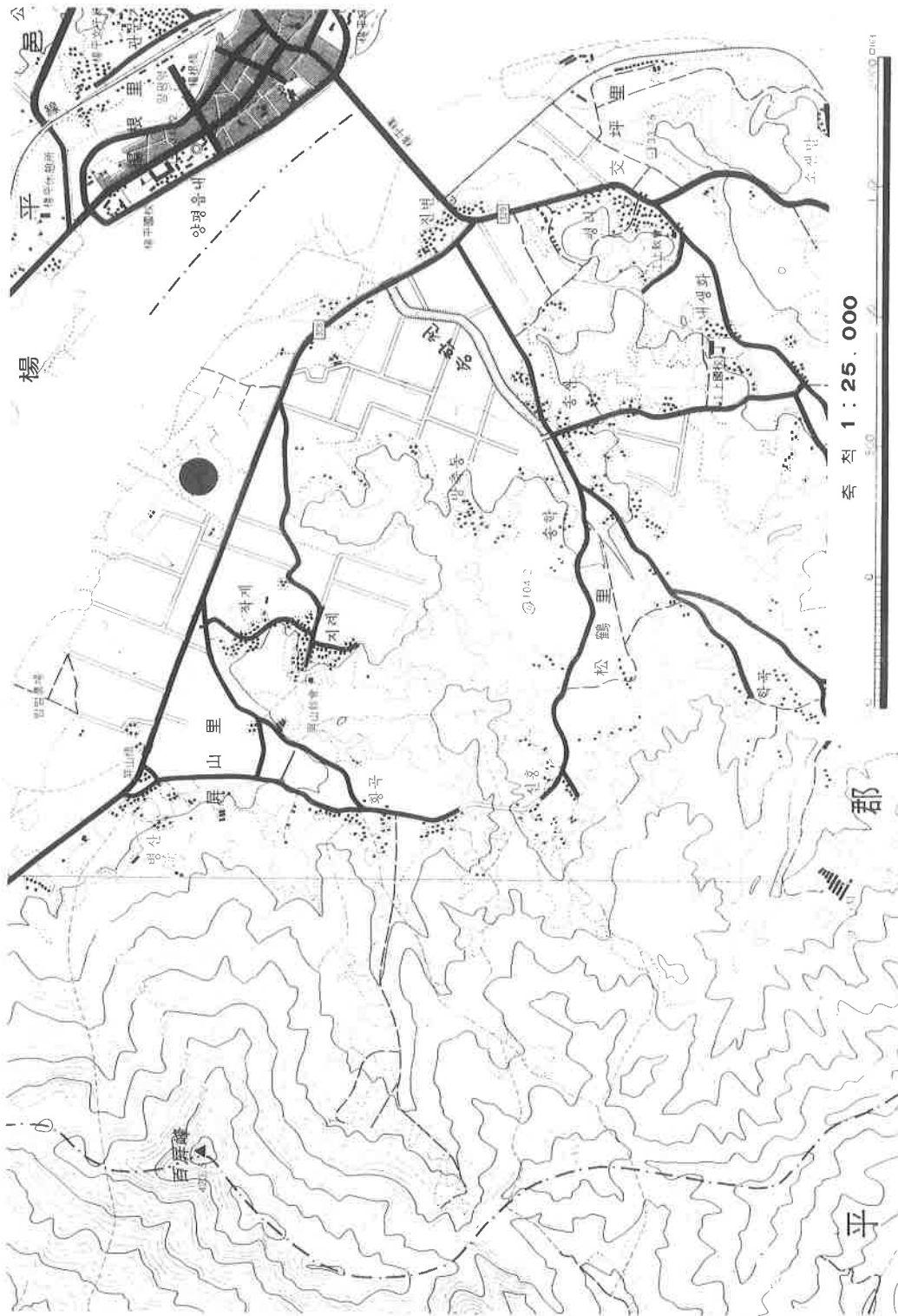
송학천에서 병산리에 이르는 지역 가운데 해발 약 40m 이하는 주로 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래의 지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군데군데 조금 높은 곳에 밭이 들어 앉았다. 그런데 이들 밭에서 흙을 퍼내 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갱신세의 쌓임층이 제자리를 잃었고, 이 결과 그 쌓임층 안에 있었던 구석기시대의 석기가 이곳저곳으로 흐트러지게 되었다.

1989년 병산리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시대의 뿔석기를 찾은 곳은 병산 4리이다(사진 1,2,3,4). 농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농수로와 논과 밭에서 석기를 찾았다. 그리고 쌓임층의 자름면이 겹으로 드러난 지층 안에 박혀 있는 석기를 찾기도 하였다(사진 5,6,7,8).

양평읍에서 양평다리를 지나 308번 지방도를 따라 가면 병산리 지례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중심으로 병산 4리와 3리가 갈린다. 308번 지방도에서 지례로 들어가는 길의 낮은 산자락에서도 뿔석기가 나온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송학리 방축동이 있다.

병산리에서 뿔석기를 처음 찾을 무렵, 병산 4리 일대의 논과 밭은 농지 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었다. 넓은 지역에서 농지정리가 이루어진 까닭에 쌓임 당시의 퇴적층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적은 편이었다. 구석기시대의 뿔석기가 채집되는 지역에서 본래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발굴되고 있는 지점(136-8 전) 뿐이었다(그림 1). 그밖에 농로로 이용되는 둑길이 있으나, 효과적인 발굴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현재 발굴을 실시한 지역은 「136-8 전」이다. 「136-8 전」 일대는 과수원이었으나 이곳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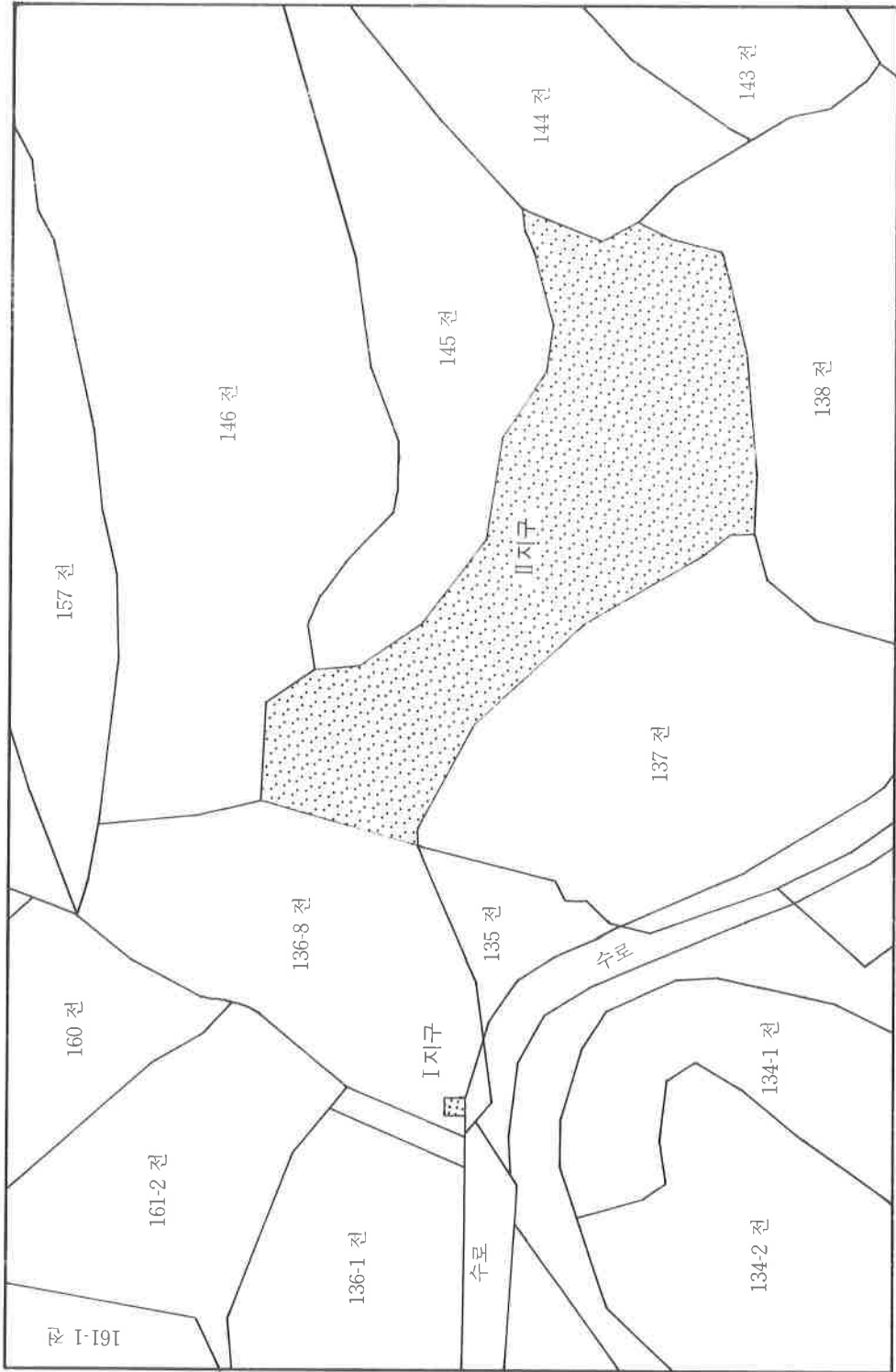


도엽번호 NJ52-9-20-2 양평

<지도 1> 양평甕山里 유적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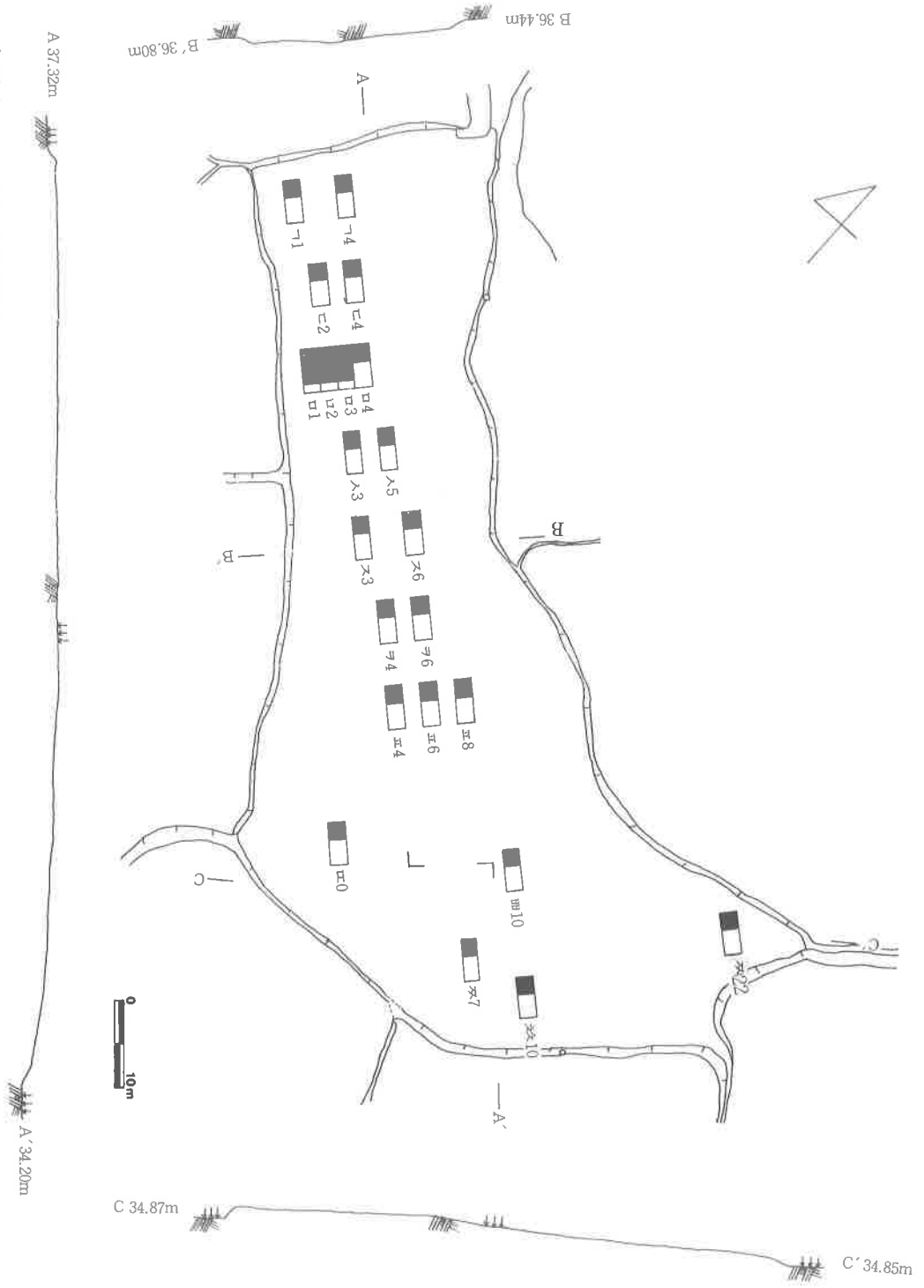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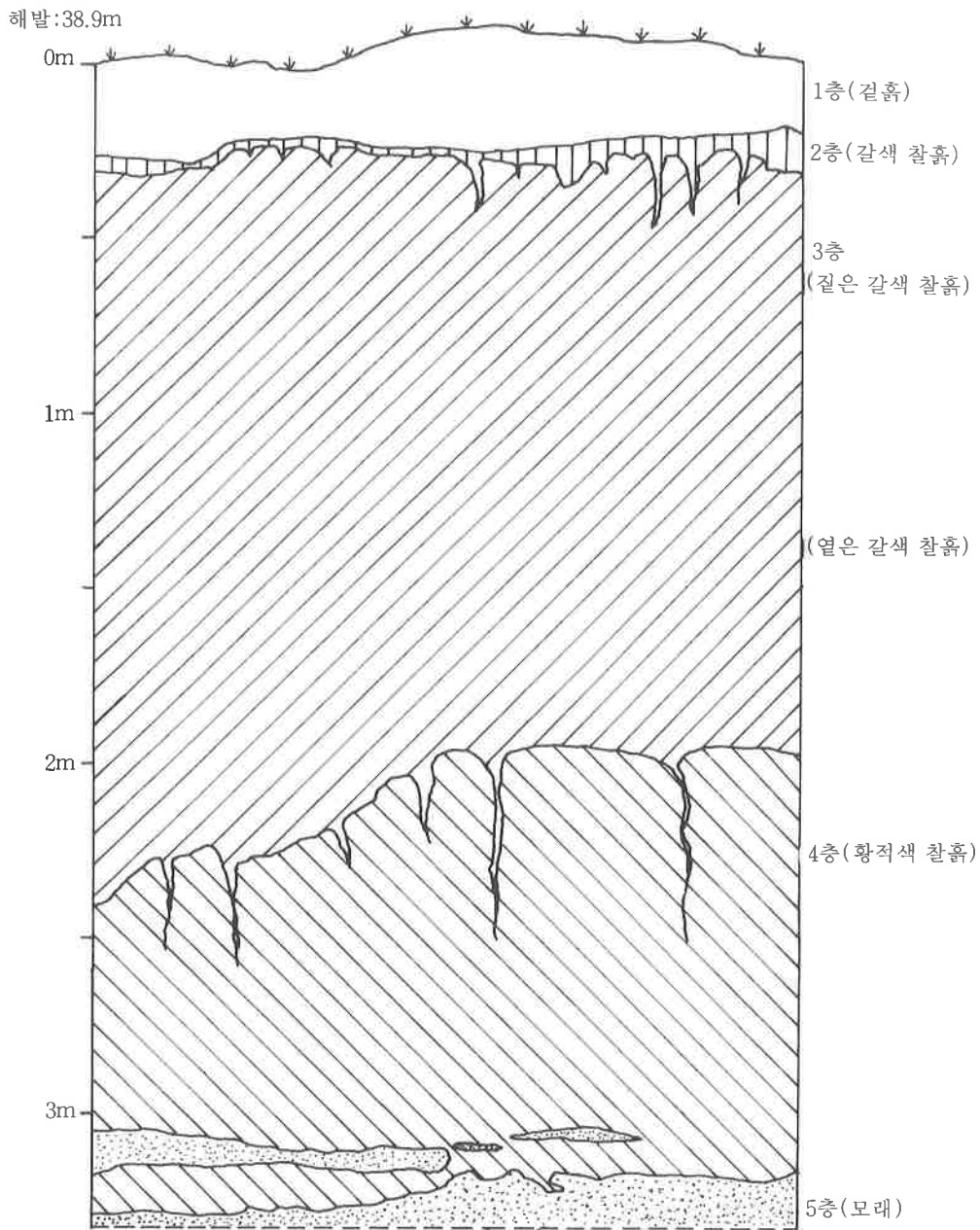
〈지도 2〉 양평 병산리 유적의 자리



〈그림 1〉 병산리 유적의 I 지구와 II 지구

〈그림 2〉 양평 병신리 유적의 발굴칸





〈그림 3〉 양평 병산리 유적 지층 자름면

서쪽부분은 본래부터 쌓여 있는 흙을 파내 버릴 심고 있는 까닭에 쌓임층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136-8 전」의 동쪽부분에는 본래의 지형이 제법 잘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전체면적은 약 1000평에 이른다. 이번에 먼저 발굴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 동쪽부분이며, 이곳을 편의상 I지구라 부르기로 하겠다.

1차로 이루어진 이번 발굴작업은 시굴조사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래서 문화층의 범위와 분포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먼저 발굴대상 지역을 5×2m로 칸을 나누었고, 이렇게 나눈 곳을 각 칸별로 2×2m씩 발굴하여 모두 22군데에 시굴구덩이를 넣었다. 발의 가로축을 따라 5m씩 끊어 ㄱ, ㄴ, ㄷ, ㄹ, ㅁ…… 그리고 세로축을 따라 2m씩 끊어 1, 2, 3, 4, 5…… 등으로 매겨가면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각 칸의 이름을 붙였다(그림 2 참조). ㅁ1, ㅁ2, ㅁ3칸의 경우에는 2×2m씩 더 발굴하였다.

I지구의 깊이는 해발 약 38.1-35.8m 사이에 든다. 대체로 ㄱ칸에서 ㄷ칸에 이르기까지 해발은 약 38.1-37.5m 사이에 들고, ㄷ칸에서 ㄹ칸쪽으로 가면서 낮아진다.

한편 「136-8 전」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 「136-14 전」이 있고, 그 바로 남쪽에 농수로가 지나고 있다. 본래의 퇴적이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136-14 전」과 농수로 가장자리의 독부분이다. I지구에서 보이는 퇴적층의 성격과 흐름을 밝혀내기 위하여 이 독에 2×2m의 시굴구덩이를 하나 넣었고, 이 시굴구덩이 바로 북쪽, 곧 「136-8 전」의 가장 남쪽부분에 또다른 시굴구덩이를 하나 더 넣었는데, 두 곳의 시굴구덩이를 판 부분을 편의상 II지구라 부르겠다. II지구에 넣은 처음 시굴구덩이 깊숙면의 해발 높이는 약 38.9m이다. II지구의 높이는 I지구보다 1m쯤 높다.

2. 지층과 문화층

가. 지층

지금까지 발굴된 결과에 따르면, 본디 지층이 제법 잘 남아 있는 곳은 II지구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 실린 〈유적의 지형과 지질〉(이동영 1992ㄴ)에서는 병산리 발굴유적의 쌓임층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모래층, 1토양층, 2토양층, 3토양층, 경작토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각 쌓임층에 들어 있는 유물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좀더 자세하게 나누었고, 각 지층의 번호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매겼다. 각 지층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

- * 1층 : 깊숙층(부식토, 경작토).
- * 2층 : 갈색 찰흙층(3토양층).
- * 3층 : 찰흙층(2토양층)으로 아랫부분은 옅은 갈색, 윗부분은 짙은 갈색이다. 윗부분에 언땡트기 현상이 나타난다.

*4층 : 황적색 찰흙층(1토양층)으로 윗부분에 언땅트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층의 아래쪽에서 내려갈수록 모래 성분이 늘어난다.

*5층 : 모래층.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I지구에서 4개의 지층이 모두 나타나는 곳은 없다. 이러한 까닭은 I지구의 대부분이 3층의 일부만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층까지 발굴된 곳, 예를 들어 ㄷ7칸과 같은 곳에서는 2층과 3층이 보이지 않으며, 4층 위에 1층이 곧바로 놓인다.

나. 문화층

5개의 지층 가운데 현재까지 구석기시대의 뎀석기가 나오는 곳은 2층, 3층, 4층이다. 한편 1층에서는 토기 조각, 그물추 등이 나왔으며 제 자리를 잃은 뎀석기도 섞여 나왔다. 지금까지 발굴조사한 바에 따르면 5층에서는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

구석기시대의 뎀석기를 중심으로 각 지층을 문화층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문화층 : 2층(3토양층)

*2문화층 : 3층(2토양층)

*3문화층 : 4층(1토양층)

한편 올해에 실시한 발굴작업에서는 1층에서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만을 찾았을 뿐이다. 비록 이곳에서 나온 유물이 모두 제자리를 잃은 것들이지만 아래층의 것과 비교해서 유물의 성격과 시대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1층의 걸흙층에서 새로운 문화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유구나 유물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층을 문화층으로 다루지 않았다.

3.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발굴 유물

지금까지 발굴된 석기의 양은 10여점으로 많지 않다. I지구에는 22군데, II지구에는 2군데 시굴구덩이를 넣었으나 발굴된 면적이 적은 편이고, 깊이도 깊지 않은 까닭에 많은 유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1문화층에서 새기개와 격지가 발굴되었고, 2문화층에서 찌개, 동근날 몸돌석기, 자갈돌망치, 격지 등이 나왔다. 3문화층에서는 격지와 망치돌이 나왔다.

가. 1문화층

이 문화층에서 모두 5점의 유물이 나왔다. I지구의 ㄹ칸에는 다른 칸에 비하여 갈색찰흙층이 제법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ㄹ1, ㄹ2칸, ㄹ3칸은 2×4m씩 발굴하였는데, 석기는 ㄹ1칸과 ㄹ2칸에서만 드러났다. ㄹ1칸에서는 새기개 1점과 격지 2점, ㄹ2칸에서 새기개 1점과 망치돌

1점이 나왔다.

1문화층에서 나온 석기로는 새기개 2점, 격지 2점, 망치돌 1점이 있다. 새기개 2점은 매우 질이 좋은 차돌로 만들어졌다. 한편 2점의 차돌 격지의 굽이 선모양으로 나타나는 점이 눈길을 끈다.

1) 망치돌(I지구 □2칸, 104×97×71mm, 935g, 그림 4, 사진 9)

등근 모양으로 생긴 이 망치돌의 암질은 흑운모편마암이다. 부딪쳐 으스러진 자국은 위쪽 끝부분에만 조금 나타난다.

2) 새기개(I지구 □1칸, 23×16×6mm, 2g, 그림 5, 사진 10)

굽(butt)이 선모양으로 나타나는 차돌(quartz) 격지를 이용하여 만든 이 석기는 크기가 작은 편이다. 새기개 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떼려내어 만들었는데, 날각도는 약 49°이다.

3) 새기개(I지구 □2칸, 49×31×19mm, 29g, 그림 6, 사진 11)

차돌로 된 격지 조각(debris)을 이용하여 만든 새기개는 두 번 떼려 날을 만들었는데 2방향에서 먼저 떼고, 1방향에서 그 다음으로 떼어 날을 세웠다. 새기개 날의 각도는 약 89°이다.

4) 격지(I지구 □1칸, 20×11×5mm, 0.8g, 그림 7)

작은 격지로 암질은 차돌인데, 굽은 선모양으로 이루어진다.

5) 격지(I지구 □1칸, 66×51×25mm, 92g, 그림 8)

암질은 개차돌(quartzite)이다. 이 격지의 등면(dorsal surface)¹⁾과 때린면 또는 굽(striking platform or butt)도 자연면으로 되어 있다. 때린점(cone of percussion)은 으스러졌다. 배면(ventral surface)의 흑부분(bulb of percussion)은 별로 발달되지 않았다. 격지각(flaking angle)²⁾은 93° 쯤 된다.

나. 2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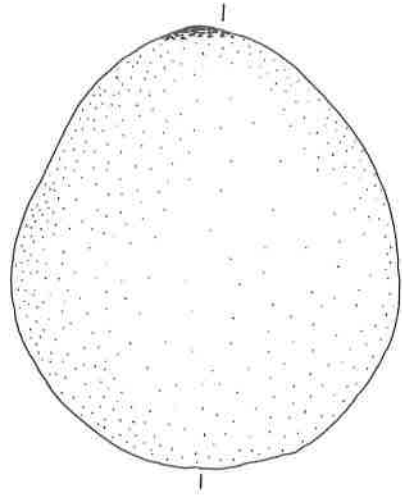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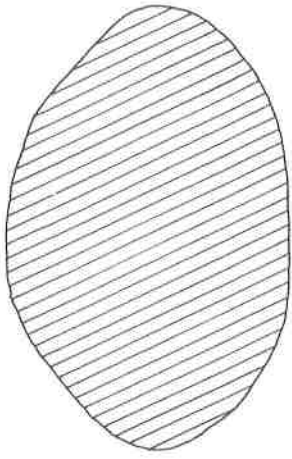
I지구에서만 6점의 석기가 나왔다. 찌개 1점, 등근날 몸돌석기 1점, 망치돌 1점, 격지 3점이 나왔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곳에서 나온 석기는 1문화층과 3문화층에서 나온 석기보다 크기가 큰 편이다.

1) 망치돌(I지구 □2칸, 105×68×24mm, 230g, 그림 9,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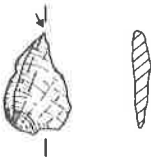
암질은 흑운모편마암이다. 바닥은 판판하고 윗면은 조금 등근 모양이다. 오른쪽 가장자리 둘레에 부딪친 자국이 남아 있다. 왼쪽 가장자리 둘레에서는 으스러진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1) 격지의 등면은 윗면, 그 배면은 아랫면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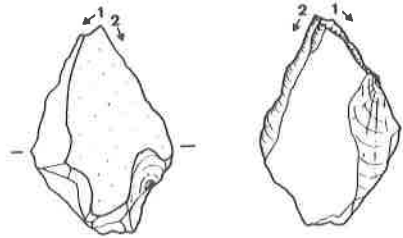
2) 격지 배면의 흑부분과 때린면이 이루는 각도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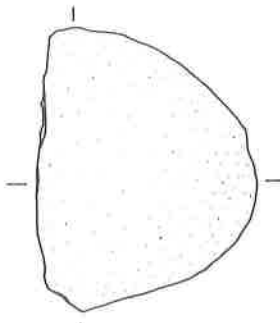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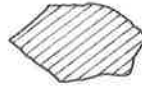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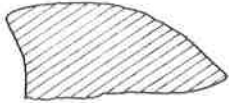
〈그림 4〉 망치돌



〈그림 5〉 새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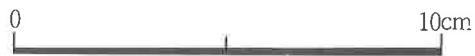
〈그림 6〉 새기개



〈그림 8〉 격지



〈그림 7〉 격지



이 유물의 밑부분은 깨어져 나갔다.

2) 찌개(I지구 ㄱ3칸, 119×91×34mm, 545g, 그림 10, 사진 13)

암질은 흑운모편마암이며, 위 아래가 판판한 모양의 자갈들을 한 면만 떼어 만들었다. 세로 비긴날 찌개로서 세번에 걸쳐 큰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³⁾을 마련하였고, 마른날에 두터운 잔손질을 베풀어 불룩날을 만들었다. 날길이(100m) / 몸체의 전체 둘레길이(약 333mm)에 대한 비율은 0.30이다. 바닥면과 이루는 날각도⁴⁾는 75-90° 사이에 드는데, 날의 가운데쪽 부분이 매우 가파르다.

3) 둥근날 몸돌석기(I지구 ㄹ4칸, 98×98×53mm, 575g, 그림 11, 사진 14)

암질은 개차돌이다. 전체 둘레를 돌아가며 두 면에 엇갈림떼기를 베풀어 이 안팎날찌개를 만들었다. 한 면에는 자연면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면의 마른날은 다섯번의 떼기를 베풀어 마련되었다. 그 반대면의 마른날은 열번에 걸친 떼기를 하여 마련되었다. 1차떼기에 의하여 마련된 마른날에 잔손질을 한 흔적이 보이는 곳은 이 석기의 아래쪽부분이다. 날각도는 대체로 85-100° 사이에 든다. 날의 전체 둘레길이는 약 318mm이다. 이 둥근날 몸돌석기(discoid)는 갈깃자 모양의 날(jagged working edge)을 가졌다.

4) 격지(I지구 ㄱ4칸, 56×36×19mm, 32.5g, 그림 12)

암질은 개차돌이다. 격지의 등면 끝부분에 자연면이 일부 남아 있다. 때린점은 보이지만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흑부분은 거의 발달되지 않았다. 격지각은 약 97°이다.

5) 격지(I지구 ㄷ4칸, 82×65×31mm, 148.5g,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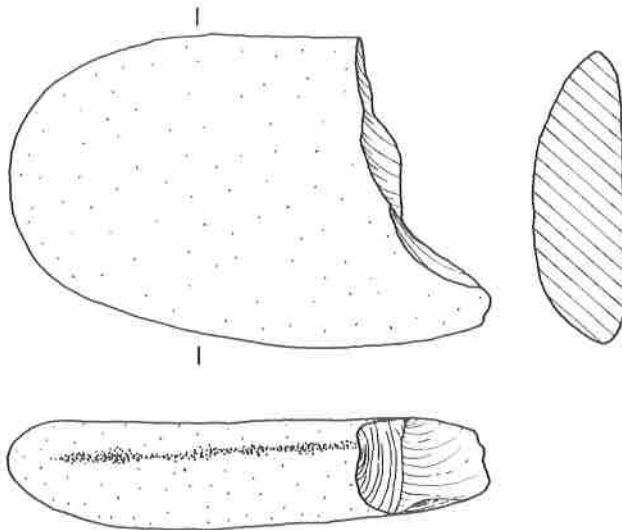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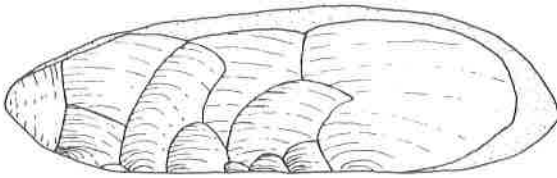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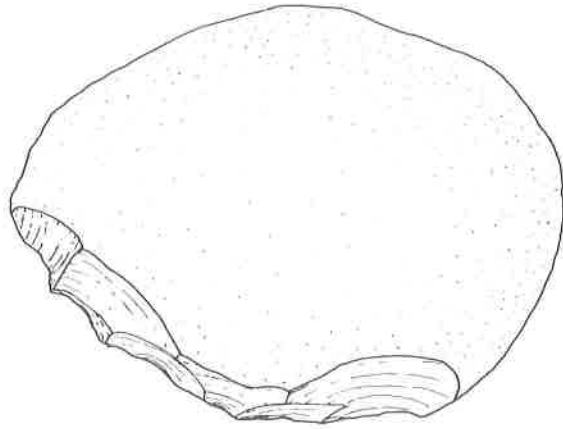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인데, 매우 거친 느낌을 준다. 병산리에서 나온 격지 가운데 제법 큰 종류에 속한다. 등면에는 자연면이 없다. 때림면은 한번 떼어 마련하였고, 때린점은 뚜렷하지 않다. 흑부분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격지각은 약 120°이다.

6) 격지(I지구 ㄸ0칸, 92×84×56mm, 431g, 그림 14)

암질은 개차돌이다. 자갈들의 한쪽 끝부분에 속하는 유물이다. 때린점은 흔적만 남아 있고,

3) 여기서 말하는 '마른날'이란 말은 찌개나 주먹도끼와 같은 석기를 만들 때, 돌감에 큰 떼기를 베풀어 날의 기본형태가 잡힌 날을 가르킨다. 따라서 '마른날'의 형태는 돌감의 1차떼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우리는 '마름질'이라 부르겠다. 마름질에 따라 기본형태가 마련된 날에 2차떼기, 곧 잔손질을 하여 다듬은 날을 '잔손질날'이라 부를 수 있다. 찌개나 주먹도끼의 경우, 마른날을 그대로 이용하여 썼던 석기가 있으며, 마른날에 다시 잔손질을 하여 쓰임새에 맞도록 날을 다듬은 석기들도 있다. '마르다'라는 말은 "옷감이나 재목 등을 치수에 맞추어 베고 자르다."라는 뜻을 지녔다(이희승 편저 1986. <<국어대사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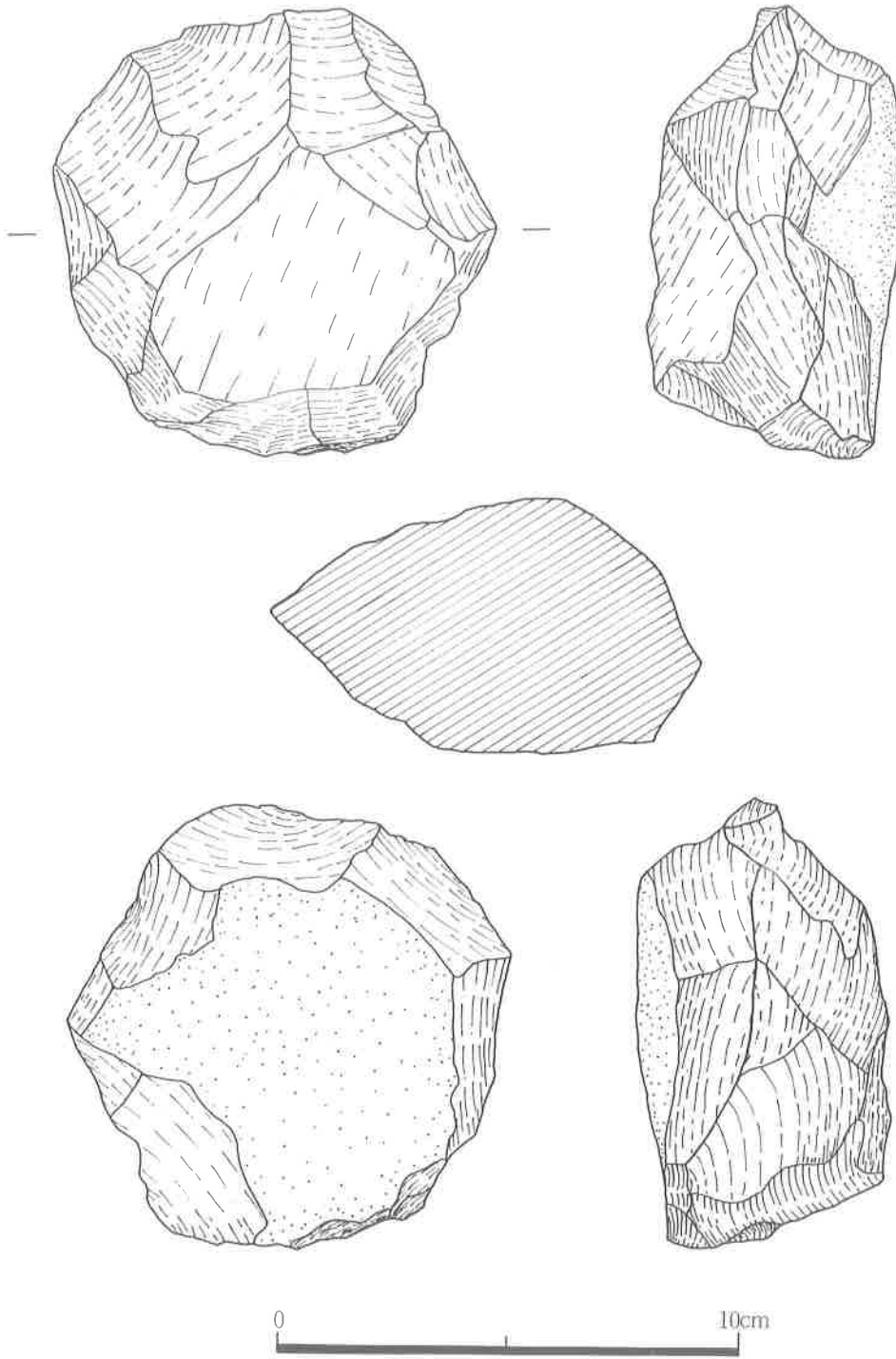
4) 여기서 말하는 날각도는 잔손질된 날의 면과 바닥부분이 이루는 각을 말한다. 떼에 따라 마름질로 떼어진 면과 바닥면이 이루는 날각도를 재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잔손질된 날과 바닥면이 이루는 날각도는 마름날과 바닥면이 이루는 날각도보다 높은 값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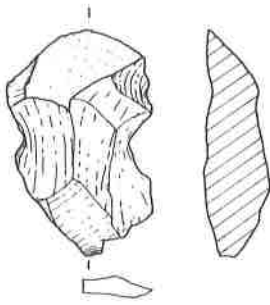
〈그림 10〉 짝개

〈그림 9〉 돌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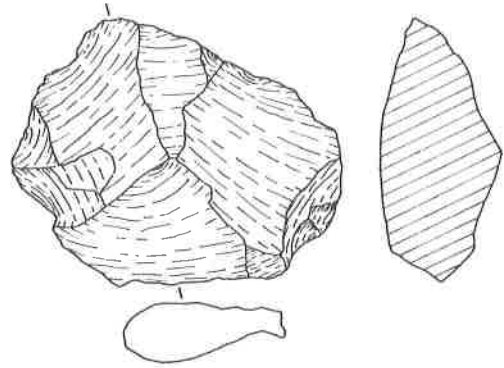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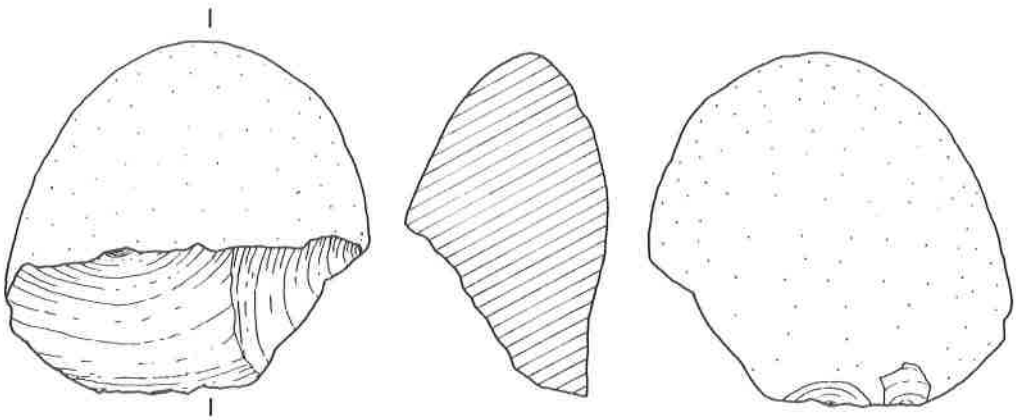
〈그림 11〉 동근날 몸돌석기



<그림 12> 격지



<그림 13> 격지



<그림 14> 격지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격지각은 약 120° 이다. 때림면에 자연면이 넓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모부부딴히떼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격지라고 추정된다.

다. 3문화층

병산리 유적의 층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굴구덩(2×2m)을 넣은 II지구와 I지구의 ⅳ22칸에서 석기가 발굴되었다. II지구에서는 4층의 윗부분에서 작은 격지 1점과 망치돌 1점이 나왔고, I지구에서는 모래질이 차츰 많아지는 4층의 아랫부분에서 격지가 1점 드러났다.

I지구나 II지구에서 발굴된 격지의 양은 매우 적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격지는 구른 흔적을 보여주지 않으며, 모서리나 날부분이 매우 날카롭다. 이곳에서 나온 망치돌에는 여러 차례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나타난다. 비록 석기의 수는 적지만 격지와 망치돌이 4층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 망치돌(II지구, 85×64×56mm, 342g, 그림 17, 사진 15)

암질은 화강섬록암이며, 모서리나 능선과 같은 여러 부분에 때린 자국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망치돌의 길이축을 따라 한쪽 끝부분에는 이 망치돌을 <그림 15 ㄴ>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떼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면이 남아 있다. 망치돌의 길이축을 가로방향으로 잡고 몸돌에 내리칠 때(그림 15)와 망치돌의 길이축을 세로방향으로 내리칠 때(그림 16), 망치돌 자체의 끝부분이 오히려 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끝쪽은 흔히 불룩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쓰기에 알맞은 날이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림 15 ㄱ>에서처럼 몸돌쪽이 깨질 때에는 오목한 날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오목한 날을 두세번 연이어 떼어내면 찍개와 같은 모양을 이루게 된다.

2) 격지(II지구, 34×20×8mm, 4.9g,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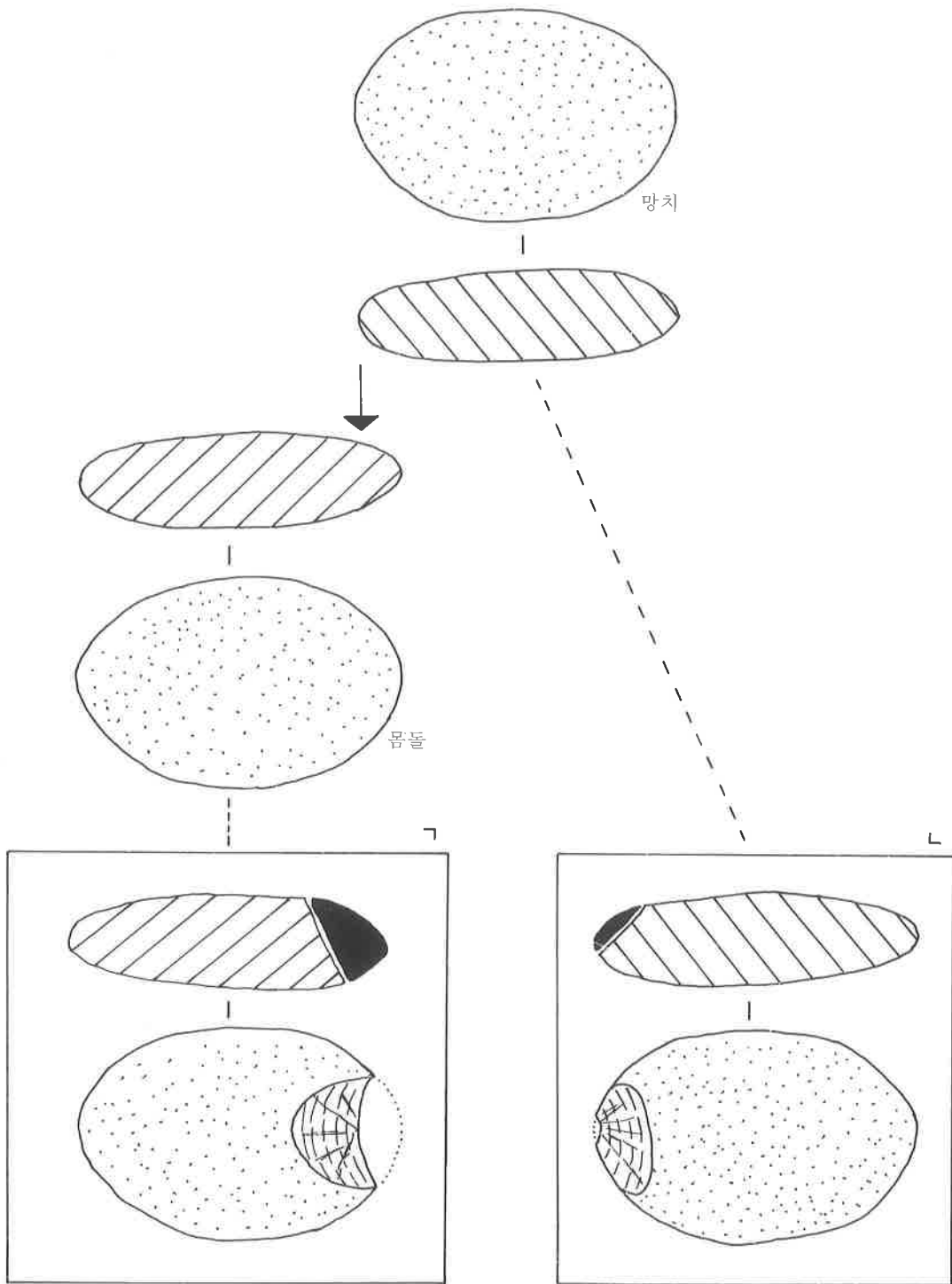
암질은 차돌이며 등면에는 자연면이 없다. 때림면은 한번 떼어 만들었고, 때린점이 커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후부분은 판판하며, 격지각은 약 88° 로서 90° 를 넘지 못한다.

3) 격지(I지구 ⅳ22칸, 56×27×16mm, 31g,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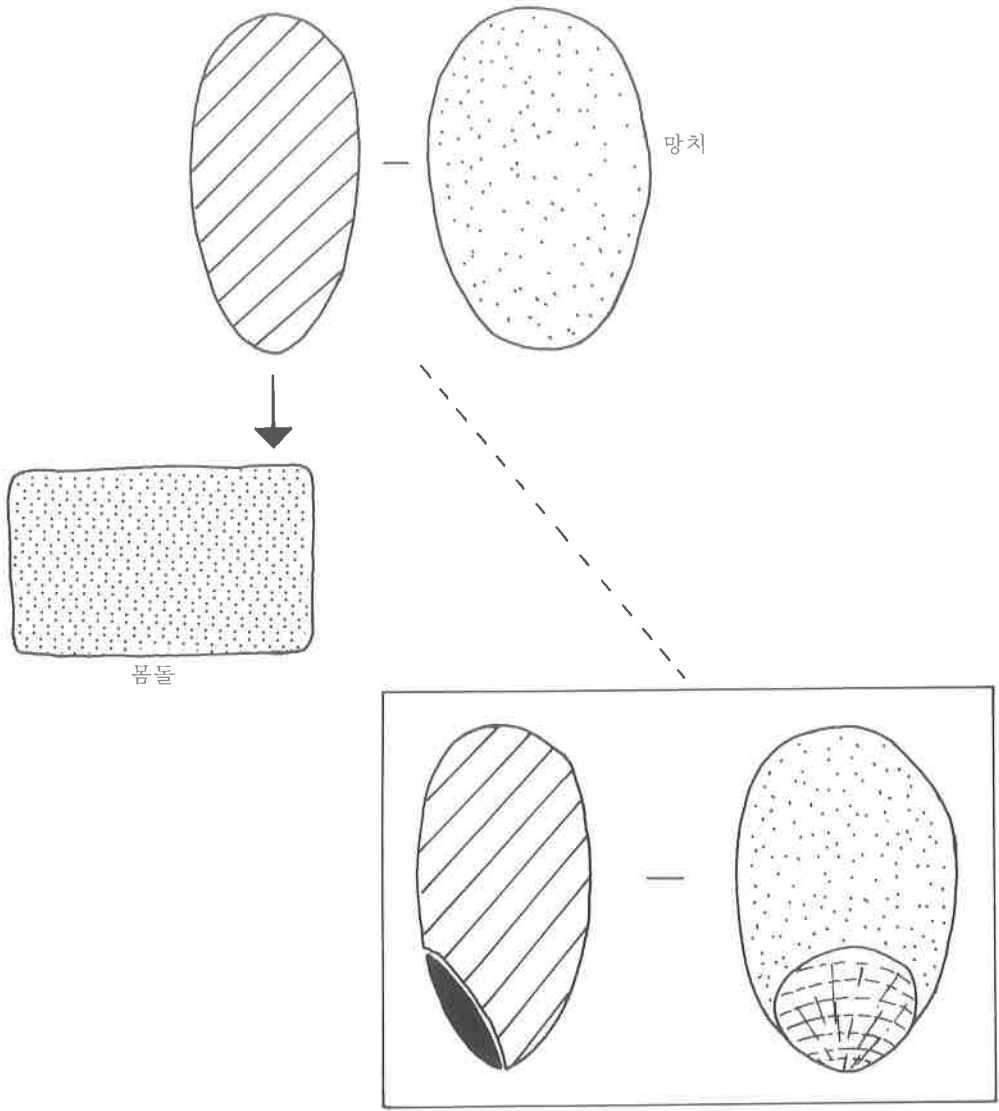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등면의 1/2 정도가 자연면으로 되어 있다. 때림면은 한번 떼어 만들었고, 때린점은 뚜렷하지 않으나 후부분은 조금 발달되었다. 격지각은 114° 이다.

4. 길에서 찾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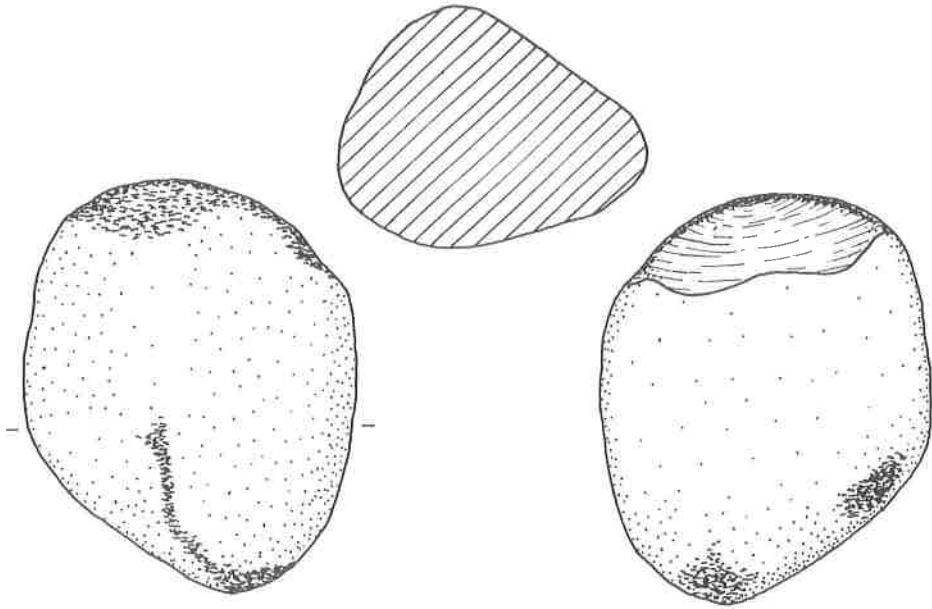
병산리 유적에서는 발굴구덩이보다 주변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길으로 드러난 곳에서 찾은 유물이 훨씬 많고, 유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길에 드러난 석기는 2지층의 1문화층과 3지층의 2문화층에서 드러났다. 3지층의 경우에는 주로 짙은 갈색 찰흙층 퇴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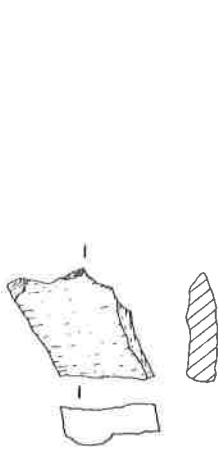
〈그림 15〉 망치돌의 가로축 방향으로 몸돌에 타격을 가할 때, 몸돌과 망치돌이 깨지는 경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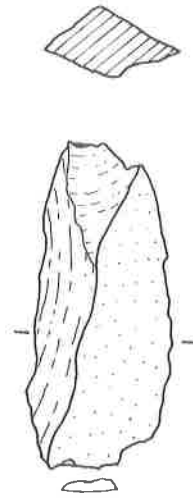
<그림 16> 망치돌의 길이축 방향으로 몸돌에 타격을 가할 때, 망치돌이 깨지는 경우의 특징



〈그림 17〉 망치돌



〈그림 18〉 격지



〈그림 19〉 격지



관련을 맺고 있는 곳에서 석기가 채집되었다. 지표조사에서 찾은 석기들은 농수로를 만들거나 밭의 흙을 파내 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층 자름면이 겹으로 드러난 부분에 박혀 있었다. 그러나 길 위나 논바닥에서 나온 유물도 많았는데 이러한 유물이 어느 문화층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기란 매우 어렵다.

한편, 발굴지역을 조사하면서 발굴장의 지표 또는 부식토층에서 토기, 석기(돌도끼, 끌), 그물추 등을 찾았는데 토기의 특징으로 볼 때, 이들 유물은 철기시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병산리 유적을 발굴하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주변지역을 답사하여, 양덕리에서 병산리의 토기와 비교되는 유물을 찾았다. 병산리 유적과는 달리 양덕리 유적에는 넓은 지역에 걸쳐 수많은 토기 조각이 널려 있었는데 나무숫이나 불탄흙 등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집자리나 또는 다른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덕리에서 찾은 토기 자료의 일부도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한다.

가. 구석기시대 유물

겉에서 찾은 유물에는 몸돌, 돌망치, 찌개, 여러면석기, 잔손질된 격지석기, 격지 등이 있다. 이런 여러 유물 가운데 여기서는 몸돌, 돌망치, 찌개, 여러면석기, 잔손질된 격지석기 등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돌날격지는 1점도 찾지 못하였다.

(1) 1문화층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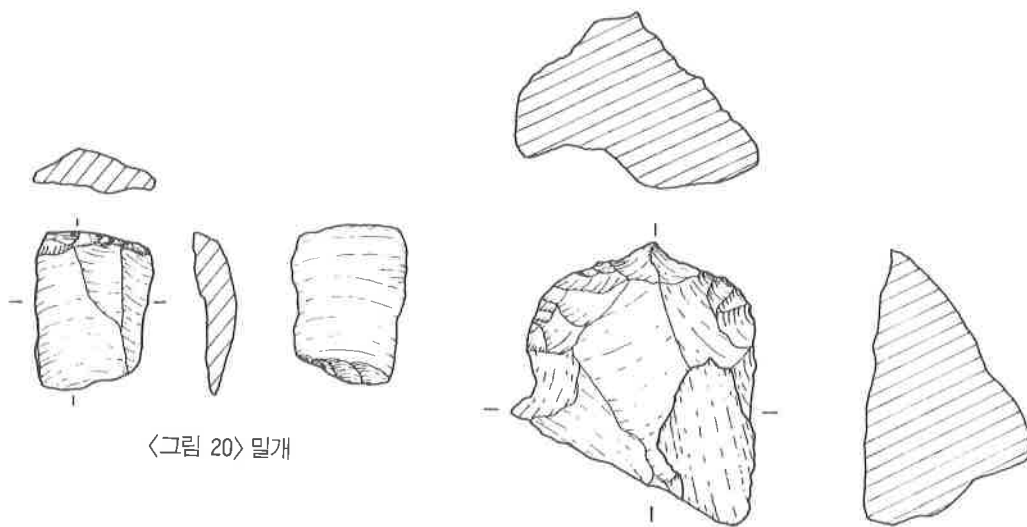
1) 밀개(36×27×9mm, 12.2g, 그림 20, 사진 16)

암질은 개차돌이다. 격지의 위 아래쪽⁵⁾에 잔손질을 베풀어 두 날로 이루어진 밀개를 만들었다. 격지의 위쪽 끝부분에 있는 날은 배면쪽에서 등면쪽으로 고르고 두터운 잔손질을 베풀어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날길이는 25mm, 날각도는 약 89°이다. 아래쪽 끝부분에 있는 날은 등면쪽에서 배면쪽으로 잔손질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격지의 때림면이 남아 있지 않다. 아래쪽 날길이는 21mm, 날각도는 약 65°이다.

2) 밀개(64×55×37mm, 110.5g, 그림 21, 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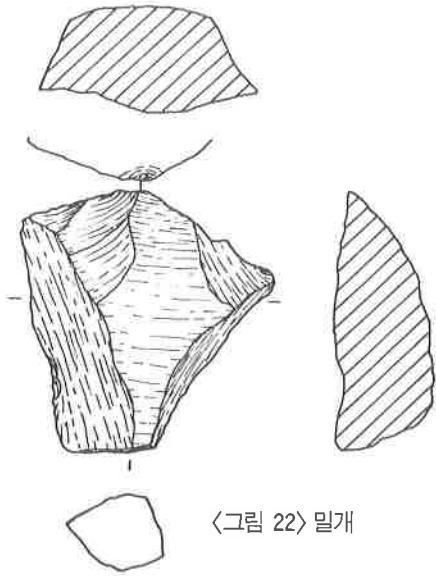
암질은 차돌이다. 때림면이 있었던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격지 위쪽 끝부분에 배면쪽에서 등면쪽으로 고르고 두터운 잔손질을 베풀어 볼록한 날을 만들었는데, 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었다. 날길이는 58mm, 날각도는 70-90° 사이에 든다.

5) 격지의 위쪽 또는 아래쪽이라는 방향은 굽(또는 때림면)을 아래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아 나타낸 말이다. 격지의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는 방향도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된다.



<그림 20> 밀개

<그림 21> 밀개



<그림 22> 밀개



3) 밀개(59×54×23mm, 73.5g, 그림 22, 사진 18)

암질은 개차돌이다. 격지의 오른쪽 윗부분에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조금 두터운 잔손질을 베풀어 거의 곧은날에 가까운 밀개를 만들었다. 날의 오른쪽 끝부분에는 등쪽에서 배쪽으로 난 불규칙한 잔손질 자국이 있다. 날각도는 75-90° 사이에 들며, 날길이는 30mm이다. 이 격지의 때림면은 한번 뎀면으로 되었고, 때린점은 뚜렷하지 않으며, 흑부분은 판판하다. 격지각은 약 93°이다.

(2) 2문화층의 유물

1) 몸돌(115×88×68mm, 965g, 그림 24-1, 사진 19)

암질은 개차돌이다. 본디 돌감은 위 아랫면이 판판한 모양의 굽은 자갈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림면은 판판한 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자연면에 먼저 떼기를 베풀어 준비된 때림면을 마련한 부분이 있다. 몸돌의 둘레를 돌아가며 격지를 얻기 위하여 베풀어진 떼기방법은 <그림 23ㄱ>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격지떼기는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졌다. 때낸 면이 마주치는 오른쪽과 왼쪽 가장자리 능선에는 다른 물체와 부딪혔던 것으로 생각되는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자국은 여러면석기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현재 몸돌의 전체 둘레길이(320mm)에 대하여 자연면으로 남아 있는 둘레길이(105mm)의 비율은 0.33이다. 윗면과 바닥면의 대부분은 자연면으로 이루어진다.

2) 몸돌(113×98×73mm, 1220g, 그림 24-2, 사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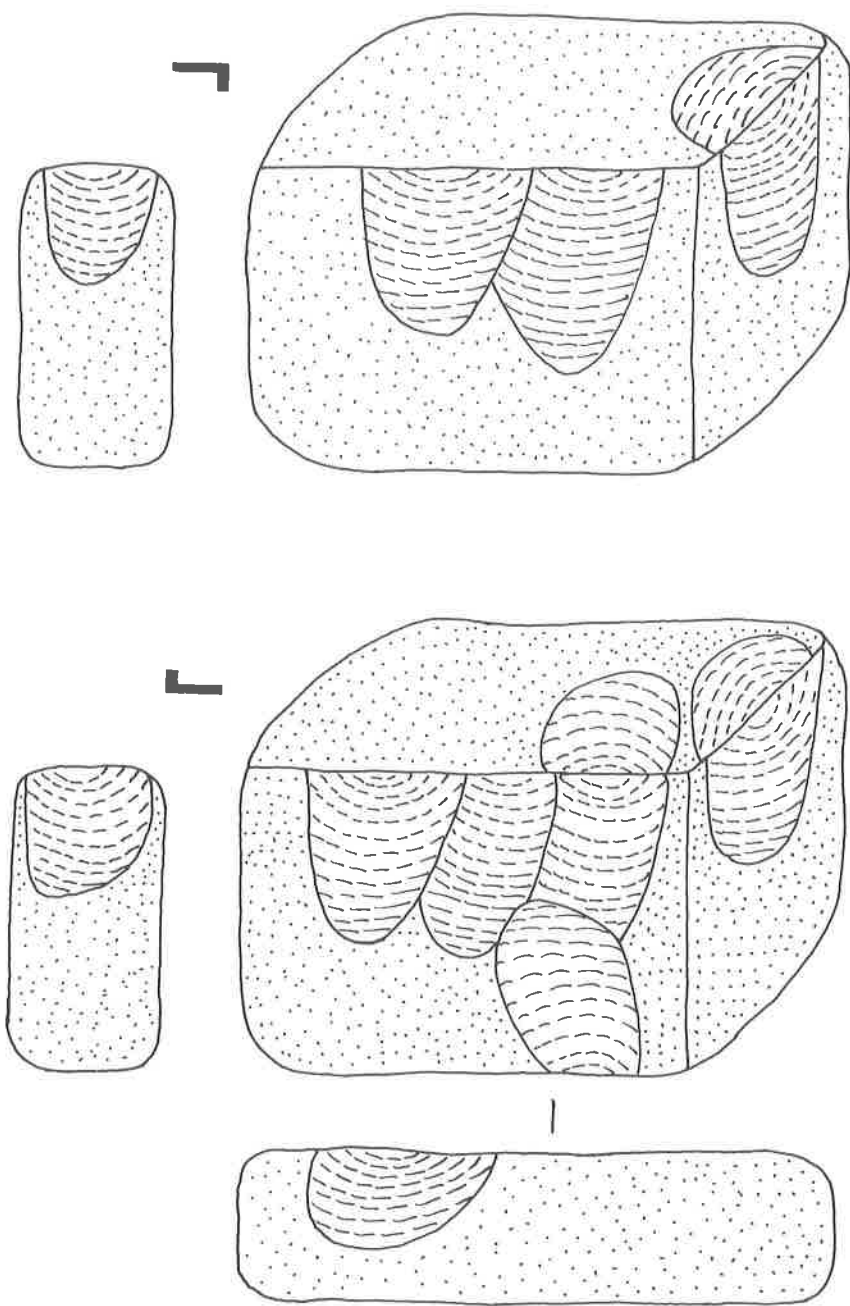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본디 돌감은 바로 앞에서 말한 몸돌과 비슷한 생김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림면의 특징도 앞에서 이야기한 몸돌과 같이 나타나지만, 격지떼기는 <그림 23ㄴ>처럼 서로 마주하는 두 방향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몸돌의 전체 둘레길이(295mm)에 대하여 자연면으로 남아 있는 둘레길이(60mm)의 비율은 0.20으로서 앞의 몸돌보다 둘레쪽 자연면이 적게 나타난다. 윗면과 바닥면의 대부분은 자연면으로 이루어진다.

3) 망치돌(138×77×47mm, 725g, 그림 25, 사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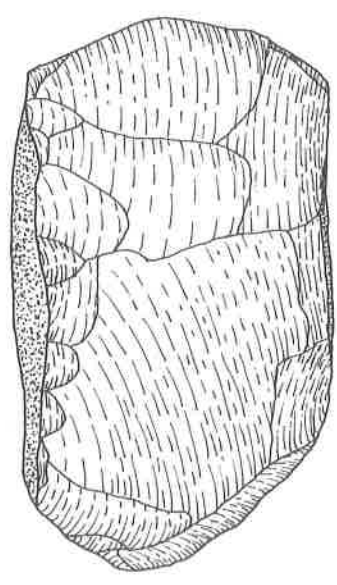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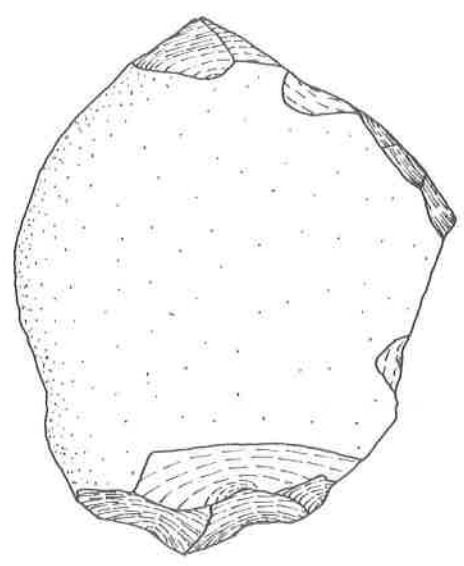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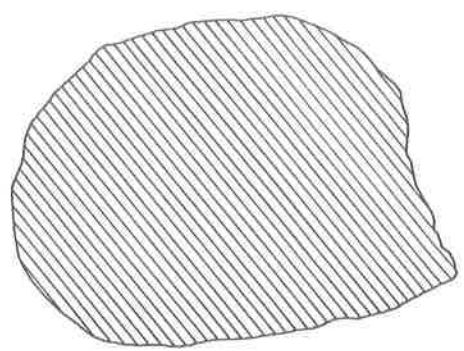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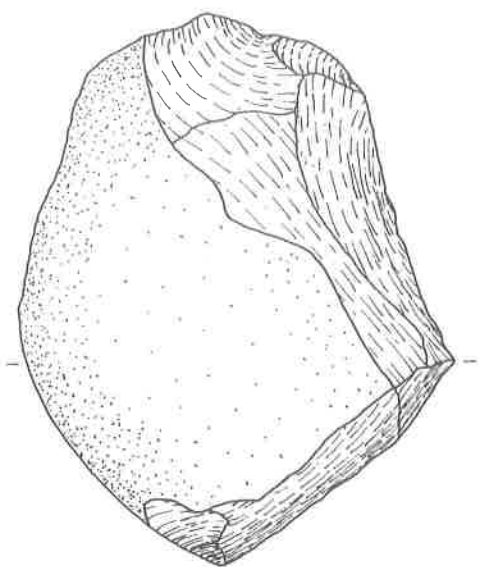
암질은 화강섬록암이다. 길쭉한 모양으로 배면과 바닥면이 판판한 편이며, 매우 매끈한 느낌을 준다. 가장자리 둘레를 돌아가며 남아 있는 부딪쳐 으스러진 자국이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등면과 배면의 가운데쯤에 움푹움푹하게 패인 부분이 있는데, 이 망치돌을 세로축 방향으로 내리칠 때,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파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4) 망치돌(139×62×43mm, 600g, 그림 26, 사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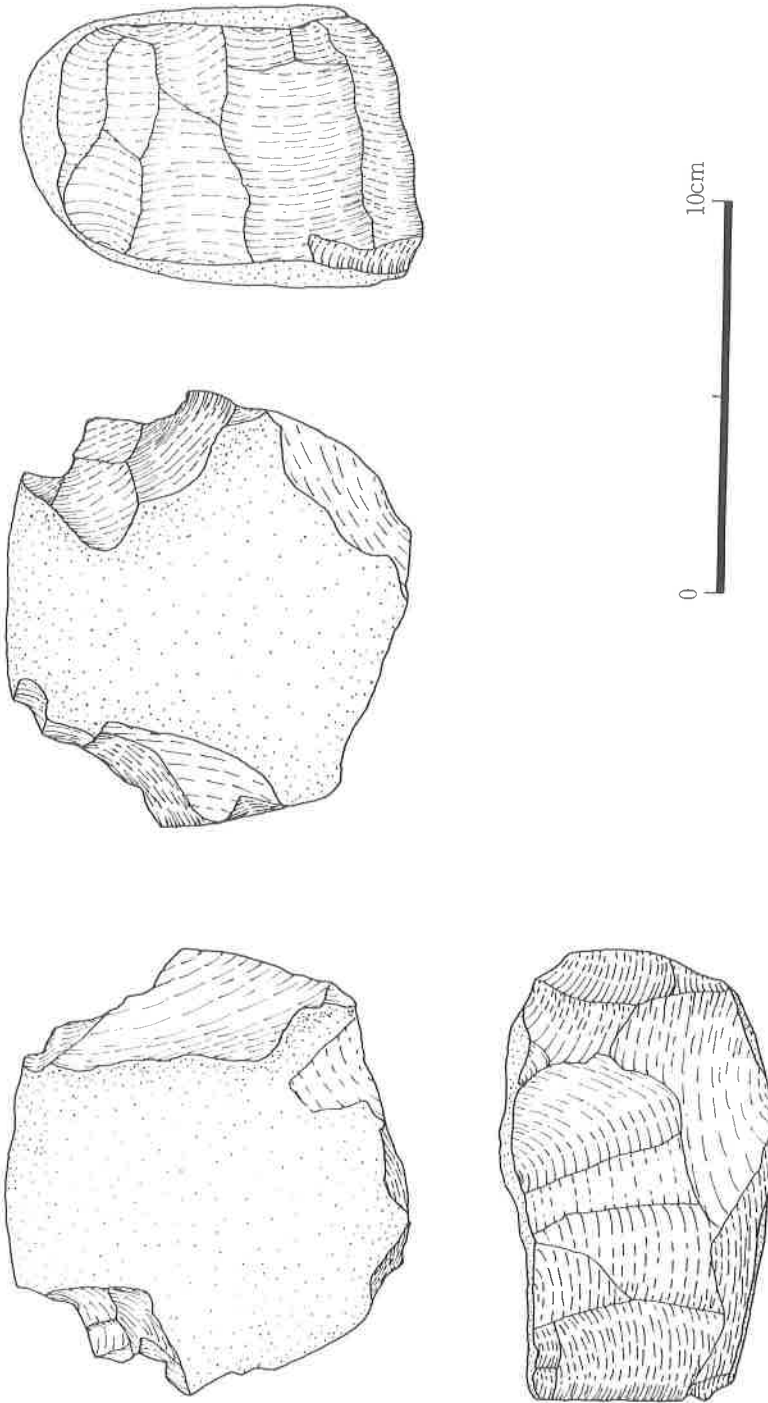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망치돌과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데 앞의 것보다 조금 두툼한 편이다. 위와 아래의 양끝쪽에 으스러진 자국이 남아 있다. 판판한 등면의 가운데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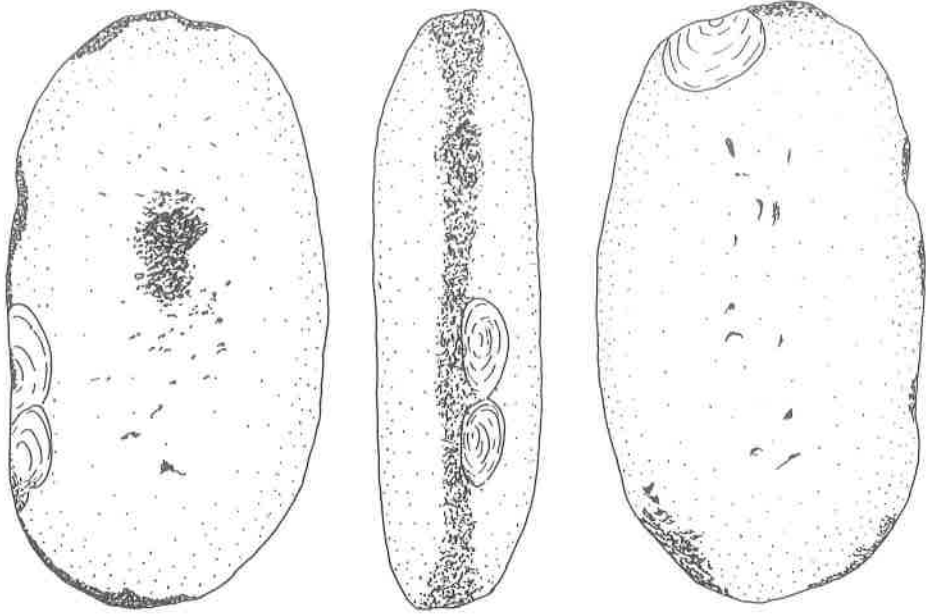
〈그림 23〉 몸뚱이의 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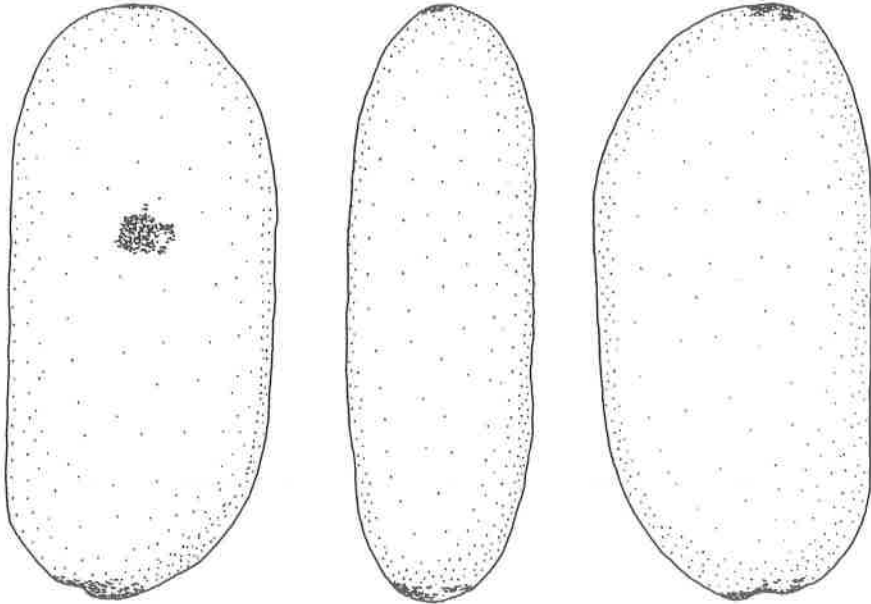
〈그림 24-1〉 문돌



〈그림 24-2〉 모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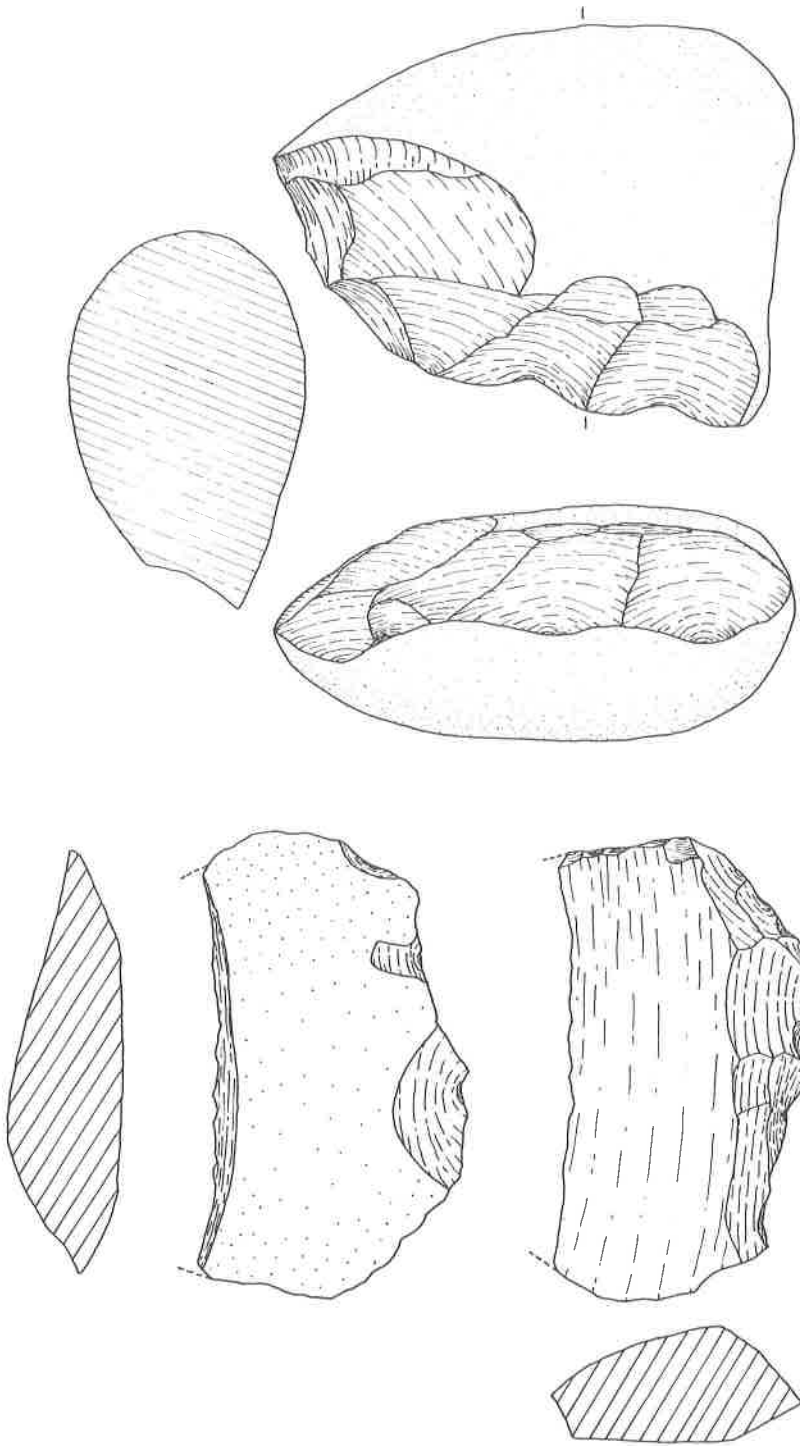


<그림 25> 망치돌



<그림 26>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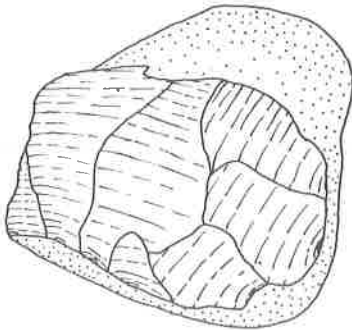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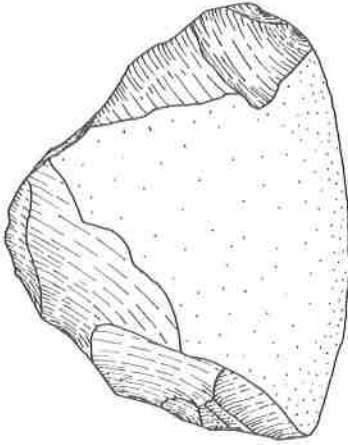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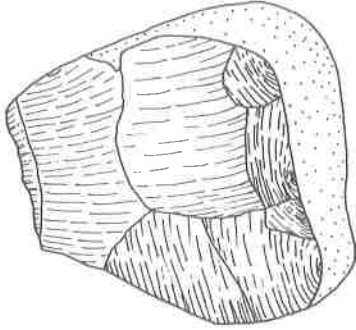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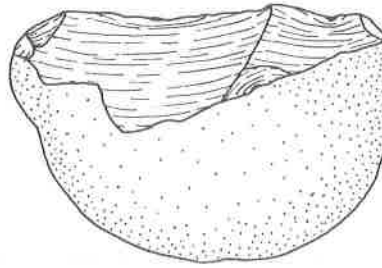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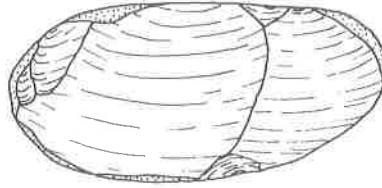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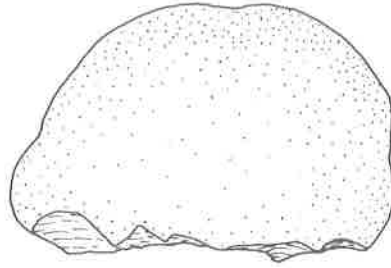
<그림 28> 짝개

<그림 27> 자르개

0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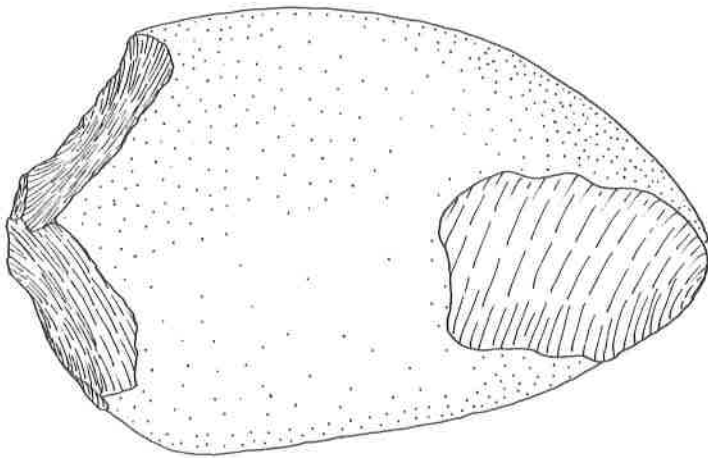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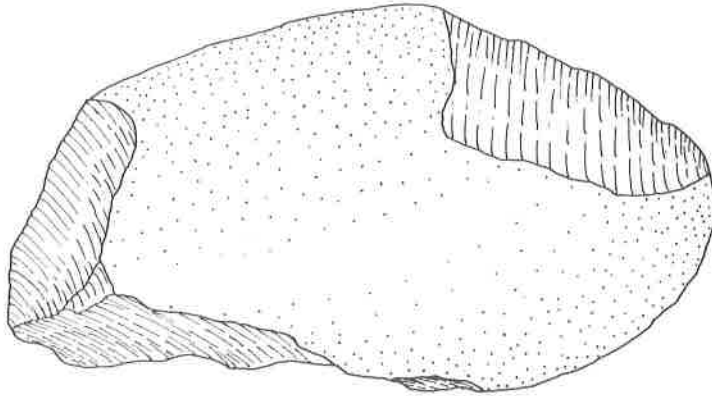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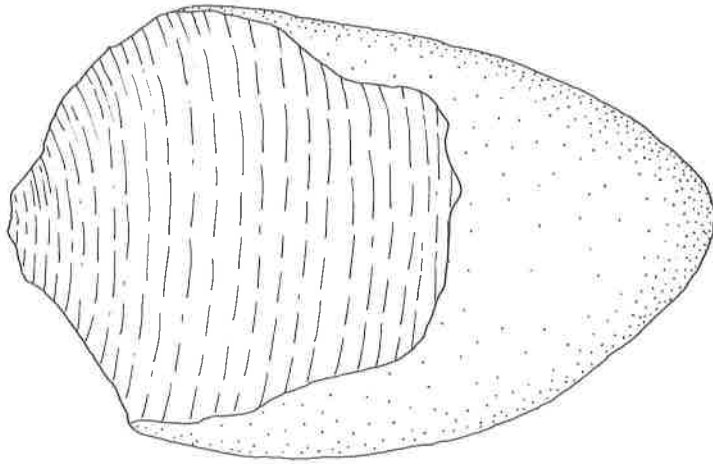


<그림 29> 짝개



<그림 30> 짝개





〈그림 31〉 짚개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을 힘있게 밀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움푹푹한 자국이 패여 있다.

5) 자르개(121×66×32mm, 293g, 그림 27, 사진 23)

암질은 흑운모편마암이다. 흑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격지의 굽에 엇갈림떼기를 베풀어 자르개(cleaver)를 만들었는데, 날부분쪽은 깨어져나갔다. 비록 1점이지만 2문화층의 성격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석기라고 생각된다.

6) 찌개(139×107×65mm, 1180g, 그림 28, 사진 24)

암질은 개차돌이다. 적어도 다섯번에 걸친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날의 위쪽 끝부분을 두텁게 잔손질하였다. 날의 모양은 톱니날식 볼록날이다. 날길이(160mm)/전체 둘레길이(405mm)에 대한 비율은 0.40이다. 날각도는 80-110° 사이에 든다. 이 석기의 밑부분 오른쪽 모서리에 부딪친 자국이 나타난다.

7) 찌개(92×76×64mm, 515g, 그림 29, 사진 25)

암질은 차돌 종류이다. 네번에 걸친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다. 마른날의 몇 부분에 잔손질을 하여 두 날이 서로 만나는 곳이 둥근 모양을 한 찌개날을 만들었다. 날길이(152mm)/전체 둘레길이(236mm)에 대한 비율은 0.64이다. 1/2 이상이 찌개의 날로 되었다. 날각도는 85-95° 사이에 든다.

8) 찌개(82×55×39mm, 224g, 그림 30, 사진 26)

암질은 차돌이다. 두번에 걸친 떼기를 마련하였고, 날의 끝부분에 얇게 떼어진 불규칙한 잔손질이 들어 있다. 석기의 날 전체가 으스러진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불규칙한 잔손질이 남게 된 것은 이 석기를 사용하는 동안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날은 오목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석기는 크기가 작다는 점에서 굽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마른날이 큰 떼기에 의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찌개로 분류하였다.⁶⁾ 날길이(80mm)/전체 둘레길이(220mm)에 대한 비율은 0.36이다. 날각도는 72-85° 사이에 든다.

9) 찌개(144×91×77mm, 1140g, 그림 31, 사진 27)

암질은 개차돌이다. 바닥쪽에는 한번, 등쪽에는 두번에 걸친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마른날에 부분으로 잔손질을 하여 볼록한 모양의 안팎날찌개를 만들었다. 마른날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바닥쪽을 떼어냈다. 날길이(90mm)/전체 둘레길이(378mm)에 대한 비율은 0.24이다. 날각도는 80-90° 사이에 든다. 이 찌개의 아래쪽에 한 차례 댄 면이 있는데, 이 면은 이 석기를 길이축 방향으로 다른 물체에 부딪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그림 16 참조).

6) 만약 이 석기의 날이 고른 잔손질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형식상 이 유물은 굽개로 나뉘 수 있을 것이지만 2번의 큰 떼기만으로 날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찌개로 보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작은 찌개와 큰 굽개 사이의 차이는 날의 제작수법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10) 찌개(106×86×82mm, 945g, 그림 32, 사진 28)

암질은 흑운모편마암이다. 바닥쪽과 등쪽에 각각 한번씩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이 마른날을 잔손질한 흔적은 거의 없다. 날이 오목한 모양의 안팎날찌개이다. 석기의 날길이(72mm) / 전체 둘레길이(235mm)에 대한 비율은 0.31이다. 날각도는 65-80° 사이에 든다.

11) 찌개(102×91×77mm, 840g, 그림 33)

암질은 개차돌이다. 윗면의 가운데쪽과 아래쪽 부분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다. 석기 몸체를 돌아가며 다른 물체와 부딪치면서 으스러진 자국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으깨진 자국이 집중되어 나타난 부분의 면을 손끝으로 문지르면 거칠고 오돌도돌한 느낌을 준다. 이 석기의 밑부분에는 두번에 걸쳐 큰 떼기를 베풀어 만든 등근날 찌개의 날이 있다. 날길이(60mm) / 전체 둘레길이(300mm)에 대한 비율은 0.20이며, 날각도는 85-95° 사이에 든다.

12) 여러면석기(124×95×89mm, 1355g, 그림 34, 사진 29)

암질은 개차돌이다. 바닥면과 등면 그리고 옆면 일부에 자연면이 남아 있다. 몸체 둘레에 다른 물체와 부딪치면서 으스러진 자국이 곳에 따라 일부 나타난다.

13) 굽개(55×44×20mm, 46.5g, 그림 35, 사진 30)

암질은 차돌이다. 배면쪽에서 등면쪽으로 두텁게 잔손질하여 볼록한 굽개의 날을 만들었다. 날길이는 62mm, 날각도는 60-65° 사이에 든다. 이 격지의 때린점은 크기가 매우 작으며, 격지각은 약 120° 이다. 흑부분은 별로 발달되지 않았다.

14) 굽개(77×44×39mm, 137.5g, 그림 36, 사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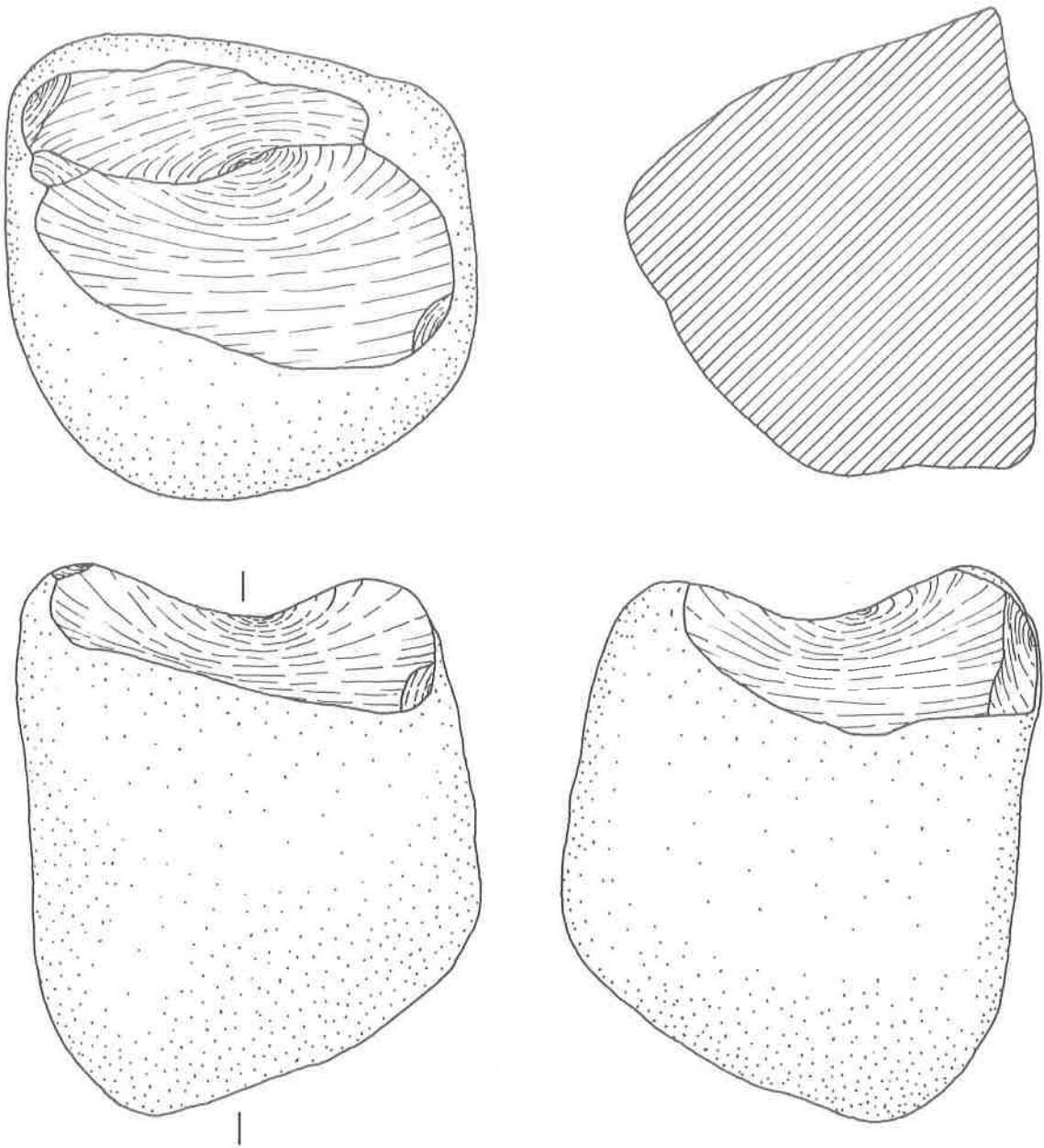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깨진 자갈돌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볼록하게 솟은 등면은 자연면으로 되었으며, 판판한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두텁게 잔손질하여 세로날과 가로비긴날을 만들었다. 두 날이 만나는 부분은 등근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밑개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15) 굽개(43×38×19mm, 30.5g, 그림 37, 사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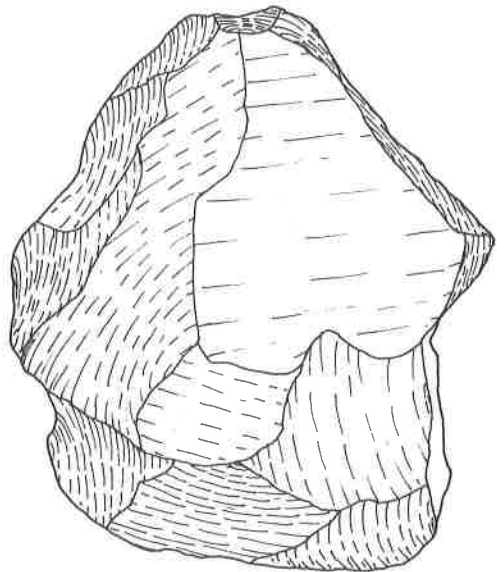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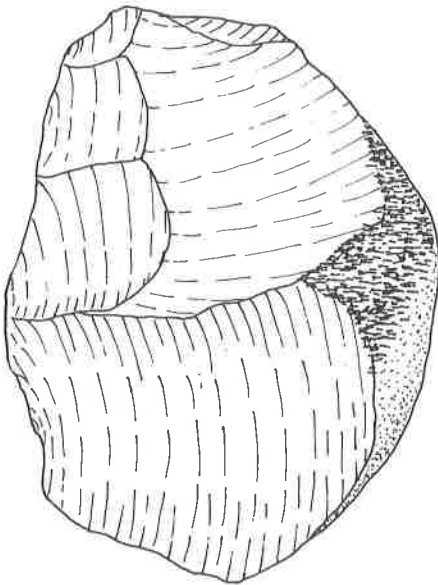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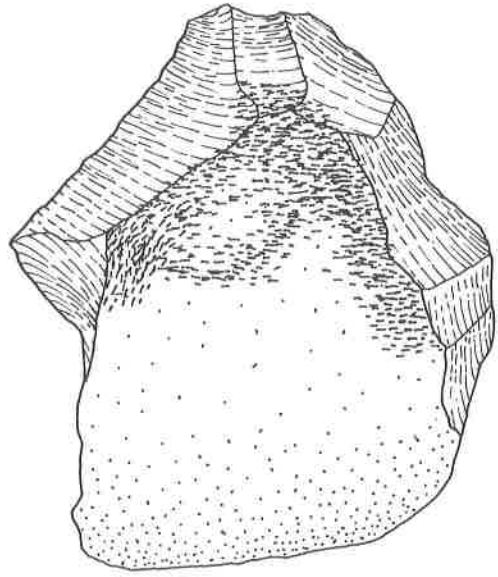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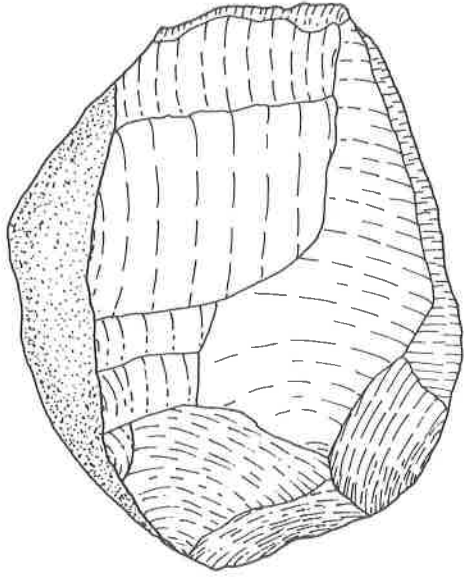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때림면과 등면은 모두 자연면으로 이루어졌다.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두텁지 않은 잔손질을 하여 날을 만들었다. 날의 아래쪽은 오목한 모양이다. 때린점이 뚜렷하고 흑부분은 판판하다.

(3) 제자리를 잃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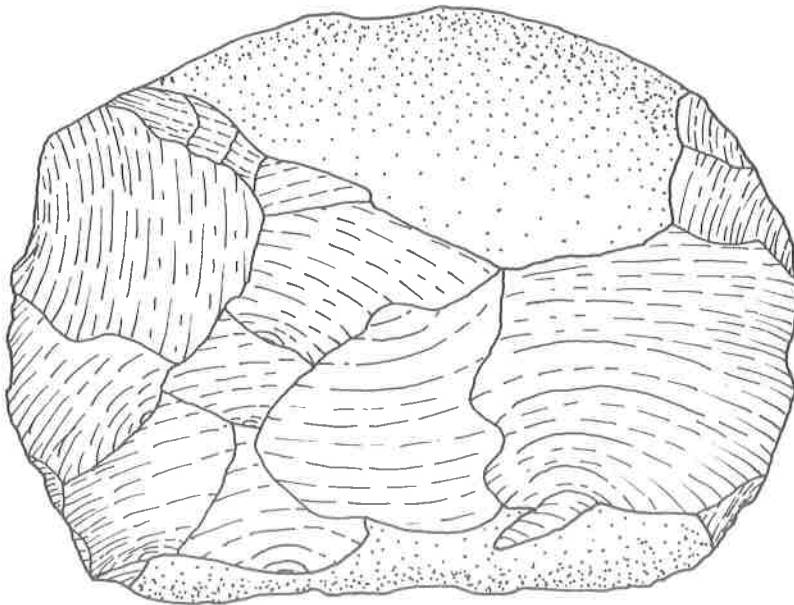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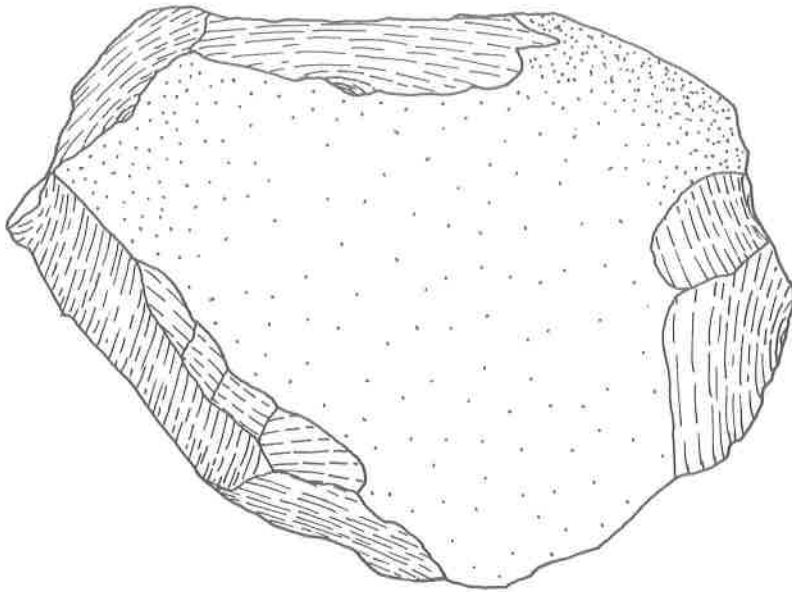
병산리에서 찾은 유물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제자리를 잃은 상태로 나왔다. 이들 유물 가운데 떼어내거나 잔손질된 특징을 보여주는 석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곁에서 찾은 유물에는 석기의 곁면에 진한 붉은 갈색의 녹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체로 2문화



〈그림 32〉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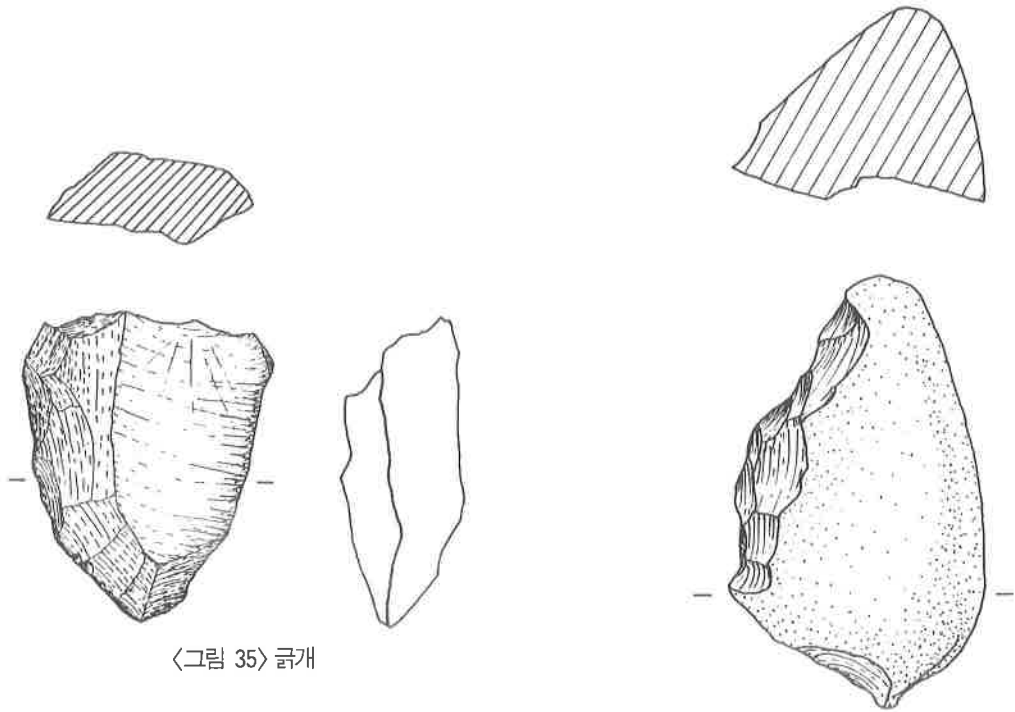


〈그림 33〉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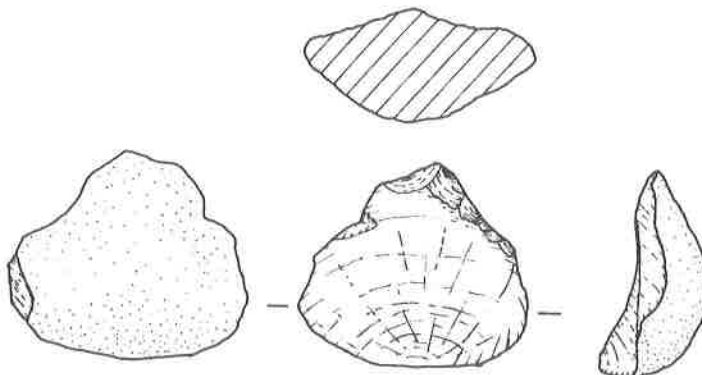
〈그림 34〉 여러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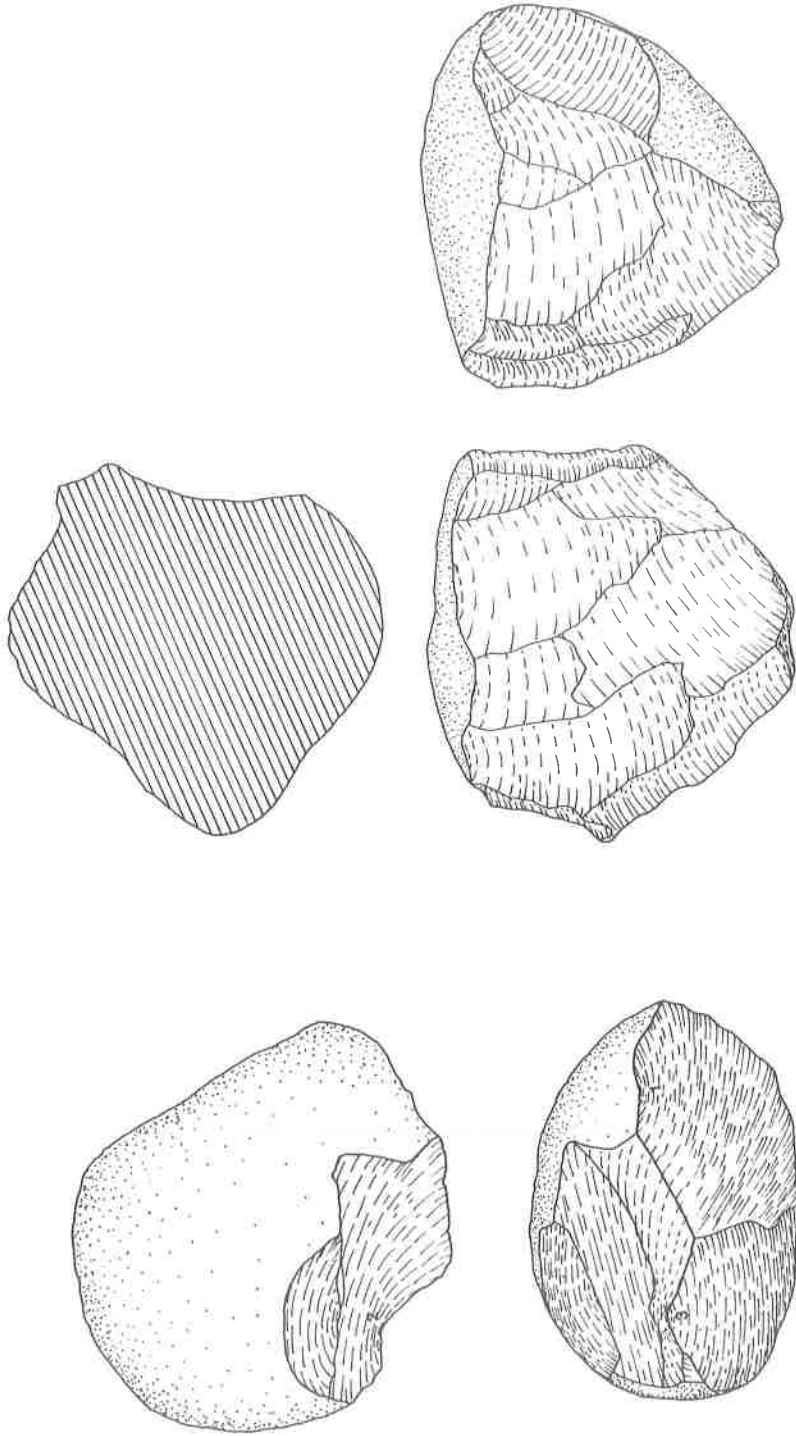
<그림 35> 굽개

<그림 36> 굽개



<그림 37> 굽개





<그림 39> 몸돌

<그림 38> 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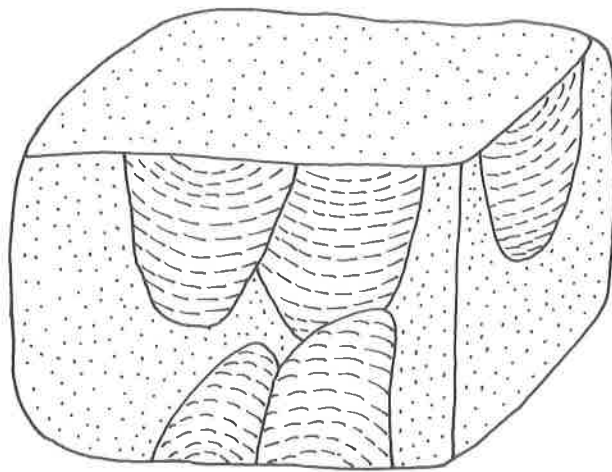
층(3층) 또는 3문화층(4층)에서 나온 유물에서 자주 보이며, 2층의 갈색 찰흙층에서는 아직 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에 서술하는 유물 가운데 '2-3문화층 추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녹이 곁에 묻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

1) 몸돌(96×87×59mm, 520g, 그림 38, 사진 33)

암질은 안산암이다. 가장 먼저 오른쪽의 1방향에서 떼기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는 2방향에서 떼어내 때림면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준비된 때림면에 3방향으로 타격을 가하여 격지를 때냈다.

2) 몸돌(93×86×77mm, 725g, 그림 39, 사진 34,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위 아랫면이 모두 자연면으로 되어 있다. 가장자리 전체 둘레길이(276mm) 가운데 자연면이 남아 있는 둘레길이(약 90mm)의 비율은 0.33이다. 때림면은 특별히 마련하지 않았고, 자연면 자체를 때림면으로 이용하였다. 격지떼기는 <그림 40>과 같이 마주떼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40> 몸돌의 떼기

3) 망치돌(103×77×51mm, 520g, 그림 41, 사진 35)

암질은 편마암 종류이다. 몸체는 타원형이며, 아랫부분에 떼어진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돌을 망치로 이용하는 동안 다른 물체와 부딪쳐 떼진 면이라 생각된다. 이 면이 떼어진 자리에 때린 자국이 조금 패여 있다. 때린 자국은 가장자리 둘레에도 일부 나타난다.

4) 찌개(97×91×61mm, 710g, 그림 42, 사진 36,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굵은 자갈들의 일부를 떼어내 몸체를 만들었는데, 바닥면과 밑부분에 자연면이 남아 있다. 몸체 왼쪽 가장자리에 두번의 떼기로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두세군데 얇은 잔손질을 베풀어 마른날을 불룩하게 다듬었다. 몸체에 마른날을 마련하기 위하여 1쪽에서 먼저 떼냈고, 그 다음에는 2쪽을 떼냈다. 바닥면과 이루는 날각도는 75-98° 사이에 든다. 날길이(92mm) /전체 둘레길이(307mm)에 대한 비율은 0.30이다.

5) 찌개(166×133×77mm, 2130g, 그림 43, 사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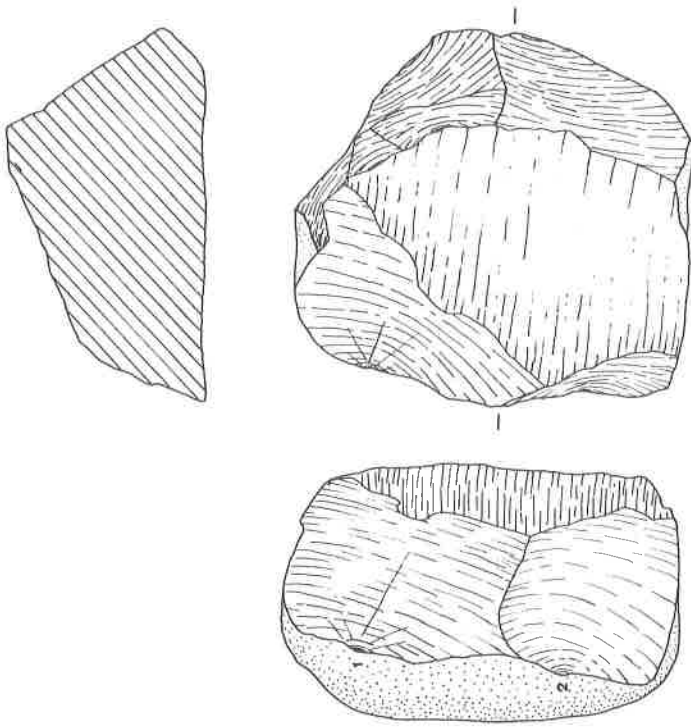
암질은 염기성암 종류이다. 병산리에서 나온 찌개 가운데 가장 크고 무겁다. 두번에 걸친 큰 떼기로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마른날을 불규칙하게 잔손질하여 오목불룩날을 만들었다. 날길이(170mm) /전체 둘레길이(483mm)에 대한 비율은 0.35이다. 날각도는 55-70° 사이에 든다.

6) 찌개(133×95×74mm, 1190g, 그림 44, 사진 38, 2-3문화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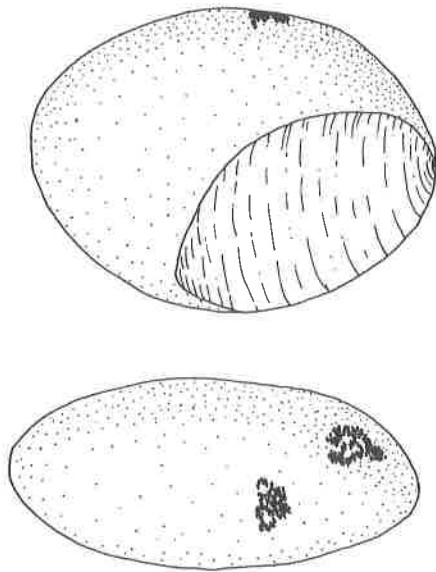
암질은 편마암 종류이다. 위쪽 끝부분은 세번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은 두번에 걸친 큰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부분에 따라 일부 잔손질을 하여 날을 다듬었다. 가로날과 세로날은 모두 불룩한 모양이다. 가로날 각도는 80-110° 사이, 세로날 각도는 80-100° 사이에 든다. 날길이(가로날 110mm, 세로날 120mm) /전체 둘레길이(360mm)에 대한 비율은 0.67이다. 왼쪽 가장자리와 바닥면이 만나는 모서리 능선에 으스러진 자국이 많이 나타난다.

7) 찌개(105×89×77mm, 1120g, 그림 45, 사진 39)

암질은 개차돌이다. 이 찌개의 본디 몸체는 몸돌이다.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는 자연면으로 되어 있고, 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하는 방향, 곧 마주떼기에 의하여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이 몸돌의 위쪽 끝부분에 두번에 걸친 떼기로 찌개의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가볍게 잔손질하여 이 날의 가운데쪽을 조금 뽀족하게 만들었다. 날길이(75mm) /전체 둘레길이(305mm)에 대한 비율은 0.25이다. 날각도는 100-110° 사이에 든다. 한편 이 몸돌의 아래쪽 끝부분에도 두번에 걸친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한 다음, 마른날에 가벼운 잔손질을 하여 가운데날 쪽을 조금 뽀족하게 만들었다.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가로날의 모양이 매우 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날길이(90mm) /전체 둘레길이에 대한 비율은 0.30이다. 날각도는 85-90° 사이에 든다. 이 석기의 바닥면과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이 서로 만나는 모서리 능선에는 으스러진 자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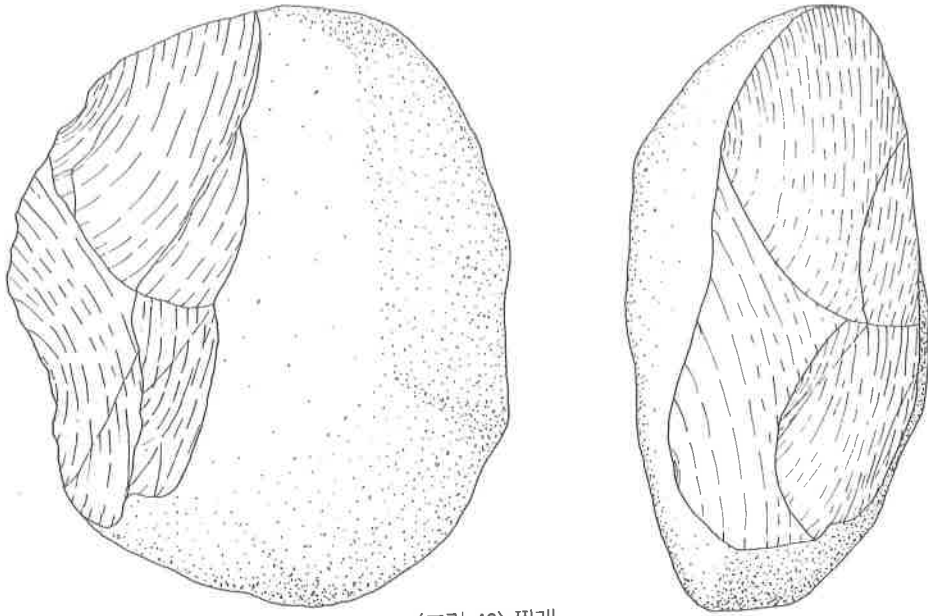


〈그림 42〉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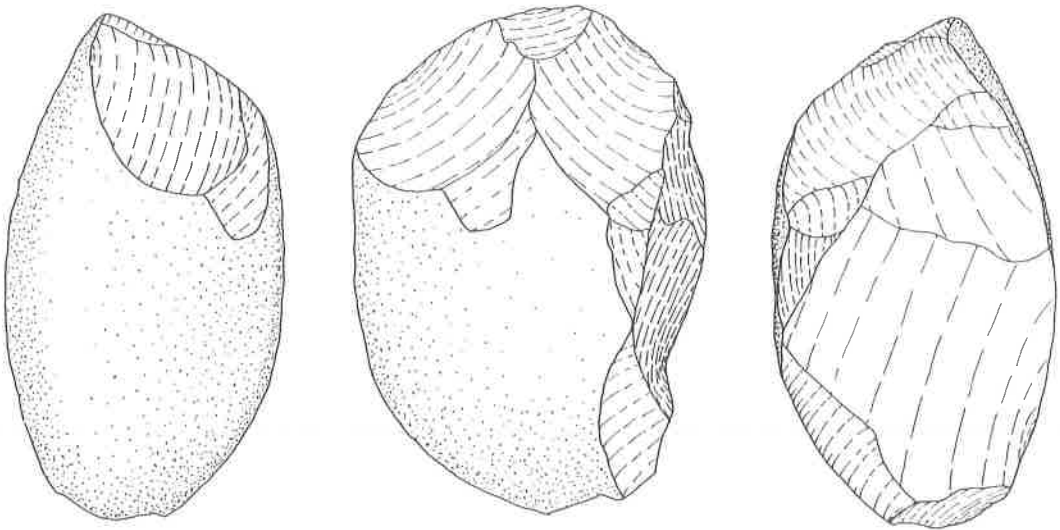


〈그림 41〉 망치돌





〈그림 43〉 짝개



〈그림 44〉 짝개

0 10cm

많이 나타난다.

8) 찌개(125×96×81mm, 1355g, 그림 46, 사진 40,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밑쪽과 가로자름면 모양은 네모꼴이다. 한번에 걸친 큰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마른날에 고른 잔손질을 베풀어 찌개의 날 가운데부분이 앞쪽으로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었다. 날길이(67mm) /전체 둘레길이(360mm)에 대한 비율은 0.19이다. 날각도는 약 70°이다.

9) 찌개(74×60×51mm, 238.5g, 그림 47, 사진 41)

암질은 개차돌이다. 두번에 걸친 큰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다. 마른날을 가볍게 잔손질하여 가운데쪽이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그 위와 아래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날을 만들었다. 날길이(63mm) /전체 둘레길이(183mm)에 대한 비율은 0.34이다. 날각도는 85-106° 사이에 든다.

10) 찌개(96×83×61mm, 585g, 그림 48, 사진 42, 2-3문화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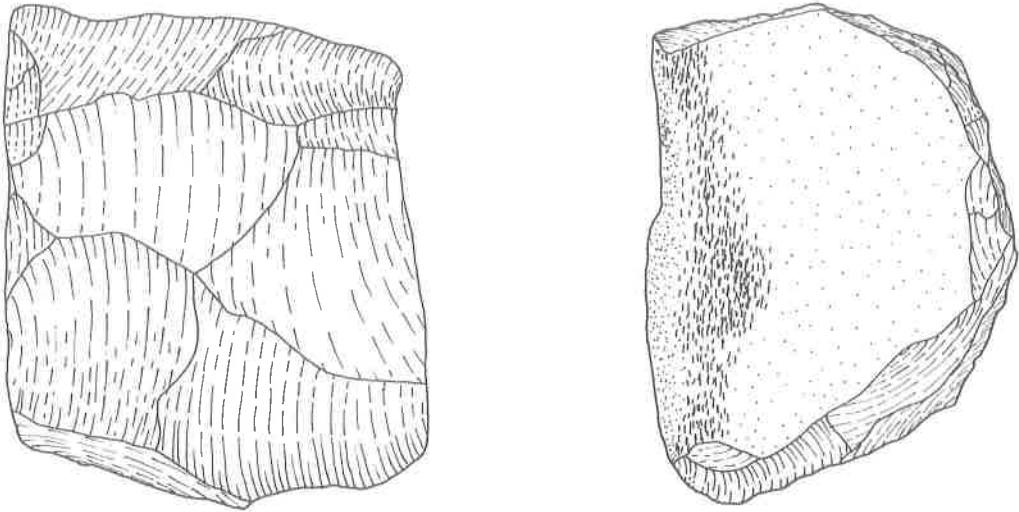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몸돌석기에서 떼어진 크고 두터운 격지의 끝부분을 등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세번에 걸친 떼기를 베풀어 볼록한 날을 만들었다. 격지 등면에는 으스러진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등면 부분에서 떨어져나간 격지의 떼 각이 모두 90°를 넘는 점으로 보아 이 격지는 여러면석기에서 떼낸 것으로 추정된다. 격지의 등면 끝부분에는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가운데쪽을 향하여 마주떼기를 한 두 개의 떼면이 있다. 이런 등면을 이용하여 만든 날이므로 이 석기의 날은 마치 안팎날찌개처럼 보인다. 날길이(90mm) /전체 둘레길이(300mm)에 대한 비율은 0.30이다. 날각도는 85-90° 사이에 든다. 격지의 때림면은 자연면이며 때린 점이 뚜렷하고 격지각은 약 125°이다.

11) 찌개(92×68×53mm, 386g, 그림 49, 사진 43, 2-3문화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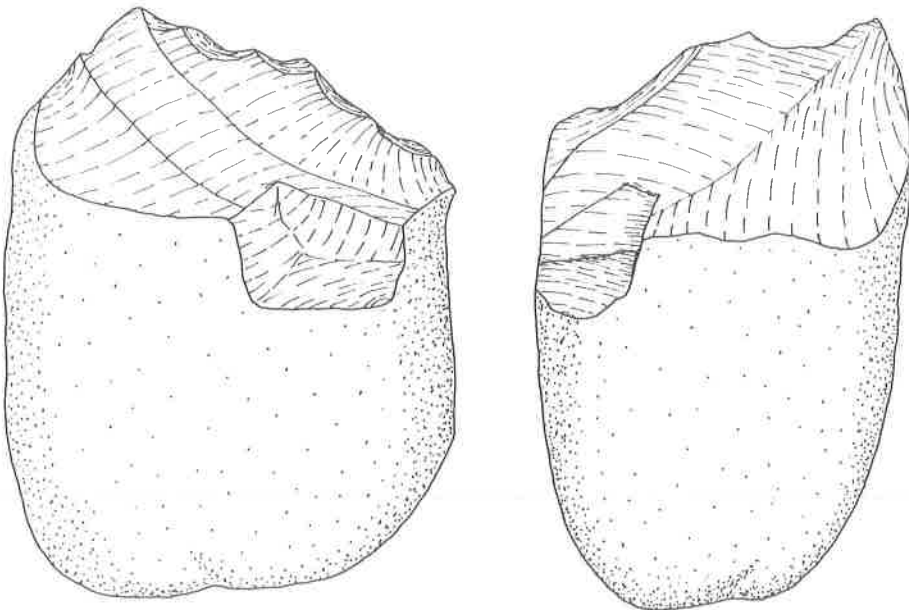
암질은 개차돌이다. 크고 두터운 자갈돌 격지를 이용하여 왼쪽과 끝쪽 가장자리에 엇갈림떼기를 베풀어 세로날과 가로날을 만든 안팎날찌개이다. 세로날에는 네번 그리고 가로날에는 세번에 걸친 떼기로 마른날을 마련하였는데, 세로날에 두터운 잔손질을 베풀었다. 날길이(세로날 90mm, 가로날 60mm) /전체 둘레길이(280mm)에 대한 비율은 0.54이다. 날각도는 세로날이 70-77°, 가로날이 70-88° 사이에 든다. 이 격지의 때림면은 자연면이며, 때린점이 조금 튀어나왔고, 격지각은 약 123°이다.

12) 찌개(117×88×65mm, 1015g, 그림 50, 사진 44, 2-3문화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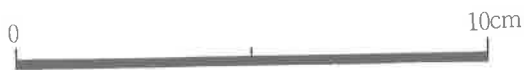
암질은 차돌이다. 바닥면과 등면이 판판한 돌감을 이용하여 양쪽 옆부분과 끝쪽 부분을 떼어 만든 찌개이다. 왼쪽 가장자리에는 세번, 끝쪽에는 두번,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두번에 걸친 떼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이 날을 두텁게 잔손질하여 다듬었다. 왼쪽 가장자리 날에는 떼면쪽에서 바닥면 방향으로 잔손질한 모습이 나타난다. 날길이(왼쪽날 100mm, 가로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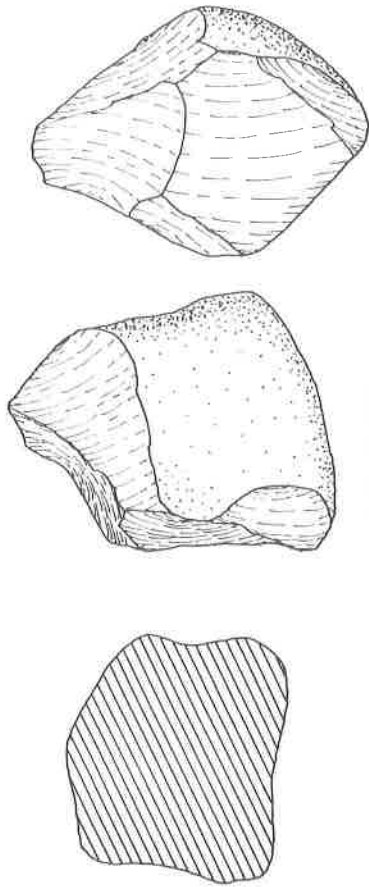


〈그림 45〉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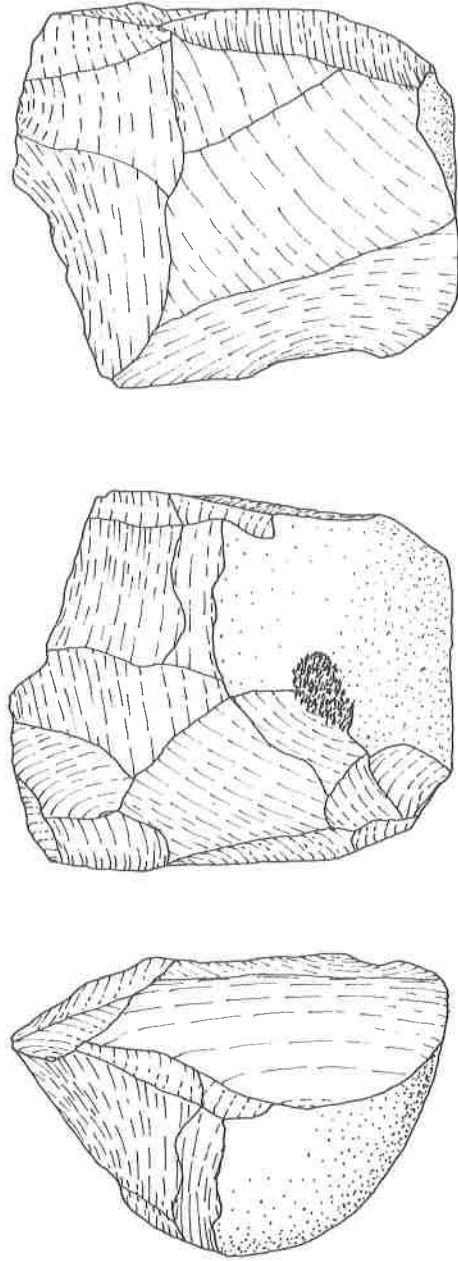


〈그림 46〉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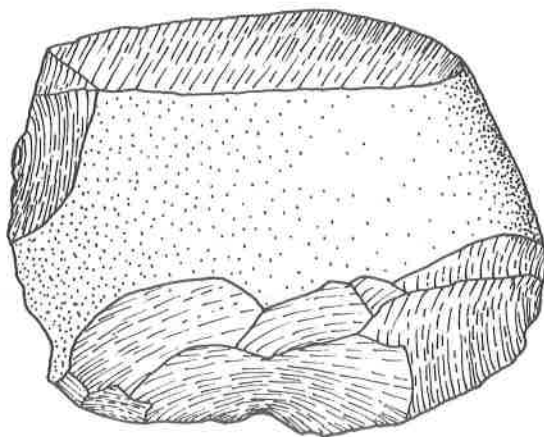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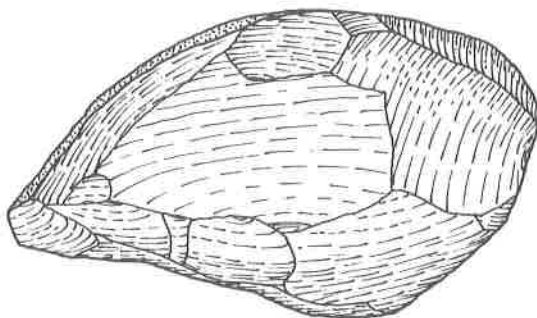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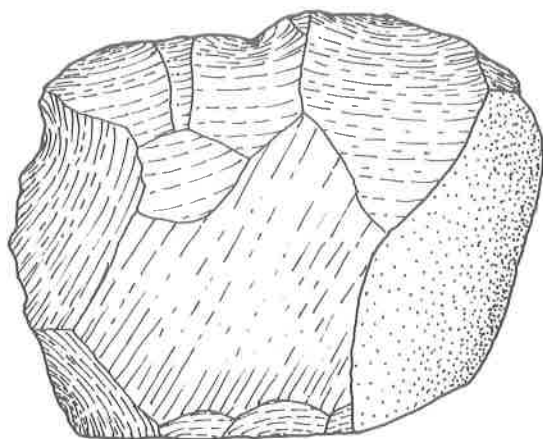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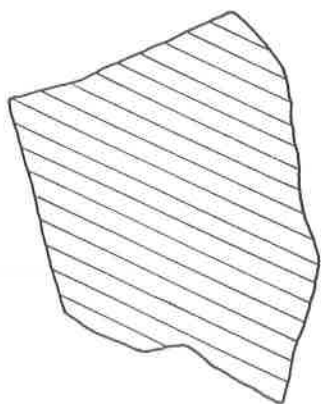
〈그림 47〉 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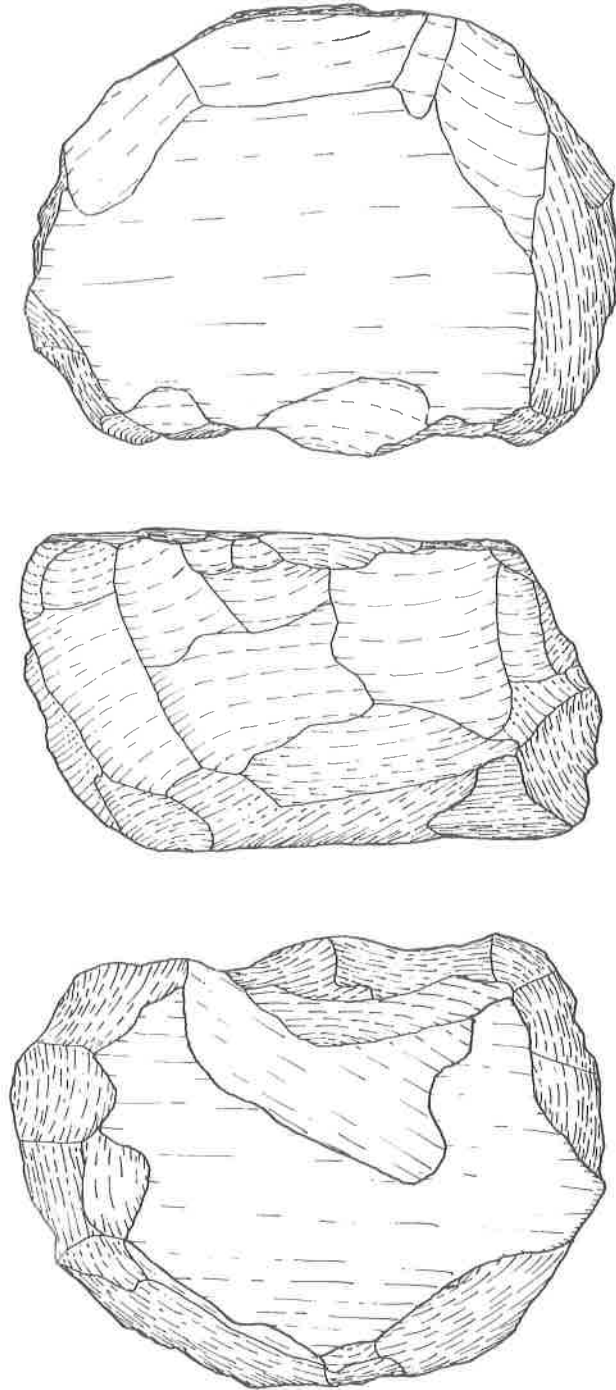


〈그림 48〉 짜개



〈그림 49〉 찌개





〈그림 50〉 짚개

60mm, 오른쪽날 85mm) /전체 둘레길이(320mm)에 대한 비율은 0.77이다. 날각도는 왼쪽 날이 약 100°, 가로날이 100-105° 그리고 오른쪽날이 85-95°이다. 등면 끝부분에 다른 물체와 부딪칠 때 생긴 으스러진 자국이 있다.

13) 찌개(119×108×87mm, 1605g, 그림 51, 사진 45,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바닥면과 등면은 자연면으로 되어 있다. 세번 또는 네번에 걸친 큰 폐기로 마른날을 마련하였고, 마른날에 두터운 잔손질을 베풀어 조금 불룩한 찌개의 날을 다듬었다. 날길이(115mm) /전체 둘레길이(355mm)에 대한 비율은 0.32이다. 날각도는 95-105° 사이에 든다.

14) 찌개(88×84×77mm, 920g, 그림 52, 사진 46,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세로날에는 바닥면에서 등쪽 방향으로 세번, 가로날에는 등면에서 바닥 쪽 방향으로 두번의 폐기를 베풀어 마른날을 마련하여 서로 반대되는 면에 날을 세웠다. 세로 날은 두터운 잔손질을 하여 다듬었다. 세로날길이(80mm) /전체 둘레길이(300mm)에 대한 비율은 0.27이고, 날각도는 90-110° 이다. 그리고 가로날길이(65mm) /전체 둘레길이(290mm)에 대한 비율은 0.22이며, 날각도는 90-105° 이다. 자연면의 모서리부분에 으스러진 자국이 나타난다.

15) 여러면석기(73×67×63mm, 350.5g, 그림 53, 사진 47)

암질은 개차돌이다. 병산리에서 나온 여러면석기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다. 자연면은 남아 있지 않다. 으스러진 자국이 잘 나타난다.

16) 여러면석기(107×90×73mm, 975g, 그림 54, 사진 48,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등면, 아랫면, 옆쪽 한 면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다. 펜면과 자연면이 만나는 모서리 또는 펜면과 펜면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에 으스러진 자국이 잘 나타난다.

17) 여러면석기(115×106×97mm, 1675g, 그림 55, 사진 49,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배면과 등면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다. 석기의 모양은 거의 둥근꼴이며, 전체면 곳곳에 걸쳐 으스러진 자국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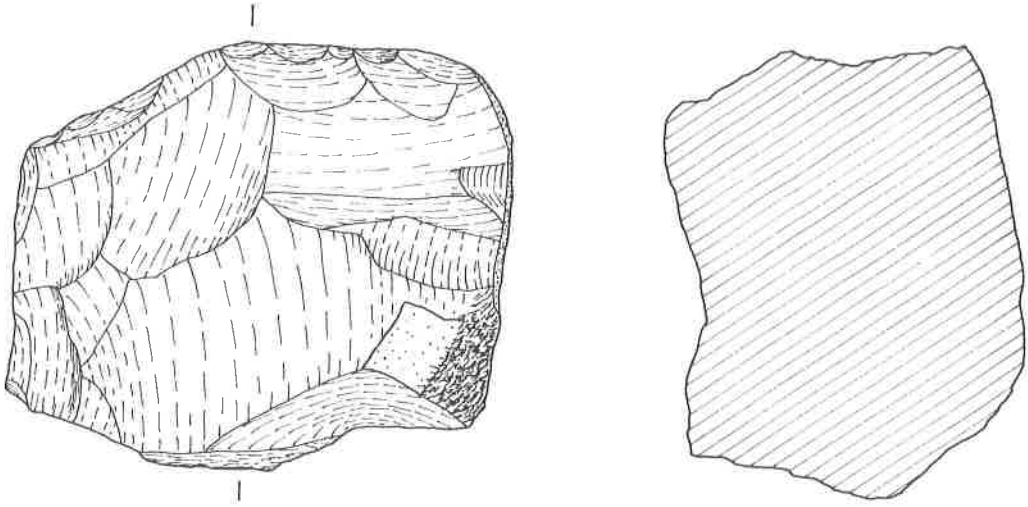
18) 여러면석기(101×90×86mm, 1085g, 그림 56, 사진 50,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등면, 옆쪽 한 면, 위쪽면에 자연면이 남아 있는데, 등면 윗부분에 때린 자국이 잘 나타난다. 펜면과 자연면이 만나는 모서리 능선에서도 으스러진 자국이 많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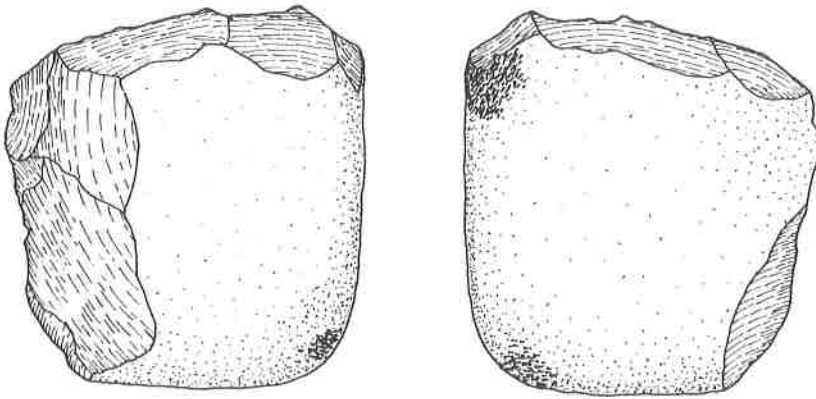
19) 여러면석기(125×102×82mm, 1330g, 그림 57, 사진 51,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옆쪽 한 면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다. 여러 부분에 으스러진 자국이 나타난다.

20) 여러면석기(121×112×97mm, 1685g, 그림 58, 사진 52, 2-3문화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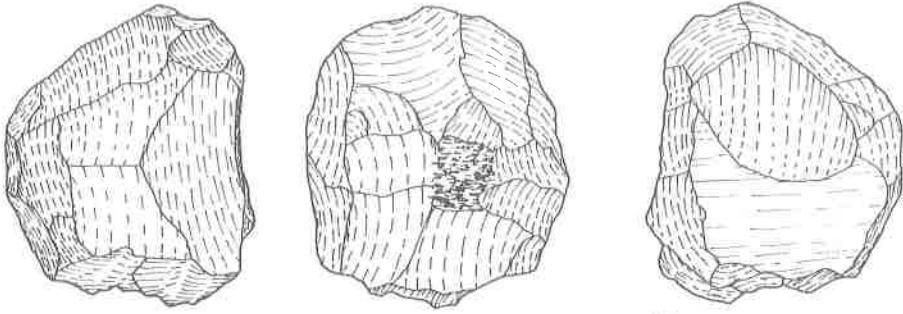


<그림 51>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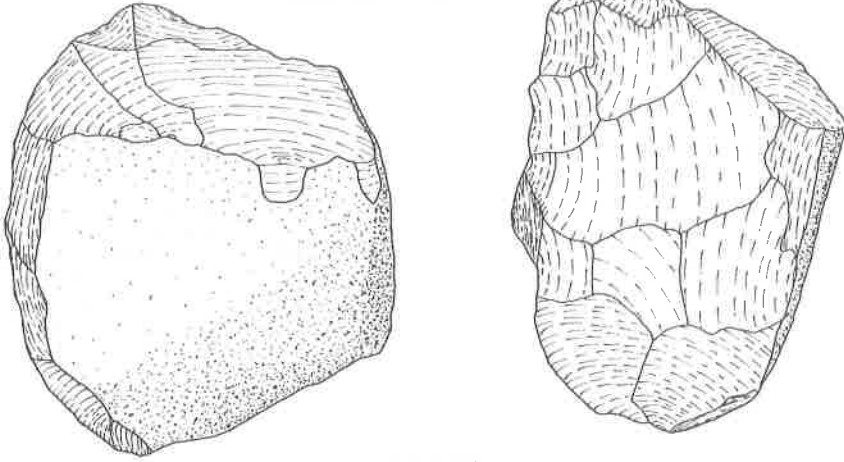


<그림 52>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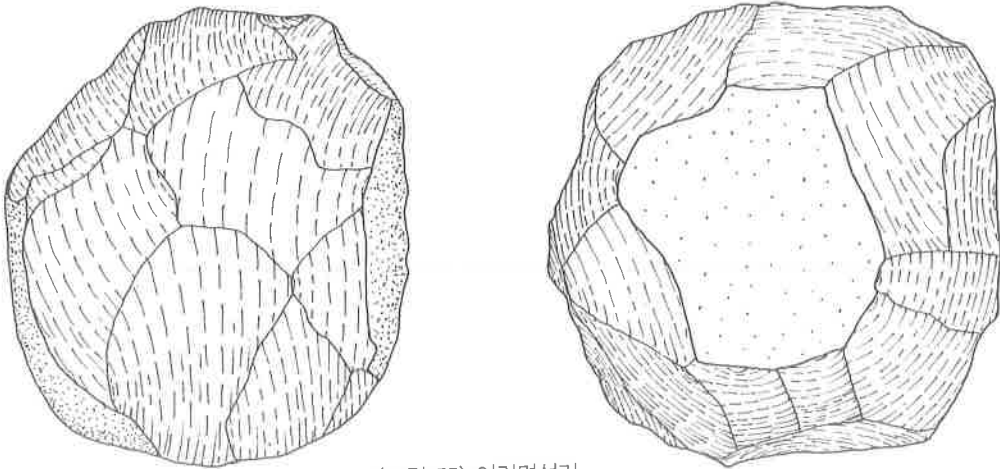




<그림 53> 여러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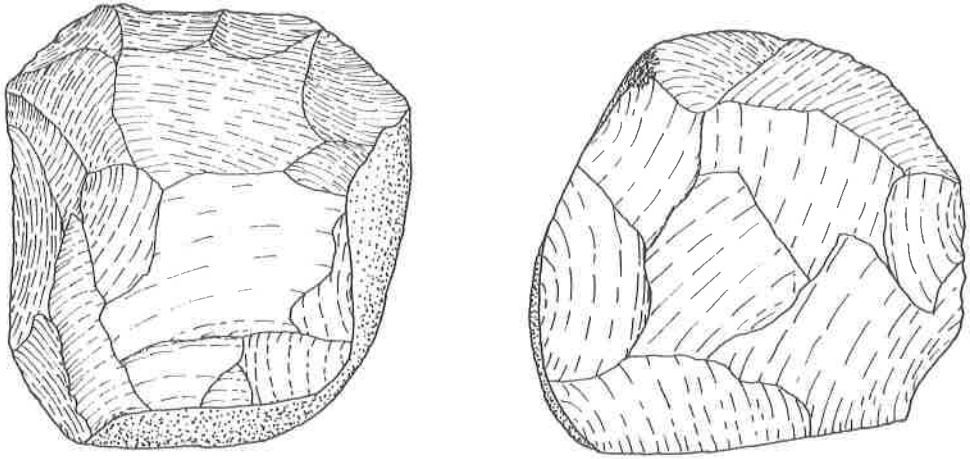


<그림 54> 여러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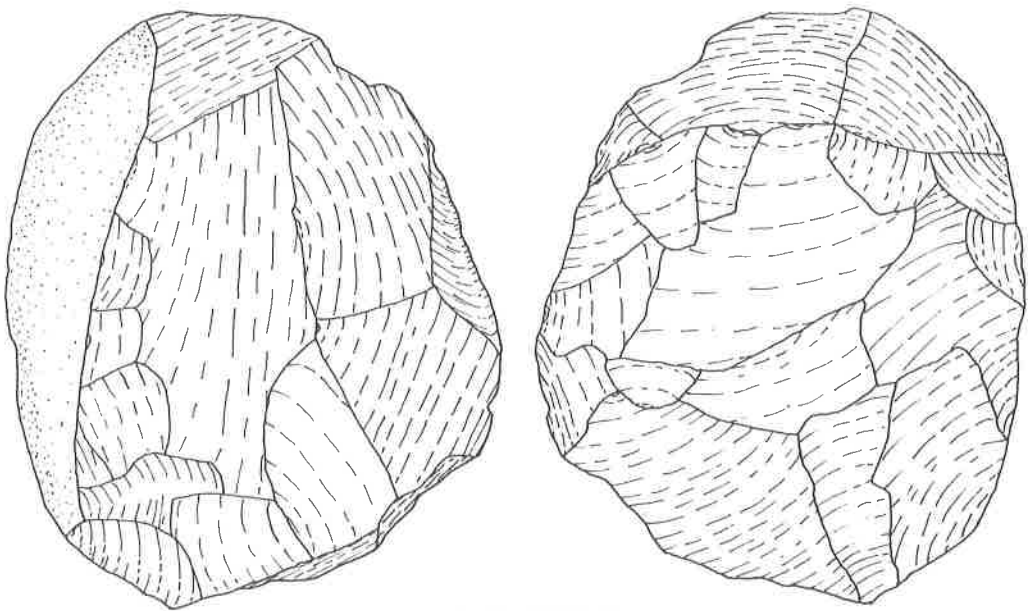


<그림 55> 여러면석기





<그림 56> 여러면석기



<그림 57> 여러면석기



암질은 개차돌이다. 바닥면과 아래쪽면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다. 여러 부분에 걸쳐 으스스리진 자국이 나타난다.

21) 여러면석기(108×105×78mm, 1080g, 그림 59, 사진 53)

암질은 개차돌이다. 바닥면, 옆쪽 한 면, 위쪽면에만 자연면이 남아 있다. 바닥의 자연면과 함께 여러 부분에 걸쳐 으스스리진 자국이 나타난다.

22) 밀개(62×58×36mm, 154g, 그림 60, 사진 54,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차돌이다. 제법 두터운 조각돌(debris)의 한쪽 끝부분에 두텁고 가파른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밀개이다. 날길이는 60mm, 날각도는 85-110° 사이에 든다.

23) 밀개(88×54×34mm, 131g, 그림 61, 사진 55,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격지의 때림면쪽에 엇갈림잔손질을 베풀어 밀개의 날을 다듬었다. 날길이는 37mm, 날각도는 75-85°이다.

24) 밀개+긱개(62×50×30mm, 102.5g, 그림 62, 사진 56, 2-3문화층 추정)

암질은 개차돌이다. 엇갈림잔손질로 밀개와 긱개의 날을 다듬었다. 밀개의 날은 둥근 모양이며, 날길이는 30mm, 날각도는 74-90°이다. 긱개의 날은 곧은 모양이며, 날길이는 34mm, 날각도는 약 75°이다. 이 격지의 때림면은 자연으로 이루어졌고, 때린점과 방사선이 뚜렷하며, 흑부분은 거의 판판하게 나타난다. 격지각은 약 110°이다.

25) 밀개+긱개(91×72×36mm, 251g, 그림 63, 사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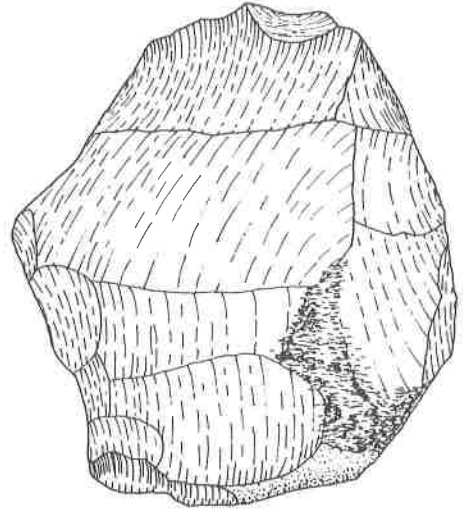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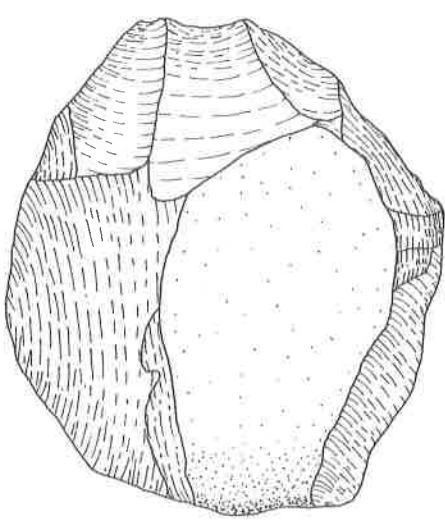
암질은 차돌이다. 위쪽과 옆쪽을 등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잔손질하여 밀개와 긱개의 날을 세웠다. 밀개의 날길이는 45mm, 날각도는 약 87°이다. 거의 곧은날에 가까운 긱개의 날길이는 45mm, 날각도는 약 76°이다. 격지의 때림면은 한 번 뎀면으로 마련되었는데 때림면이 매우 넓직하게 나타난다. 때린점이 뚜렷하며, 격지각은 약 128°이다.

26) 긱개(51×42×22mm, 47.5g, 그림 64, 사진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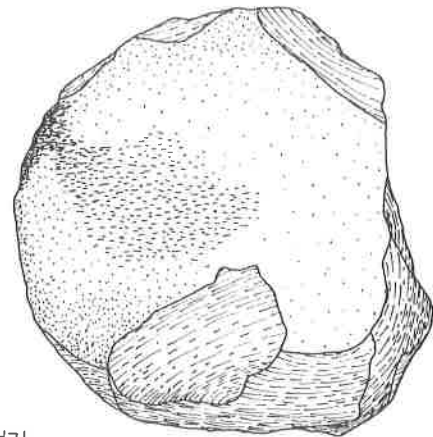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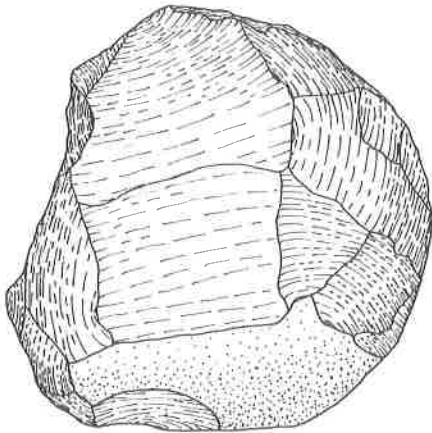
암질은 차돌이다. 격지의 위쪽 부분에 등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잔손질을 베풀어 곧은날 긱개를 만들었다. 날길이는 18mm, 날각도는 70-75°이다. 격지의 때림면은 세번 떼어내 마련하였는데, 격지각은 약 87°이다.

27) 긱개+톱니날(89×70×34mm, 183g, 그림 65, 사진 59)

암질은 개차돌이다. 격지의 위쪽 끝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두텁게 잔손질하여 날을 만들었다. 가로날의 왼쪽은 한번, 그 오른쪽은 여러번 잔손질하여 조금 오목한 모양의 날을 만들었다. 세로날은 긱개로 분류된다. 톱니날의 날길이는 40mm, 날각도는 60-80°이다. 긱개의 날은 조금 오목하고, 날길이는 52mm, 날각도는 75-80°이다. 격지의 때림면 오른쪽 가장자리 아랫부분이 자연면으로 남아 있다. 때린점이 크고 뚜렷하다. 흑부분이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격지각은 90°를 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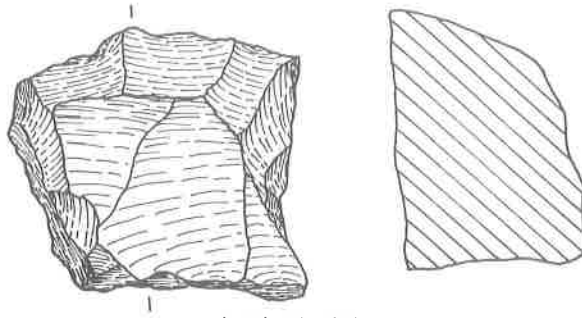


<그림 58> 여러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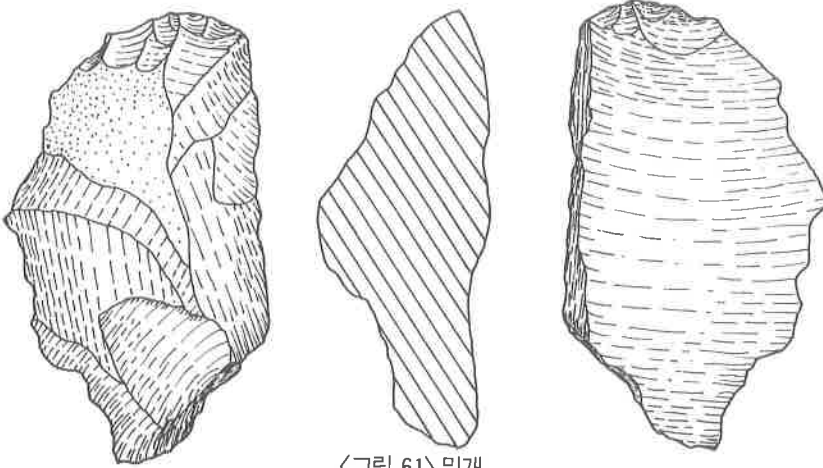


<그림 59> 여러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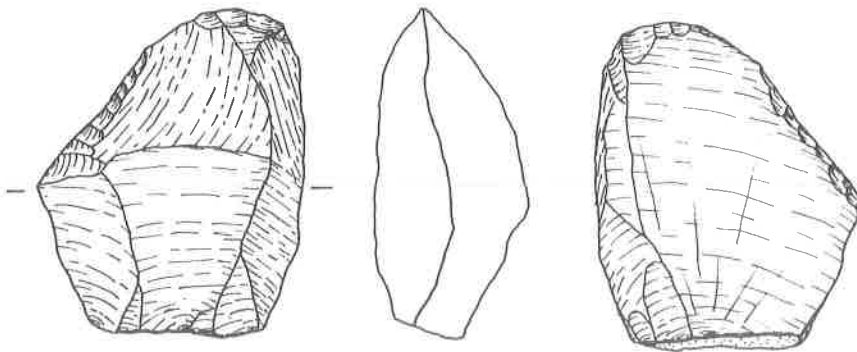




<그림 60> 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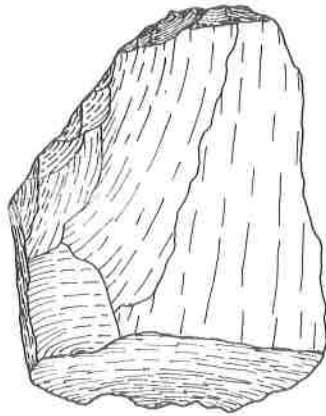


<그림 61> 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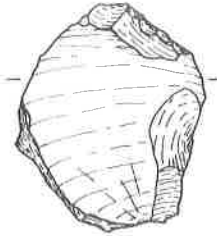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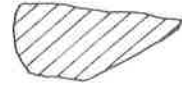


<그림 62> 밀개+긱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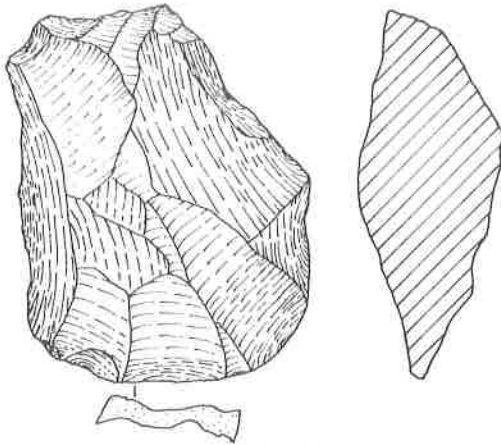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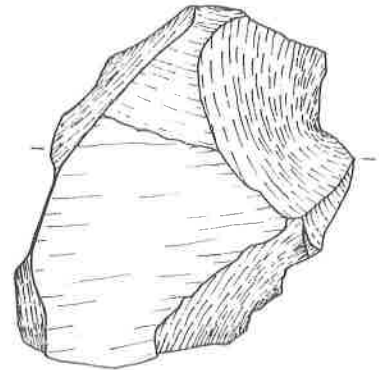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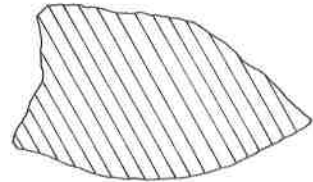
〈그림 63〉 밀개+긱개



〈그림 64〉 긱개



〈그림 65〉 긱개+톱니날



〈그림 67〉 흙날



〈그림 66〉 톱니날



28) 톱니날(56×44×23mm, 60.5g, 그림 66, 사진 60)

암질은 차돌이다. 조각돌(debris)의 위쪽과 오른쪽 가장자리가 만나는 부분에 연이은 세 개의 홈날로 만든 톱니날석기이다. 날각도는 65-85°이며, 각 홈날의 전체 날길이는 32mm이다.

29) 홈날(93×63×41mm, 277.5g, 그림 67, 사진 61)

암질은 개차돌이다. 두터운 격지에 이른바 클락토니아식 잔손질(clactonian retouch)을 베풀어 만든 홈날이다. 홈날의 날각도는 약 78°이며, 날길이는 28mm이다. 격지의 때림면은 자연면과 한번 뎀 면으로 되어 있고, 때림점이 뚜렷한데, 흑부분은 판판하다. 격지각은 약 98°이다.

나. 철기시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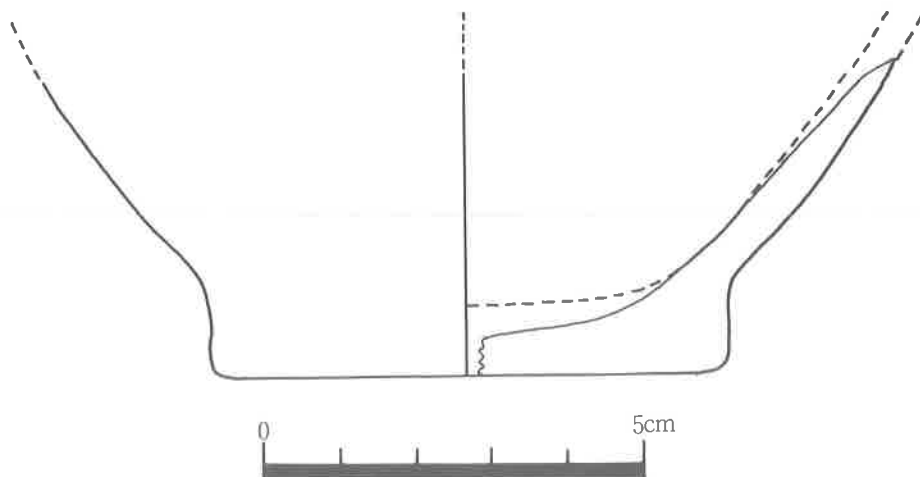
(1) 병산 4리

ㄱ.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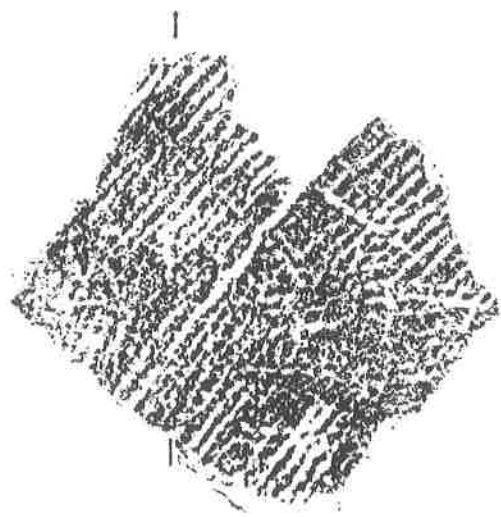
병산리 발굴지역에서는 민토기 밑부분(1점)과 연결의 두드림무늬[打捺文]토기 조각(2점)이 곁에서 채집되었다.

1) 밑부분(그림 68, 사진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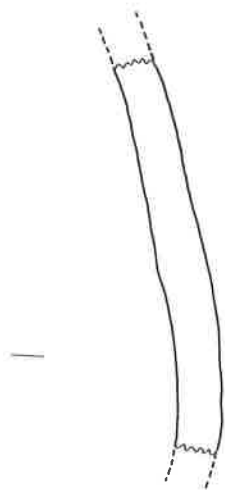
밝은 주황색을 띤다. 바탕흙에는 1mm 안팎의 고운 모래와 약간의 돌비늘이 들어 있다.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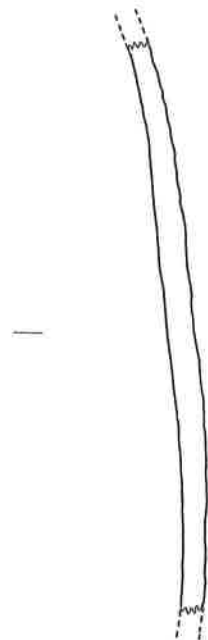
〈그림 68〉 토기 밑부분(병산리)



<탑본 1>



<탑본 2>



두드림무늬 토기(병산리)

작한 바닥에 1.2cm 정도의 굽이 있는 형태로 밑지름은 6.5cm, 그릇두께는 7-8mm이다.

2) 두드림무늬 토기 조각(답본 1, 사진 63)

겉면은 회갈색, 안쪽면은 진한 회색을 띤다.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에 1-3mm 정도의 모래와 돌비늘이 섞여 있고, 끈무늬를 베꼈다. 두께 8mm.

3) 두드림무늬 토기 조각(답본 2, 사진 64)

두께가 3.8mm 정도인 매우 얇고 무른 토기이다. 안팎이 모두 밝은 황갈색을 띠고 속심은 검은색을 띤다. slip을 입혔다. 매우 정선된 바탕흙에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을 섞어 사용하였고, 겉면에는 끈무늬를 베꼈다.

ㄴ. 석기

돌도끼(2점), 끌(2점), 그물추(1점), 뿔석기(1점) 등 모두 6점에 이르는 석기를 찾았다. 구석기시대의 유물과는 달리 차돌이나 개차돌을 이용하여 만든 석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1) 돌도끼(147×92×53mm, 860g, 그림 69, 사진 65)

암질은 화강암 종류이다. 자갈돌의 겉면을 떼내 만든 석기인데, 간 자국은 보이지 않으며, 윗면과 바닥면에 각각 자연면이 일부 남아 있다. 양쪽 가장자리 가운데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었다. 날길이는 100mm, 두 면이 이루는 날각도는 약 80°이다.

2) 돌도끼(140×56×45mm, 505g, 그림 70, 사진 66)

암질은 편마암이다. 아래쪽 부분이 바닥면과 빗면을 이루며 자연으로 깨진 길쭉한 자갈돌을 그대로 썼던 석기이다. 날부분이 으스러진 점으로 보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날의 빗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이 석기를 길이축 방향으로 사용하는 동안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쓴자국이 가는 선으로 나타난다. 날길이는 35mm, 날각도는 42°이다.

3) 끌(55×42×11mm, 45.5g, 그림 71, 사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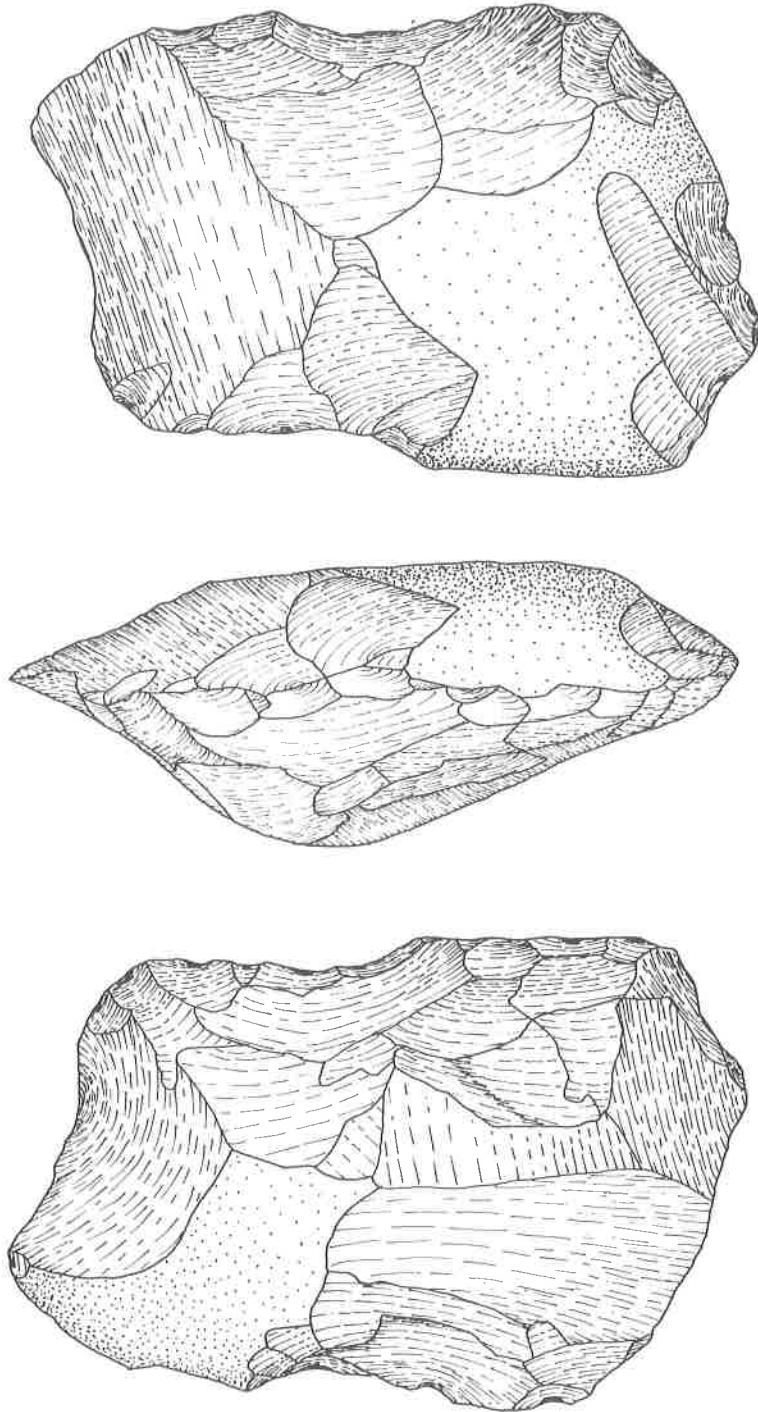
암질은 편마암이다. 윗면과 아랫면의 일부를 갈아서 만들었다. 날길이는 42mm, 날각도는 약 55°이다.

4) 그물추(39×29×8mm, 15.6g, 그림 72, 사진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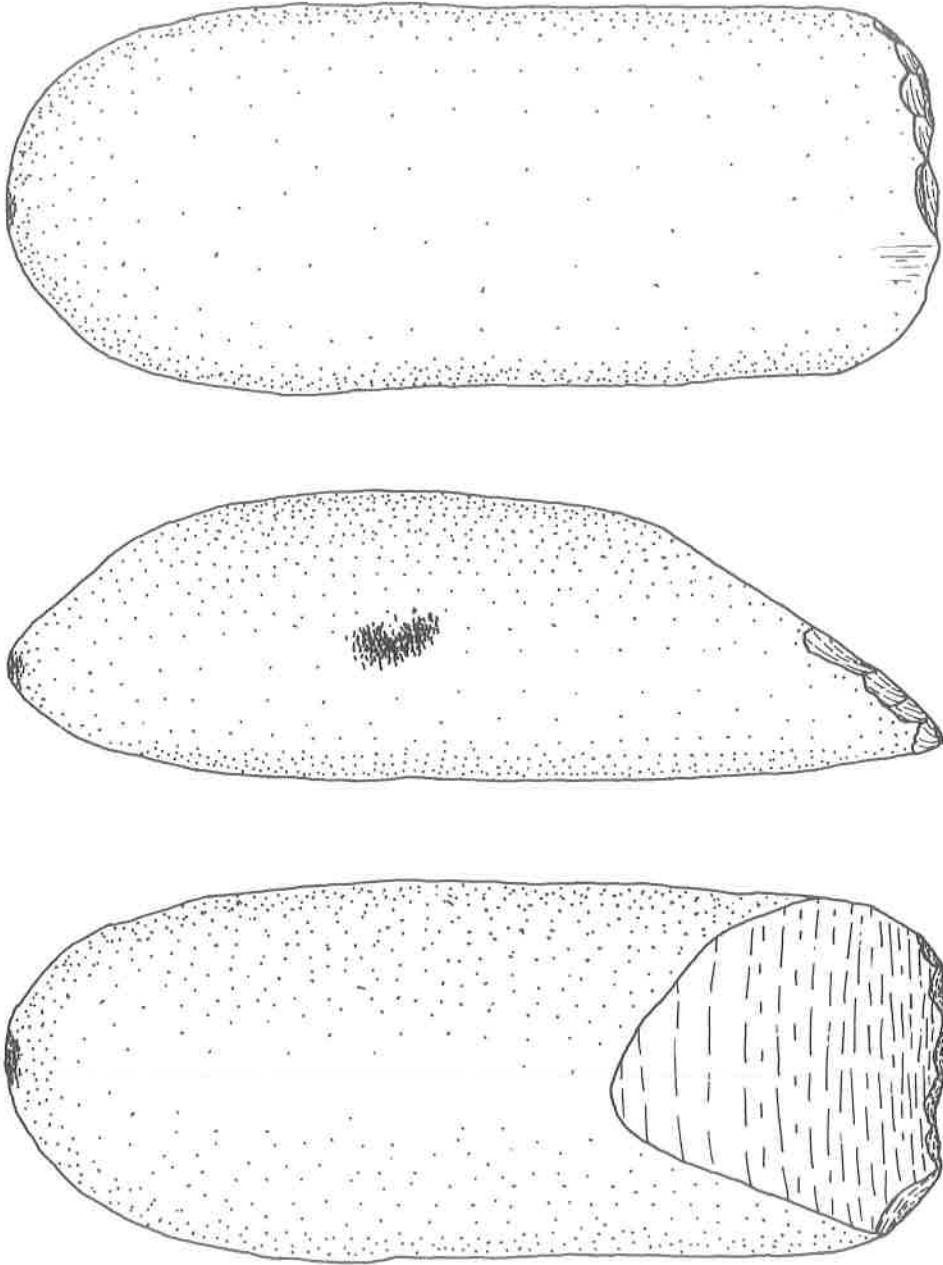
타원형으로 생긴 판판한 모양의 작은 자갈돌로 만든 것으로 위쪽과 아래쪽 끝부분에 조금 오목한 홈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 이런 모양의 홈은 <그림 74>과 같이 모루망치떼기를 할 경우에 모루와 망치에 닿은 부분이 각각 동시에 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물추(41×31×11mm, 19.3g, 그림 73, 사진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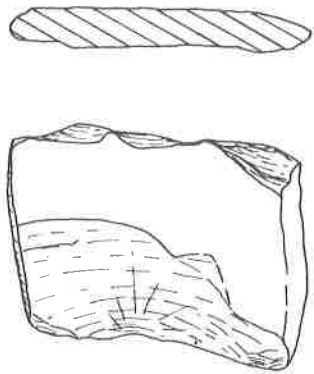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생김새와 크기와 거의 비슷하며, 만든 수법도 같은 방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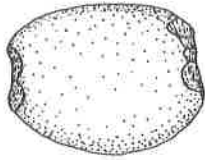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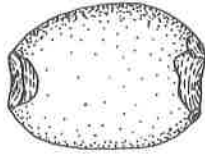
〈그림 69〉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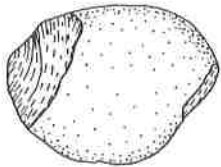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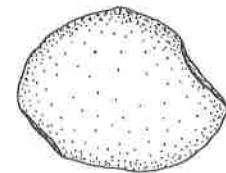
〈그림 70〉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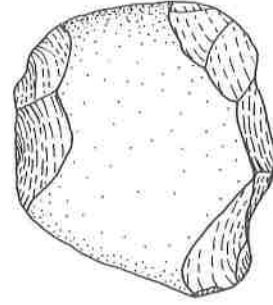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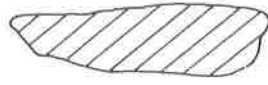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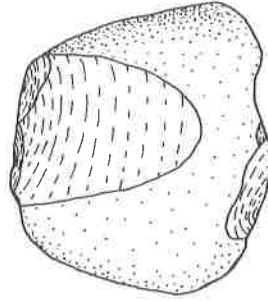
<그림 71> 끌



<그림 72> 그물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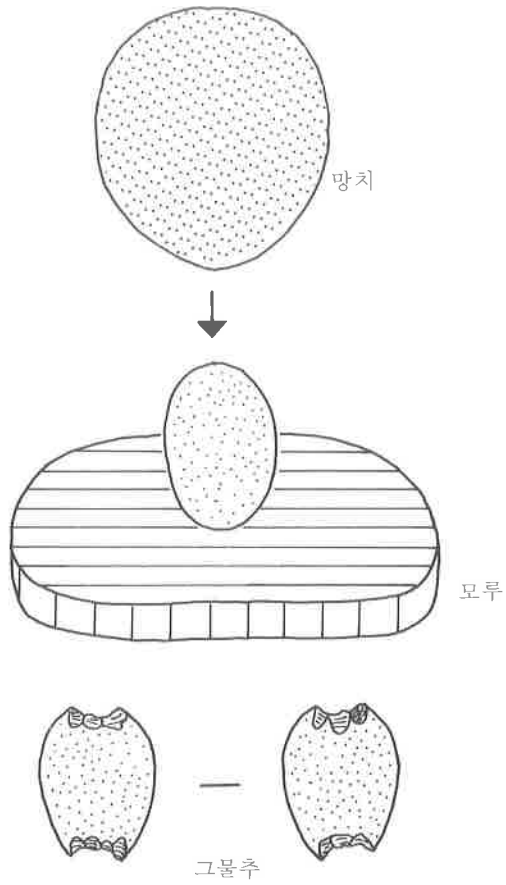


<그림 73> 그물추



<그림 75> 편석기





<그림 74> 그물추 만드는 법

6) 펜석기(56×54×17mm, 78g, 그림 75, 사진 69)

암질은 염기성암 종류이다. 판판한 모양의 자갈돌 한쪽 부분을 사용한 석기로 추정된다. 날 쪽 부분에는 제법 넓은 범위의 뿔자국이 하나 있는데, 이 면은 떼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날쪽 부분으로 다른 물체에 타격을 가하였을 때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는 <그림 16>에서 볼 수 있다. 날에는 으스러진 자국이 많이 나타난다. 날길이는 33mm이다.

(2) 양덕리

양덕리 유적은 병산리 발굴장에서 남한강 강줄기를 따라 상류쪽으로 7km쯤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1972년 팔당댐 수몰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덕리의 고인돌 1기(북위 37도 26분 40초, 동경 127도 30분 30초)가 발굴된 바 있다(손보기·이용조 1974).

올해에 이루어진 이번의 조사작업에서는 시루바닥 조각을 포함하는 많은 양의 민토기 조각과 함께 두드림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회청색 경질토기 등과 간석기 1점을 곁흙 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찾은 두드림무늬 토기는 크게 문살무늬와 끈무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빛깔로 볼 때, 적갈색 계통과 회색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적갈색 계통보다는 회색 계통에 굳기가 단단한 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ㄱ. 민토기

① 입술부분

1) 입술부분(그림 76, 사진 70-1)

겉면은 갈색을 띠고 속심은 어두운 회색을 띤다. 1-2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보인다. 안팎면으로 slip을 입혔으며,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흔적이 보인다. 입술은 끝이 둥그스름하고 바라진 형태이다. 두께는 9.5mm.

2) 입술부분(그림 77, 사진 70-4)

안팎면이 모두 밝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이다. 바탕흙에 2-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들어 있으며 빗질정면을 하였다. 입술은 끝이 둥글고 약간 바라진 형태인데 입술끝이 도톰하게 아래로 밀려 마치 겹입술처럼 보인다. 입술끝에서 약 1.3cm 아래에는 단이 한줄 져 있다. 두께 10mm.

3) 입술부분(그림 78, 사진 70-5)

붉은빛 도는 갈색의 입술조각이다. 2-3mm되는 모래와 돌비늘이 보이며 겉면에 slip을 입혔다. 입술은 끝이 둥글고 곧선 형태이다. 두께 8.0mm.

4) 입술부분(그림 79, 사진 70-2)

밝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이다. 바탕흙에 1-2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민토기 조각에 비해 단단한 느낌을 준다. 입술은 끝이 편평한 모양인데 입술끝에서 2cm 내려온 부분부터 밖으로 약간 부풀기 시작하는 휨새를 가진다. 두께 7.5mm.

5) 입술부분(그림 80, 사진 70-3)

밝은 갈색을 띤다. 고운 바탕흙에 1-2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섞여 있다. 입술모양은 곧선 형태로 끝이 편평하다. 두께 6.0mm.

6) 입술부분(그림 81, 사진 71-3)

겉면과 안쪽면은 회백색, 속심은 회색을 띤다. 1-2mm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고, 안팎면에는 빗질정면 흔적이 보인다. 특히 안쪽면에는 정면과정에서 모래알갱이들이 밀린 흔적도 보인다. 입술은 끝이 둥글고 끝부분에서 바라진 모양이다. 두께 9.5mm.

7) 입술부분(그림 82, 사진 71-4)

겉면은 밝은 주황색을 안쪽면은 회색과 주황색을 함께 띤다. 1-2mm의 고운 모래알갱이들이 관찰된다. 안팎면에 slip을 입히고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입술은 끝이 둥글고 곧은 휨새를 지녔다. 두께 7.3mm.

8) 입술부분(그림 83, 사진 71-2)

붉은색을 띠며, 1mm 정도의 고운 모래알갱이와 운모가 섞여 있다. slip을 입혀 빗질정면하였는데 표면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 입술은 곧선 형태로 끝이 뾰족하다. 두께 10.5mm.

9) 입술부분(그림 84, 사진 71-1)

안팎면은 회갈색이고 속심은 어두운 회색이다. 바탕흙에는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고 제법 단단한 편이다. 면을 곱게 빗질정면하였고, 입술은 끝이 바라지고 둥근 모양이다. 두께 8.0mm.

10) 입술부분(그림 85, 사진 71-5)

회갈색을 띤다. 바탕흙에 1-4mm 정도의 비교적 큰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안팎면을 모두 빗질정면하였다. 입술휨새는 바라지고 끝이 둥근 모양인데 몸체부분에 비해 입술끝으로 가면서 두께가 뚜렷하게 가늘어진다. 두께 9.0mm.

11) 입술부분(그림 86, 사진 72-3)

밝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으로 산화가 잘 되어 속심까지 붉은색을 띤다. 1-3mm의 비교적 큰 모래와 돌비늘이 보인다. 입술은 곧고 끝이 편평한 형태이다. 두께 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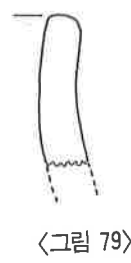
<그림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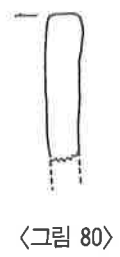
<그림 77>



<그림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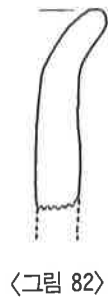
<그림 79>



<그림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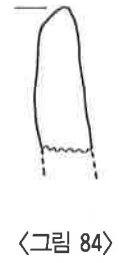
<그림 81>



<그림 82>



<그림 83>



<그림 84>



<그림 85>



<그림 86>



<그림 87>



<그림 88>



입술부분(양턱리)

12) 입술부분(그림 87, 사진 72-2)

밝은 갈색으로 1-3mm의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이 보인다. 입술모양은 곧고 끝이 편평한 형태이다. 두께 8.0mm.

13) 입술부분(그림 88, 사진 72-1)

밝은 주황빛을 띤다. 바탕흙에는 모래질이 많은 편으로 1-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섞여 있다. 입술은 곧선모양에 끝이 둥근 형태이다. 두께 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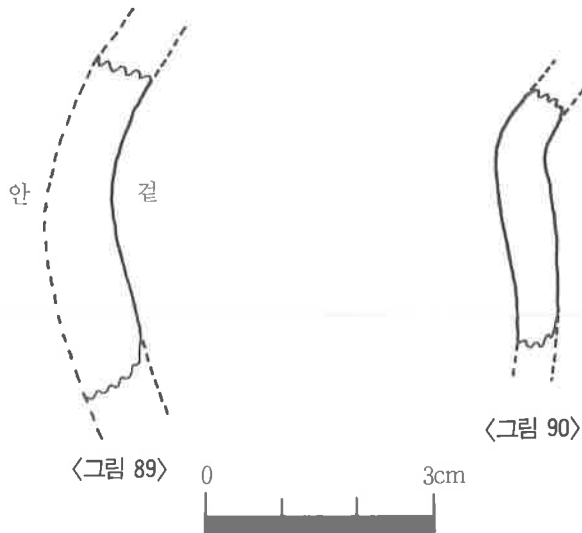
② 목부분

1) 목부분(그림 89, 사진 72-4)

밝은 주황색을 띤다. 1-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으며, 바라진 휨새를 지녔다. 겉면에 slip을 입히고 빗질정면을 하였다. 두께 10mm.

2) 목부분(그림 90, 사진 72-5)

갈색을 띤다. 2-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보이며, slip을 입혀 겉면이 매끈하다. 입술의 휨새는 바라진 형태이고 목부분에는 5mm 폭으로 그은 흔적이 있다. 두께 5.0mm.



목부분 (양덕리)

③ 몸체부분

1) 몸체부분(사진 73-2)

밝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이다. 바탕흙에는 2-3mm의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이 조금 섞여 있다. 안팎면에는 빗질정면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11.0mm.

2) 몸체부분(사진 73-1)

밝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이다. 바탕흙에 2-4mm의 비교적 큰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폭 1cm정도 되는 도구로 여러 방향에서 빗질정면을 하였는데 특히 안쪽면에 그러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두께 9.0-10.1 mm.

3) 몸체부분(사진 73-3)

안팎면은 주황빛 도는 갈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1-2mm되는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보인다. slip을 입혀 표면이 매끈하다. 두께 11.0mm.

4) 몸체부분(사진 74-3)

겉면은 어두운 갈색이고 안쪽면과 속심은 갈색이다. 바탕흙에는 1-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겉면에 slip을 입히고, 그 위를 손으로 문질러 정면하였다. 두께 12.0mm.

5) 몸체부분(사진 74-1)

밝은 갈색을 띤다. 2-3mm의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겉면은 가로방향으로 굽으면서 정면하였고 안쪽면은 빗금처럼 쓸어내리면서 정면하였다. 두께 10mm.

6) 몸체부분(사진 74-2)

겉면은 회색, 안쪽면은 미색에 가까운 밝은 갈색이다. 바탕흙에는 1-4mm에 이르는 비교적 굵은 모래알갱이와 돌비늘 및 토기 가루가 들어 있다. 겉면은 매끈한 편이며 안쪽면에는 빗질 정면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7.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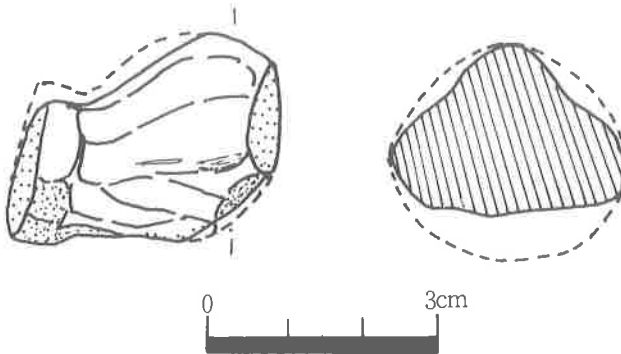
7) 몸체부분(사진 74-4)

약간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바탕흙에는 1-4mm의 꽤 굵은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을 넣었다. 겉면은 문질러 정면하였다. 두께 11.0mm.

④ 손잡이부분

1) 손잡이부분(그림 91)

회갈색을 띠는 손잡이 조각이다. 바탕흙에는 2-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들어 있다. 손잡이는 끝이 도톰하고 납작한 모양이다. 손잡이 길이 3.5cm, 손잡이 두께 3.0cm



〈그림 91〉 토기 손잡이(양덕리)

⑤ 밑부분

1) 밑부분(그림 92, 사진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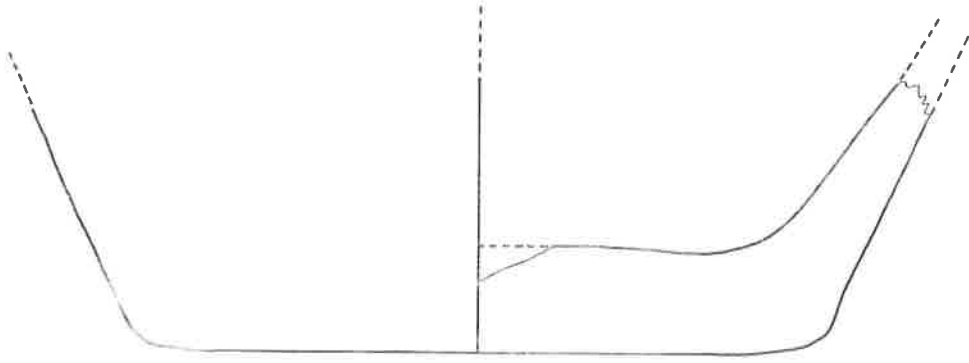
대체로 어두운 갈색을 띠며 부분에 따라 검은색을 띠기도 한다. 바탕흙에는 2-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섞여 있다. 겉면은 대체로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밑부분에는 수직방향으로 굽은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밑모양은 대야밑으로 밑지름은 11.6cm이다. 그릇두께는 12.0mm.

2) 밑부분(그림 93, 사진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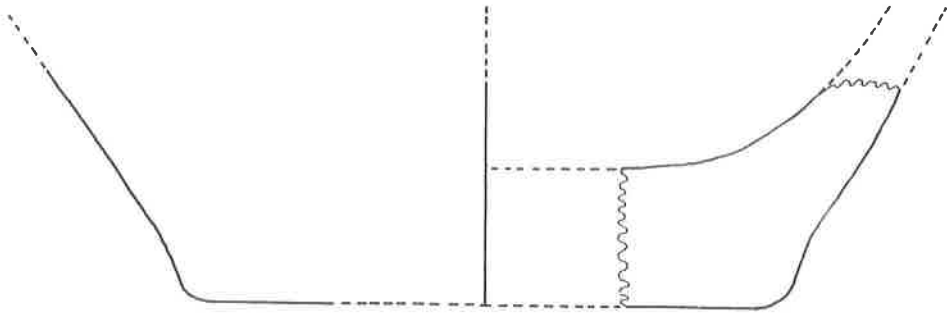
밝은 주황색이다. 2-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보인다. 밑모양은 1.5cm의 굽이 있고 그 위로 가면서 차츰 벌어지는 형태이다. slip을 입혀 빗질정면하였는데, 특히 굽주면에는 가로방향으로 빗질을 하였다. 그릇의 두께는 14.5mm.

3) 밑부분(그림 94, 사진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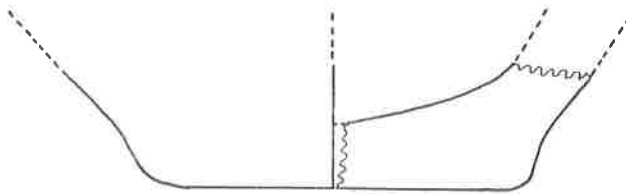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바탕흙에는 1-3mm의 굽은 모래와 돌비늘이 섞여 있다. 밑모양은 납작바닥에 얇은 굽이 있는 형태다. 겉면은 대체로 매끈한 편이다. 굽부분에 겉면을 굽은 흔적과 함께 모래가 위로 밀린 흔적이 있는데 이는 굽을 만들기 위해 바닥에서 위로 표면을 굽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밑지름 8.0cm, 굽높이 9.0mm.



<그림 92>



<그림 93>



<그림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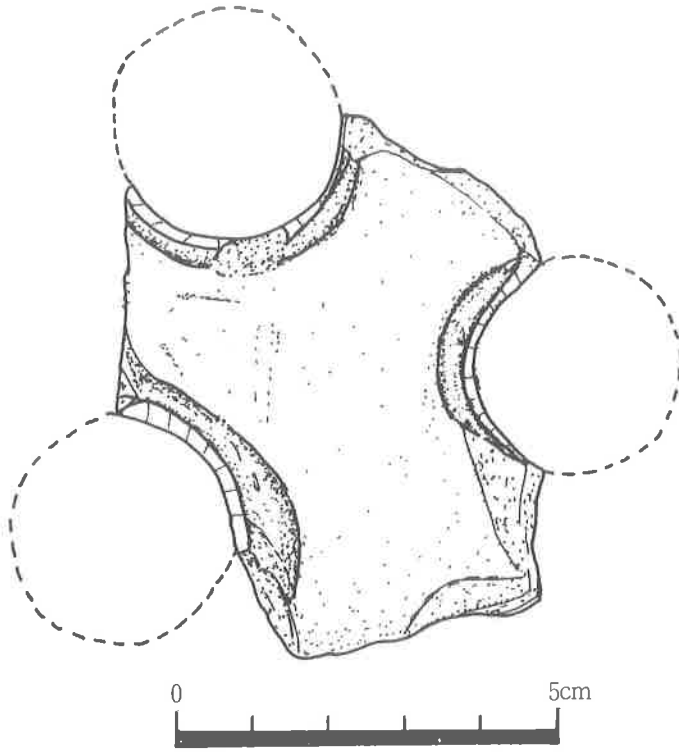


일부분(양덕리)

⑥ 시루바닥

1) 시루바닥(그림 95, 사진 78)

회갈색을 띠는 시루바닥으로 바닥면은 검은색에 가깝다. 바탕흙에는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고, 겉면에는 정면흔적이 보인다. 검은면을 바닥면으로 보았을 때 구멍은 밖에서 안으로 직각되게 뚫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께 9.0-10.3mm.



〈그림 95〉 시루바닥(양덕리)

ㄴ. 붉은간토기

① 몸체부분

1) 몸체부분(사진 79-1)

밝은 주황빛을 띠며, 청동기시대에 많이 나오는 형식이다. 정선된 고운 바탕흙에 0.5mm 이

하의 아주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들어 있다. 두께 4.5mm.

2) 몸체부분(사진 79-2)

겉면은 붉은색이고 안쪽면과 속심은 회색이다. 바탕흙은 그다지 곱게 정선된 편은 아니며 모래질이 많고 좀 단단한 편으로 1-2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두께 4.7mm.

ㄷ. 두드림무늬 토기

① 문살무늬[格子文]

1) 몸체부분(답본 3, 사진 80-1)

주황빛이 도는 갈색을 띤다. 바탕흙에는 1mm 정도의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고 그다지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 겉면에는 문살무늬가 베풀어졌고 안쪽면은 매끈하게 정면되어 있다. 두께 7.0mm.

2) 몸체부분(답본 4, 사진 80-2)

적갈색으로 바탕흙에는 1mm 정도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겉면에는 문살무늬가 겹쳐서 베풀어졌다.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으로 굳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9.0mm.

3) 몸체부분(답본 5, 사진 80-3)

밝은 갈색을 띤다. 1-2mm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바탕흙에 섞여 있고 굳기는 약한 편이다. 겉면에 문살무늬가 베풀어졌다. 두께 6.5mm.

4) 몸체부분(답본 6, 사진 81-1)

바탕흙은 정선된 것을 사용하여 1mm 정도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보일 뿐이다. slip을 입혔고 안쪽면에는 약 1cm 폭으로 회전대를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다. 겉면에 무늬를 베훈 뒤 정면하여 부분에 따라 무늬가 지워져 있다. 굳기는 단단한 편이다. 두께 7.0mm.

5) 몸체부분(답본 7, 사진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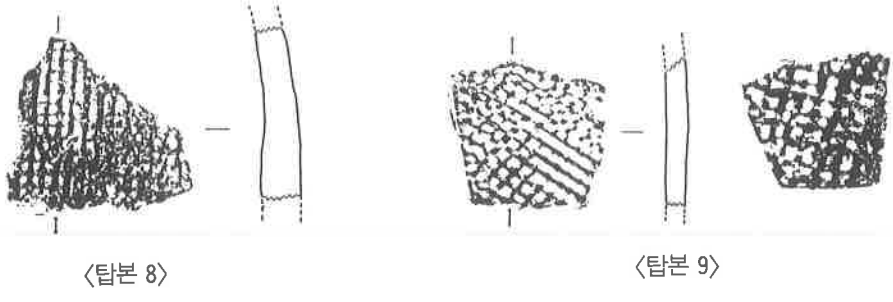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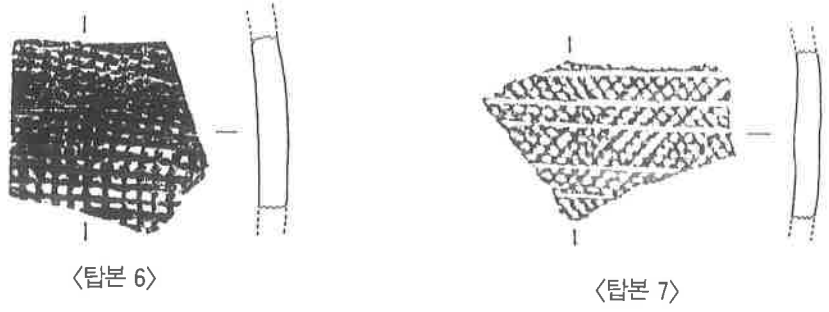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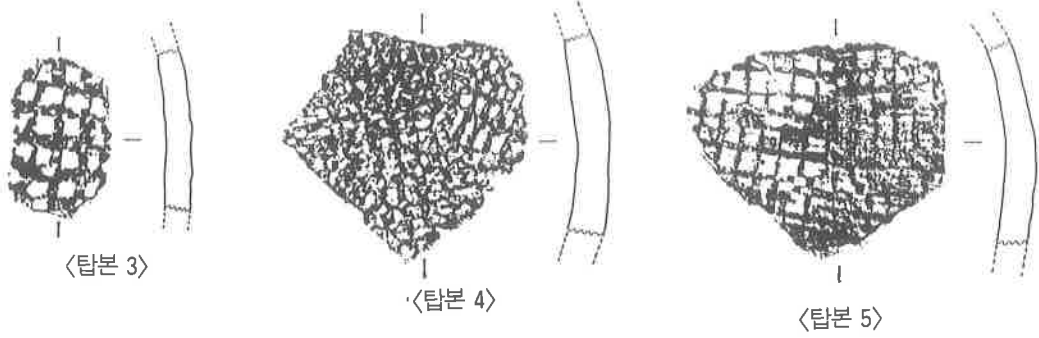
어두운 회색을 띤다. 민토기 바탕흙에 가까우며 1mm의 모래알갱이와 돌비늘이 섞여 있다. 겉면에 slip을 입히고 빗질정면하였다. 문살무늬를 베훈 뒤 7-10mm 정도의 간격으로 가로방향의 줄을 그었다. 굳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5.8mm.

6) 몸체부분(답본 8, 사진 81-3)

회청색을 띠며 바탕흙에는 1-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들어 있다. 안쪽면에 정면흔적이 보인다.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으로 굳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10.1mm.

7) 몸체부분(답본 9, 사진 82)

회백색으로 바탕흙에 약간의 돌비늘만이 보일 뿐이다. 안쪽면에도 문살무늬가 베풀어졌다. 굳기는 단단한 편이다. 두께 5.0mm.



두드림무늬 토기:문살무늬(양덕리)

② 끈무늬[繩文]

1) 목부분(답본 10, 사진 83-1)

안팎면은 밝은 주황빛이 도는 갈색이고 속심은 어두운 회색이다. 바탕흙에는 1-2mm의 모래와 돌비늘이 섞여 있다. slip을 입혔으며 빗질정면하였다. 입술의 휩새는 바라진 형태이고, 목 끝부분에서 약 1.7cm 아래부터 무늬가 시작된다. 굵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8.3mm.

2) 목부분(답본 11, 사진 84-2)

어두운 갈색을 띤다.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에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안쪽면에는 정면흔적이 보인다. 무늬는 목부분 아래쪽부터 베풀어졌는데, 먼저 거의 수직 방향의 끈무늬를 베풀 다음, 1.3-1.5cm 간격의 줄무늬를 돌렸다. 굵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6.0mm.

3) 몸체부분(답본 12, 사진 83-2)

갈색을 띠고 바탕흙에는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slip을 입혔고, 안쪽면에 빗질정면을 곱게 하였다. 무늬는 먼저 빗금방향으로 끈무늬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약 3cm 간격의 줄을 그은 것인데, 끈무늬를 겹쳐서 베풀 곳은 문살무늬와 같은 모양을 보인다. 굵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6.0mm.

4) 몸체부분(답본 13, 사진 83-3)

갈색을 띠며 바탕흙에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들어 있다. 무늬는 끈무늬를 빗금 방향으로 먼저 베풀었고, 그 위에 약 1.3cm 간격으로 줄무늬를 돌린 형태다. 굵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5.0mm.

5) 몸체부분(답본 14, 사진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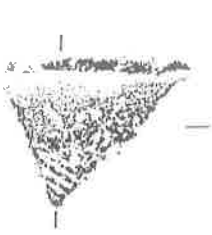
겉면은 갈색, 안쪽면과 속심은 어두운 회색을 띤다.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으로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보인다. slip을 입혔으며 안쪽면에는 빗질정면을 하였다. 무늬는 끈무늬를 빗금방향으로 베풀었다. 굵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11.0-13.0mm.

6) 몸체부분(답본 15, 사진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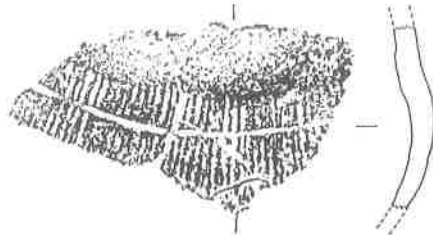
회백색으로 1-3mm의 모래와 돌비늘이 보인다. slip을 입히고 면을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무늬는 끈무늬를 빗금방향으로 겹쳐서 베풀었다. 굵기는 약한 편이다. 두께 7.6mm.

7) 몸체부분(답본 16, 사진 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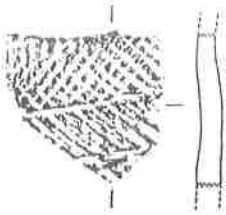
어두운 회색을 띤다. 바탕흙은 정선된 것을 사용하여 1mm 이내의 고운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보일 뿐이다. 안쪽면에는 일정한 방향은 아니지만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겉면에는 끈무늬를 수직방향으로 베풀 다음 0.7-1.1cm 간격으로 줄을 그었다. 굵기는 단단한 편이다. 두께 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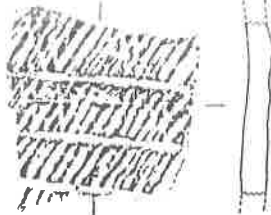
<탑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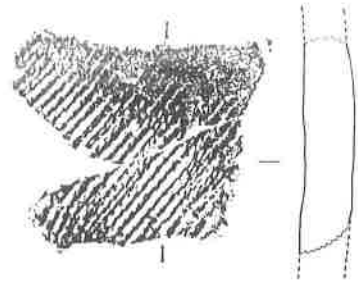
<탑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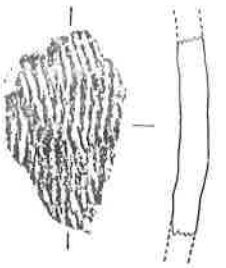
<탑본 12>



<탑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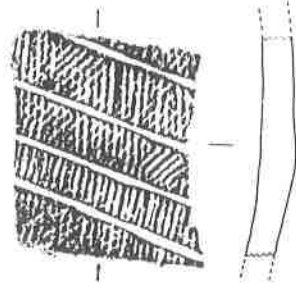
<탑본 14>



<탑본 15>



<탑본 16>



<탑본 17>



두드림무늬 토기: 끈무늬(양덕리)

8) 몸체부분(답본 17, 사진 85-3)

회백색을 띤다. 바당흙을 정선하여 사용하였고, 1mm 정도의 모래와 돌비늘이 조금 보인다. slip을 입혔으며 안쪽면에는 회전대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무늬는 끈무늬를 겹쳐 베푼 다음 0.9-1.5cm 간격의 줄무늬를 그었다. 굳기는 단단한 편이다. 두께 8.0mm.

5. 종합관찰

가. 구석기시대 유물

다음에서는 병산리 유적의 구석기시대 석기에서 보이는 몇몇 특징과 아울러 석기가 나오는 문화층의 연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석기의 암질

석기의 암질과 돌감의 성질에 대한 연구는 석기의 제작수법 뿐만 아니라 석기를 만들기 위하여 어디서 돌감을 구해 왔는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구석기인들의 활동범위를 알 수 있다.

병산 4리에서 나온 구석기시대 석기의 암질은 개차돌(규암)과 차돌(석영)이 주를 이룬다. 발굴과 지표조사에서 찾은 석기의 돌감은 거의 대부분이 자갈돌로 이루어진다. 이 자갈돌은 유적 앞을 흐르는 남한강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는데, 팔당둑으로 수위가 높아져 강가에 어떠한 종류의 자갈이 퇴적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유적 주변에서도 해발 약 35-40m되는 곳에 갱신세 늦은 시기에 쌓인 것으로 보이는 자갈이 있는데, 이런 지역도 병산리의 구석기인들이 석기를 만들기 위하여 돌감을 마련했던 곳으로 짐작된다.

<표 1, 2, 3, 4>에서 괄호 안에 있는 별표(*) 다음의 숫자는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서 생긴 때린 자국이나 으스러진 자국이 나타나는 유물의 수를 가리킨다. 흐트러진 곳에서 나온 격지가 수십점 있으나, 이 표에 실린 격지는 발굴을 통하여 나온 것을 다루었다.

<표 1> 3문화층의 석기 암질

석기\암질	화강섬록암	계
망치돌	1(*1)	1(*1)
격지	1	1
계	2(*1)	2(*1)

〈표 2〉 2문화층의 석기 임질.

석기\암질	차돌	개차돌	흑운모편마암	화강섬록암	계
망치돌		1(*1)	1(*1)	1(*1)	3(*3)
몸돌		2(*1)			2(*1)
찍개	2	3(*1)	2		7(*1)
등근날 몸돌석기		1			1
자르개			1		1
여러면석기		1(*1)			1(*1)
긱개	1	2			3
격지	1	1			2
계	4	11(*4)	4(*1)	1(*1)	20(*6)

〈표 3〉 1문화층의 석기 임질.

석기\암질	차돌	개차돌	흑운모편마암	계
망치돌			1(*1)	1(*1)
밀개	1	2		3
새기개	2			2
격지	1	1		2
계	4	3	1(*1)	8(*1)

〈표 4〉 제자리를 잃은 석기의 임질.

석기\암질	차돌	개차돌	편마암	안산암	염기성암	계
몸돌		1	1(*1)	1		3(*1)
찍개	1(*1)	8(*2)	1		1	11(*3)
여러면석기		7(*7)				7(*7)
밀개	1	1				2
밀개+긱개	1	1				2
긱개	1					1
긱개+툽니날		1				1
툽니날	1					1
흙날		1				1
계	5(*1)	20(*9)	2(*1)	1	1	29(*11)

3문화층의 발굴범위는 매우 좁고, 나온 유물의 수도 적다. 화강섬록암으로 만든 망치돌 1점과 격지 1점이 있다.

2문화층의 석기 암질은 차돌, 개차돌, 흑운모편마암, 화강섬록암으로 이루어진다(표 2).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개차돌 종류이다. 개차돌로 만든 몸돌, 찌개, 여러면석기에서 때린 자국이나 으스러진 자국이 가끔 남아 있는데, 이런 자국을 보여주는 찌개는 여러면석기의 한 면을 떼어 만든 것이다. 비록 2점에 불과하지만 여러면석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은 개차돌로 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때린 자국 또는 으스러진 자국이 나타나는 유물은 망치돌을 포함하여 모두 6점이다.

1문화층은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발굴범위도 좁은 편이며, 유물의 수도 적다. 새기개 2점을 모두 질 좋은 차돌을 이용하여 만든 점이 주목된다.

제자리를 잃은 석기의 암질은 차돌, 개차돌, 편마암, 안산암, 염기성암 종류로 이루어진다. 여러 암질 가운데 개차돌 종류가 가장 많다. 특히 찌개의 대부분과 전체 여러면석기의 돌감으로 개차돌이 가장 흔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차돌로 된 찌개와 여러면석기에 때린 자국 또는 으스러진 자국이 많이 보이고 있다.

한편 지표조사를 통하여, 작은 크기의 격지 조각을 여러 점 찾았다. 이들 유물은 구름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망치돌과 망치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면석기도 지표조사를 하면서 여러 점 찾았다. 비록 후대의 농지정리로 인하여 본디 자리를 벗어난 유물이 적지 않지만, 망치돌을 비롯하여 작은 격지 조각들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이곳 가까이에서 석기 제작터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2) 찌개의 제작방법에 대한 검토

병산리 유적에서 찾은 찌개는 모두 18점이다. 2문화층에서 7점이 나왔고, 제자리를 잃은 유물이 11점 있는데 11점 가운데 2점은 두터운 격지로 만들어졌다. 두 면을 모두 떼어 만든 안팎 날찌개는 3점(2문화층 2점)이 있다. 찌개 가운데는 때린 자국 또는 으스러진 자국을 보여주는 것이 5점 있는데, 이것은 찌개의 날과 관계없는 부분이 때때로 망치돌이나 그밖의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나온 찌개의 전체 둘레길이, 날길이와 그 비율, 날각도 등에 관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6). 이들표에 나와 있는 날의 수는 찌개의 수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몸체에 둘 이상의 날이 서로 연이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되었다.

병산리에 나온 찌개는 한번에서 일곱번에 걸쳐 때기를 베풀어 마름질하였다. 두번에서 세번 또는 다섯번의 때기로 마름날을 마련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96 참조).

〈표 5〉 2문화층의 찌개.

차례	마름질	길이(mm)			날각도		비 고
		둘레길이	날길이	비율	날각도	평균	
1	세번	333	100	0.30	75-90°	82.5°	그림 10
2	다섯번	405	160	0.40	80-110°	95°	그림 28
3	네번	236	152	0.64	85-95°	90°	그림 29
4	두번	220	80	0.36	72-85°	78.5°	그림 30
5#	세번	378	90	0.24	80-90°	85°	그림 31
6#	두번	235	72	0.31	65-80°	72.5°	그림 32
7	두번	300	60	0.20	85-95°	90°	그림 33

#: 안팎날찌개를 가리킴.

〈표 6〉 제자리를 잃은 찌개.

차례	마름질	길이(mm)			날각도		비 고
		둘레길이	날길이	비율	날각도	평균	
1	두번	307	92	0.30	75-98°	86.5°	그림 42
2	두번	483	170	0.35	55-70°	62.5°	그림 43
3	다섯번	360	230	0.67	80-110°	95°	그림 44
4	두번	305	75	0.25	100-110°	105°	그림 45
5	두번	305	90	0.30	85-90°	87.5°	그림 45
6	한번	360	67	0.19	약 70°	70°	그림 46
7	두번	183	63	0.34	85-106°	95.5°	그림 47
8	세번	300	90	0.30	85-90°	87.5°	그림 48
9#	일곱번	280	150	0.54	70-88°	79°	그림 49
10	일곱번	320	245	0.77	85-105°	95°	그림 50
11	네번	355	115	0.32	95-105°	100°	그림 51
12	세번	300	80	0.27	90-110°	100°	그림 52
13	두번	290	65	0.22	90-105°	97.5°	그림 52

#: 안팎날찌개를 가리킴.

찍개의 날길이 /전체 둘레길이에 대한 비율은 0.19에서 0.77 사이에서 변하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날길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값이 0.50일 때는 전체 둘레길이의 절반이 날부분임을 알려준다. 이 비율(♣)을 체계있게 비교하기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1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clubsuit 1 < 0.1$	$0.6 \leq \clubsuit 7 < 0.7$
$0.1 \leq \clubsuit 2 < 0.2$	$0.7 \leq \clubsuit 8 < 0.8$
$0.2 \leq \clubsuit 3 < 0.3$	$0.8 \leq \clubsuit 9 < 0.9$
$0.3 \leq \clubsuit 4 < 0.4$	$0.9 \leq \clubsuit 10 < 1.0$
$0.4 \leq \clubsuit 5 < 0.5$	$\clubsuit 11 = 1.0$
$0.5 \leq \clubsuit 6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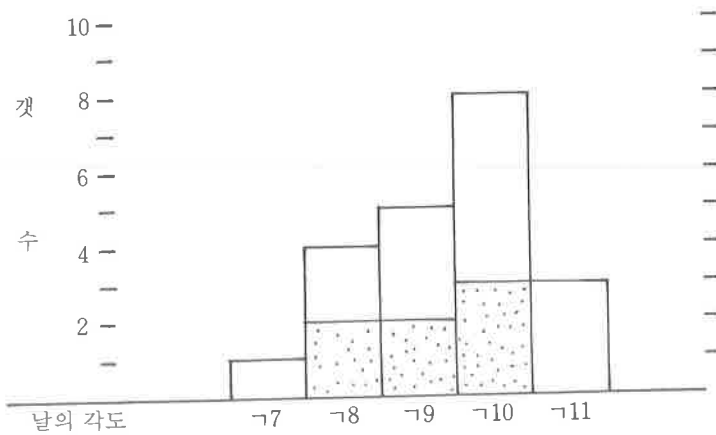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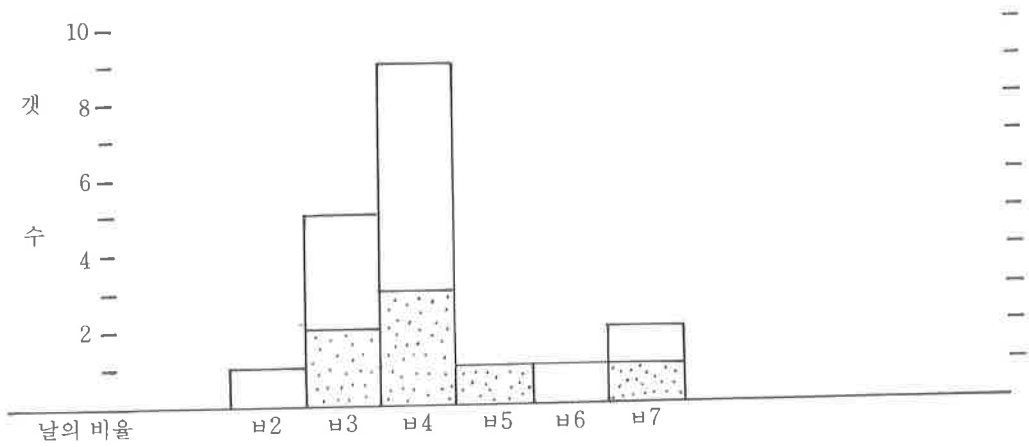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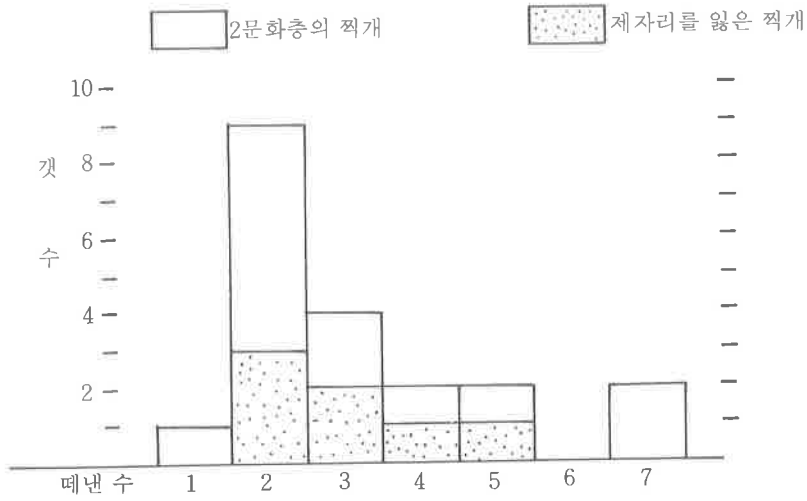
병산리에서 나온 찍개의 날길이 비율은 0.19-0.77 사이에 든다. 이 가운데 그 값이 ♣3과 ♣4에 속하는 것, 다시 말해서 $0.2 \leq \clubsuit < 0.4$ 사이에 드는 찍개의 수가 가장 많다.

찍개의 날각도는 10 단위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heartsuit 1 < 10^\circ$	$80^\circ \leq \heartsuit 9 < 90^\circ$
$10^\circ \leq \heartsuit 2 < 20^\circ$	$90^\circ \leq \heartsuit 10 < 100^\circ$
$20^\circ \leq \heartsuit 3 < 30^\circ$	$100^\circ \leq \heartsuit 11 < 110^\circ$
$30^\circ \leq \heartsuit 4 < 40^\circ$	$110^\circ \leq \heartsuit 12 < 120^\circ$
$40^\circ \leq \heartsuit 5 < 50^\circ$	$120^\circ \leq \heartsuit 13 < 130^\circ$
$50^\circ \leq \heartsuit 6 < 60^\circ$	$130^\circ \leq \heartsuit 14 < 140^\circ$
$60^\circ \leq \heartsuit 7 < 70^\circ$	⋮
$70^\circ \leq \heartsuit 8 < 80^\circ$	⋮

찍개의 날각도는 $55-110^\circ$ 에 이르며, 그 평균값은 $62.5-105^\circ$ 사이에 든다. 이 가운데 $70^\circ \leq \heartsuit < 100^\circ$ 사이에 드는 석기의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Nicholas Toth(1987)는 140-190만년 전에 속하는 쿠비 포라(Koobi Fora) 유적의 석기에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비교자료를 통하여 쿠비 포라의 격지떼기가 주로 오른손잡이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와 같은 자료는 당시 석기 제작자의 큰골 구조와 기능이 분화된 단계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른손잡이인데 그가 때낸 격지 가운데, 격지의 오른쪽에 자연면이 남아 있는 것과 그 격지의 왼쪽에



<그림 96> 짝개의 마른날을 만들려고 떼낸 수(위), 날길이/ 전체 둘레길이의 비율(가운데), 날의 각도(아래)

자연면이 남아 있는 것과의 비율이 56:44로 나왔으며, 이런 비율은 쿠비 포라(57:43)에서도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왔다.

〈그림 97〉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쪽에 몸돌을 잡고 격지를 떼어가는 것이 편한데, 이 경우에 오른손잡이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몸돌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여 떼낸 격지는, 때림면을 위쪽에 놓고 볼 때, 그 격지의 오른쪽 부분에 자연면이 남게 된다. 왼손잡이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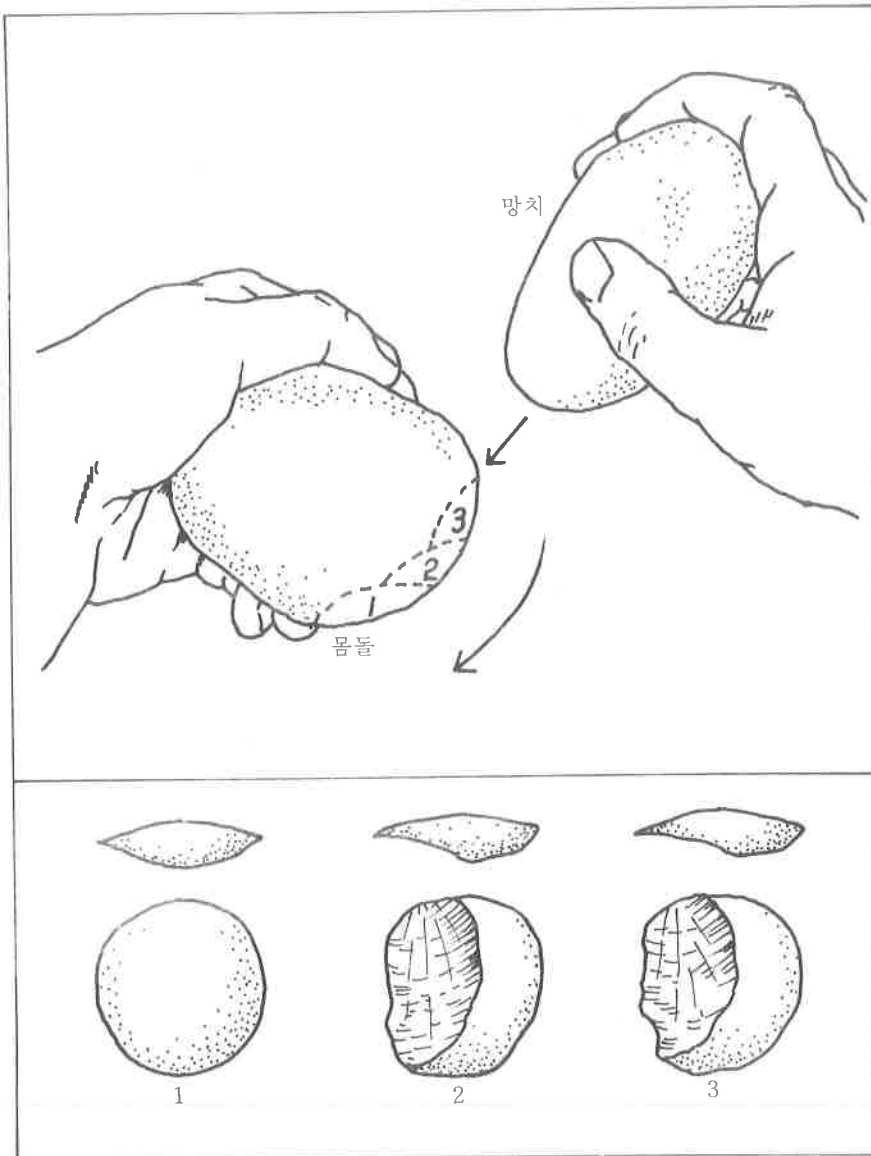
N. Toth의 실험 결과를 병산리에서 찾은 찧개에 적용한 바로는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떼기가 이루어진 수의 비율은 8개:4개로 나왔다. 여기에서 이용된 찧개는 등쪽이나 배쪽 가운데 어느 한쪽 방향에서만 두번에 걸쳐 떼기가 베풀어져 마른날이 마련된 석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많은 양의 찧개가 비교된 것은 아니지만 N. Toth의 실험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병산리 유적의 찧개는 오른손잡이에 의하여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여러면석기의 기능에 대한 검토

여러면석기는 bola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석기의 생김새가 마치 공처럼 둥근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spheroid, 프랑스어로는 boule⁷⁾이라고 불리운다. boule은 생김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것은 그야말로 공처럼 둥근 모양으로 sphéroïde한다. 둘째는 떼내거나 깨진 자국이 있어 모난 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boule à facettes, sphéroïde à facettes, polyèdre, polyèdre sphérique 등으로 불리운다(Brézillon 1977, 164, 340, 363-4쪽; Chavaillon et Lavallée 1988).

7) 이와 관련된 프랑스어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Brézillon 1977, 364쪽).

구분	Sphérique piqueté	Polyédrique taillé
Boucher de Perthes(1847)	Boule	
Lartet(1864)		Projectile à saillies anguleuses
Pommerol(1882)	Bola	Bola
Chauvet(1896)	Sphéroïde	Sphéroïde
Raymond(1904)		Polyèdre
Passemard(1944)		Boule à facettes
Balout(1955)	Bola	Sphéroïde à facettes
Agache(1958)	Sphéroïde régularisé	Polyèdre
de Heinzelin(1962)	Boule	Polyèdre



<그림 97> 오른손잡이가 한쪽면에 떼기를 베푸는 모습(Toth 1987에서 옮김)

일찍이 1847년 Boucher de Perthes는 이런 모양의 석기가 존재함을 말한 바 있으며, 1864년 Lartet는 이 석기가 던지는데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Brézillon 1977). 그러나 1950년 이전까지 이 석기의 쓰임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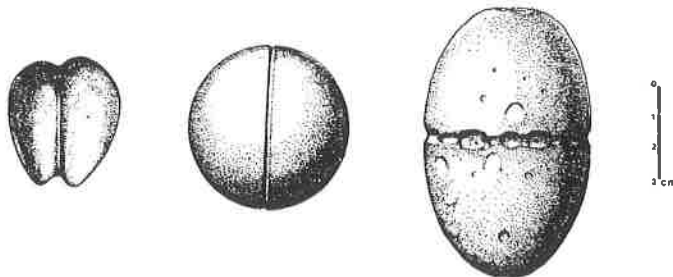
여러면석기의 기능을 체계있게 서술하기 시작한 것은 J. Desmond Clark이었다. 그는 1952년에 열린 제2차 범아프리카 선사학 학술대회(Congrès Panafricain de Préhistoire)에 즈음하여 발표한 글에서 이 석기가 어떤 물체를 두드려 으깨거나 또는 사냥용 연모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Clark 1955).

여러면석기는 전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인 180만년 전부터 나타나며, 후기 구석기시대 이후의 유적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두바이 유적에서 나온 여러면석기의 존재는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 석기의 절반 이상은 최대지름이 6cm 이하였고, I층과 II층에서 나온 이들 석기의 절반 가량이 200g 이하였다(Willoughby 1990).

올두바이에서 나온 여러면석기(spheroid)를 bola로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문제에 관하여 Mary Leakey는 “남아메리카의 대초원(Pampas)에서 그렇듯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돌을 노끈(corde)이나 가는 가죽끈(lanière)으로 묶은 다음, 머리 위에서 빙빙 돌려 달리는 짐승이나 큰 새에게 던져 마치 올라미처럼 동물을 잡는데 썼을 것이다. 한 개일 경우에도 1m쯤 되는 끈으로 묶어 빙빙 돌린 다음, 짐승의 발에 걸리도록 던진다면 사냥의 효과가 높아지고, 설혹 그 돌이 밧나간다 하더라도 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돌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Edey 1973, 127쪽).

Mary Leakey가 지적하였듯이 bola는 특히 남아메리카의 선사유적 발굴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초원이나 고원지대에서 사슴과 같은 큰 풀먹이짐승을 사냥하는데 쓰인다(Chavaillon et Lavallée 1988). 예를 들어, 칠레의 Marazzi(or Marassi)에 있는 바위그늘의 아래층(이 층 가운데부분의 연대는 $9,590 \pm 200$ BP)에서 작은 젓먹이짐승뼈와 bola가 나왔다. 그리고 가운데층($5,570 \pm 400$ BP)에서는 많은 bola와 함께 큰 젓먹이짐승뼈가 나와 당시 선사인들이 사냥을 활발하게 하였음을 알려준다(Lavallée 1988).⁸⁾

8) 아래 그림은 Marazzi 바위그늘 유적에서 나온 bola이다(Chavaillon et Lavallée 1988에서 옮김).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면석기는 우리 나라의 구석기유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82쪽)을 보면 팔매돌(사냥돌, bola-stone, missile-stone)의 쓰임새를 가리켜 “둥글게 다듬은 주먹만한 돌을 말하며; 이것을 2-5개 짐승의 힘줄이나 끈으로 묶어서 던져 짐승을 사냥하는 데 쓰인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바로 위에서 말한 bola의 쓰임새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구석기유적에서 나오는 여러면석기는 올두바이의 예와는 다르게 크기를 뿐만 아니라 무게도 적지 않게 나간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면석기가 사냥돌과 같은 기능을 정말 지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산리에서 찾은 여러면석기의 무게는 대체로 975-1685g이며, 오직 가장 작은 한 점만이 350.5g이다. 여러면석기가 사냥돌이었다면 상당한 거리까지 던져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 이용된 것은 1000g와 1500g 짜리 두 종류였다. 여기에 이용된 것은 모조품임을 밝힌다.

먼저 네사람이 날개로 던졌을 때, 끈에 매달지 않고 던진 거리와 끈(길이 1.2m)에 매어 던진 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네 사람이 각각 매번 10회씩 던진 거리 가운데 평균값과 최대 거리가 <표 7,8>에 나와 있다.

<표 7> 여러면석기를 날개로 던진 거리.

() 안은 최대거리를 가리킴

구 분	끈에 매달지 않고 던진 거리		끈에 매달아 던진 거리	
	1000g	1500g	1000g	1500g
성현경	22.1(24.3)m	14.4(17.5)m	27.3(34.3)m	29.6(34.8)
박상빈	22.1(24.3)m	15.1(16.4)m	28.0(33.3)m	29.3(32.3)m
손기연	25.6(27.6)m	16.4(17.9)m	30.6(36.8)m	26.5(31.6)m
박준범	26.4(28.1)m	18.2(20.0)m	30.4(35.2)m	27.0(31.3)m

<표 8> 여러면석기 두 개를 끈에 매달아 한꺼번에 던진 거리.

() 안은 최대거리를 가리킴

구분	1000g	1500g
성현경	21.0(23.4)m	19.3(21.0)m
박상빈	18.0(20.6)m	16.6(19.0)m
손기연	19.5(21.4)m	16.8(17.5)m
박준범	19.6(22.5)m	17.3(18.6)m

9) 네 사람은 다음과 같다.

- * 박상빈(나이 23살, 키 170cm, 몸무게 65kg)
- * 손기연(나이 23살, 키 178cm, 몸무게 80kg)
- * 성현경(나이 25살, 키 175cm, 몸무게 61kg)
- * 박준범(나이 24살, 키 177cm, 몸무게 86kg)

1000g 짜리를 끈에 매달지 않고 날개로 던진 경우에 최대거리는 30m를 넘지 않았으며, 1500g인 경우는 20m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끈에 한 개를 매달아 던졌을 때, 최대거리는 1000g이 36.8m 이내이며, 1500g은 34.8m가 안된다.

1000g 짜리 두 개를 끈으로 묶어 한꺼번에 던졌을 때, 최대거리는 23.4m 이내였다. 1500g 짜리의 경우, 두 개를 끈에 묶어 던질때 최대거리는 21.0m로 나왔다.

이런 던지기 실험을 한 네 사람이 익숙한 솜씨를 지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말한 최대거리만 가지고는 여러면석기를 이용하여 사냥을 효과있게 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병산리에서 찾은 모든 여러면석기의 길면 여러 부분에 때린 자국 또는 으스러진 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자국이 이 석기들을 사냥돌로 사용하는 동안에 나타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병산리의 여러면석기를 사냥돌로 보기 어렵다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이 유적에서 여러면석기가 나오는 곳은 3층의 찰흙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지층의 찰흙광물 분석결과(이동영 박사와 토의)를 살펴보면, 이 층이 온난하고 습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기후환경 속에서 우리는 병산리 일대에 나무숲이 발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넓게 트여 있는 대초원지대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은 여러면석기를 사냥돌처럼 사용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면석기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Willoughby(1985; 1990)는 이 석기의 쓰임새에 관하여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제기했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망치돌이나 모룻돌과 같은 구실을 하며, 다른 석기를 가공하거나 또는 식물성 물질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면석기를 사용하는데, 여러면석기에 보이는 때린 자국이나 으스러진 자국은 그런 과정을 알려준다.

둘째, 남아메리카의 bola와 같이 던지는데 쓰인다.

셋째, 우연히 그런 모양이 되었거나 격지를 더 이상 효과있게 뺄 수 없으므로 버린 몸돌이다. 따라서 여러면석기는 특별한 기능이 없다.

병산리의 여러면석기에 대한 우리의 실험은 여기에서 나온 석기가 그 무게로 판단할 때, 둘째 경우의 사냥돌과 마찬가지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 크기는 대체로 길이가 101-125cm, 너비가 90-112cm, 두께가 73-97cm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몸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면석기 가운데는 때림면(platform of percussion)이 잘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잔손질된 격지석기의 크기 또는 개차돌로 된 격지석기가 있는 점으로 보아 병산리의 여러면석기가 버린 몸돌 종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Willoughby(1990. 253-5쪽)는 여러 민족지학의 조사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여러면석

기의 쓰임새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줄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아프리카의 침팬지(특히 암컷)가 멀리로는 500m까지 자연의 돌을 운반하여 호두와 같이 껍질이 단단한 먹이를 으깨며..., 남아프리카의 원주민인 쿡 산(!Kung San)의 여인들은 몽공고(mongongo) 나무의 단단한 열매를 으깨기 위하여 공이와 같은 돌을 사용하며..., 오스트렐리아의 원주민들도 열매 등을 으깨려고 돌을 이용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으스러진 자국이 사용된 석기의 겉면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침팬지의 암컷이나 쿡 산의 여인들이 그들의 식물성먹거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구석기시대의 사회에서 사냥꾼인 남성(homme chasseur)의 활동에 대비시켜 먹거리를 으깨 빵아 만들었던 여성(femme broyeuse)의 모습을 되살리게끔 해줄 가능성이 엿보인다.”

(4) 구석기문화층의 연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병산리 유적의 지층은 모두 5개로 이루어진다. 이들 지층 가운데 2층(1문화층), 3층(2문화층), 4층(3문화층)에서 뿔석기가 나온다. 3개층에서 유물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시 사람들의 석기제작터나 집터와 같은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활 흔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3개의 층을 문화층으로 다루는데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개층에서 나온 유물이 근처 어디에선가 이동하여 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개층에 각각의 문화층 이름을 붙인 것은 그들 층에서 유물이 나왔다는 사실만을 뜻한다. 좀더 뚜렷한 고고학상의 증거는 앞날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추후의 발굴 결과에 따라서 3개 문화층이 더 잘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

3개 문화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의 주성분은 찰흙이다. 여기서 보이는 퇴적물만을 가지고는 절대연대측정에 필요한 시료를 마련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병산리 유적의 경우에 우리는 상대연대측정방법을 적용하여 보기로 하였다.

병산리 유적의 5층은 모래층이다. 이 모래층은 병산리 일대에 널리 나타난다. I 지구에서 모래층이 나타나는 곳은 해발 약 35.7m이며, II 지구에서 이 모래층이 나타나는 곳은 해발 약 35.2m(ㄷ 7칸)로서 50-60cm 정도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해발높이의 차이는 II 지구에서 I 지구 방향, 다시 말해서 강 아래쪽으로 가며 모래층이 비스듬하게 형성되었음을 알려준다. ㄷ 7칸에서 모래층의 윗부분은 현재 강물높이(25-26m 사이에서 변하는데 여기서는 평균값을 25.5m로 보았음)보다 9.6m쯤 높다. 팔당둑(최고수위 27m, 최저수위 24m)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양평쪽 남한강 물높이는 독을 쌓기 이전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ㄷ 7칸에서 5층이 시작되는

것은 독을 만들기 이전의 강바닥과 비교할 때, 10 m 남짓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남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제4기 지질학의 연구성과(이동영 1987 ; 이동영 1992 ㄱ ; Lee and Kim 1990 ; Lee and Kim 1992)를 보면, 그와 같은 높이를 지나는 병산리의 강언덕 형성시기가 마지막 간빙기에 속함을 보여준다.

5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퇴적상의 특징은 이들 두 지층이 서로 접이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4층의 아랫부분에서는 모래질과 찰흙질이 얇은 켜를 이루며 번갈아 나타나는데, 4층의 윗부분으로 가면서 모래질이 사라지고 찰흙질만이 퇴적층을 형성한다. 5층의 모래층이 형성될 때, 이 층이 있던 곳은 강물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다가 강물높이가 오르락내리락 차츰 변하면서 모래질과 찰흙질이 번갈아 나타나게 되었고,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 곧 강물높이가 더 떨어지면서 모래층 대신에 찰흙층이 쌓이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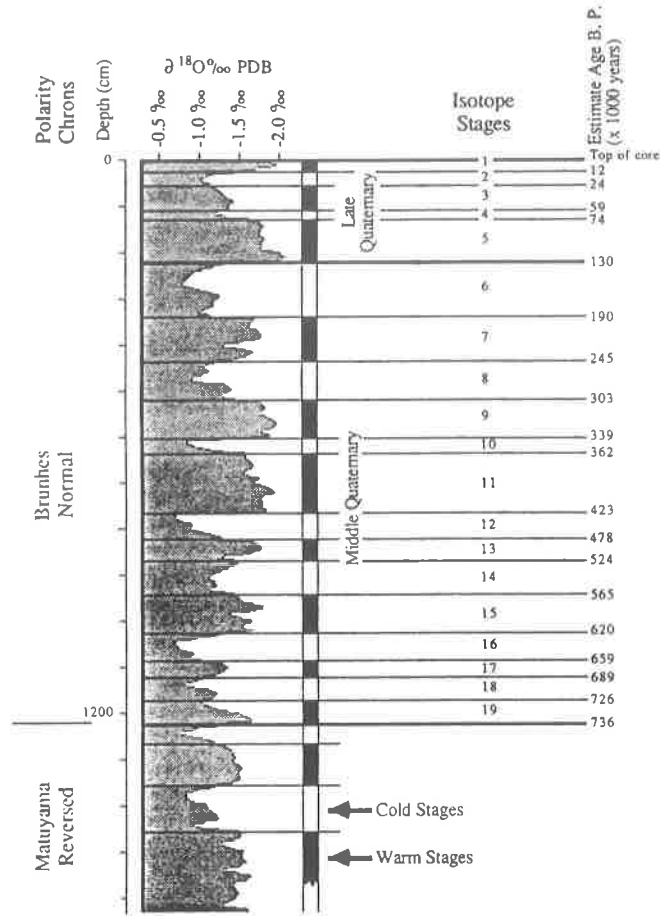
그러면 찰흙질 토양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토양이 홍수로 인하여 쌓일 가능성은 없는가? 4층의 찰흙을 분석한 자료는 이 지층의 흙성분 나뉠새(sorting)가 좋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모래알갱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모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4층의 토양이 강물의 영향을 받아 쌓인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한편 4층의 찰흙광물 분석을 보면, 4층의 퇴적이 온난하고 습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이동영 박사과 토의).

4층의 흙빛깔은 황적색이며, 이 층 윗부분에 언땡트기 현상이 나타난다. 4층의 윗부분에서 보이는 그와 같은 현상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층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3층 윗부분의 흙빛깔은 짙은 갈색인데, 4층과 마찬가지로 이 층 윗부분에 언땡트기 현상이 나타난다. 3층은 4층보다 드러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3층에서 보이는 언땡트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언땡트기 현상은 수직면에서 췌기모양의 구조(wedge)를 보여주며, 평면에서는 5각형구조(polygon)로 갈라지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췌기가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토양의 압축작용(compaction)으로 말미암아 밀도가 높은 토양층(fragipan)이 형성되며, 얇은 켜가 줄무늬처럼 띠를 이루며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platy or lenticular structure)를 띤다. 이와 같은 토양의 특징은 3층이 형성된 다음 추운 기후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이동영 1987 ; 이동영 1992 ㄱ ; 1992 ㄴ).

2층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갈색 찰흙으로 되었고, 이 층 윗부분에서는 언땡트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5층과 4층은 따뜻하거나 온난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3층도 추운 기후에서 쌓인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병산리 유적에서 보이는 추운 기후의 영향은 4층과 3층의 윗부분에서만 관찰될 다름이다. 따라서 병산리 유적의 퇴적은 두 차례에



〈그림 98〉 산소동위원소 분석에 의한 갱신세 중기와 후기의 기후변화(Klein 1989에서 옮김)

결쳐 추운 기후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운 기후의 영향은 토양을 퇴적시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토양에 그 흔적만을 강하게 남겼다.

바닷물 속에 사는 유공충이나 작은 유기물에서 조사한 산소동위원소($^{18}\text{O}/^{16}\text{O}$)의 비율은 과거의 바닷물 온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비율은 당시 바닷물 자체에 들어 있는 ^{18}O 과 ^{16}O 의 양, 온도 및 염분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김한규 1991). ^{18}O 은 ^{16}O 보다 무겁기 때문에 ^{18}O 을 포함하고 있는 물분자는 ^{16}O 을 포함하고 있는 물분자보다 증발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빙하기 동안 바닷물이 빙상(ice sheet)에 갇히게 되면 ^{18}O 의 양은 늘어난다. $^{18}\text{O}/^{16}\text{O}$ 의 연구로 제4기 동안 상당수에 걸쳐 추운 기후와 따뜻한 기후가 번갈아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Shackleton and Opdyke 1973 ; Shackleton and Opdyke 1976).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후기 갱신세의 마지막 간빙기와 현세를 포함한 마지막 빙하기 동안에 보이는 기후변화는 병산리 유적의

상대연대 추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산소동위원소 분석(Martinson *et al.* 1987)에 따르면, 종래 이야기되었던 마지막 간빙기와 마지막 빙하기(현세 포함) 동안 5번에 걸쳐 큰 기후변동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98 참조). 여기서 세번은 따뜻한 기후(5기, 3기, 1기), 두번은 추운 기후(4기, 2기)로 나타나는데 3기는 5기보다 덜 따뜻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다섯번에 걸친 그와 같은 기후변화는 병산리 유적의 퇴적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후기 갱신세에 일어났던 그러한 기후변화의 모습이 우리 나라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없이 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곧 병산리 유적의 5층과 4층, 3층, 2층이 산소동위원소 연구에서 보이는 5기, 3기, 1기와 각각 맞먹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흔적만 나타나는 4층 윗부분과 3층 윗부분의 언땅트기 현상이 각각 4기와 2기에 속하는 것, 다시 말해서 추운 기후 동안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러한 가설의 바탕 위에서 이제는 병산리 유적 퇴적물의 형성시기를 <표 9>와 같은 시간의 틀 속에서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9>에 있듯이 병산리 5기(3문화층)는 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한다. 그런데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경계를 4만년 전으로 잡을 경우, 병산리 3기의 2문화층을 어떻게 다시 시기구분하는 나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는 병산리 3층에서 두 시기의 문화층을 나누도록 해주는 지질학상 또는 고고학상의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표 9> 산소동위원소에 따른 후기 갱신세의 기후변화와 병산리 유적의 시기구분.

연대(BP) (Martinson <i>et al.</i> 1987)	산소동위원소	병 산 리			
		지층	퇴적	문화층	구분
현세 12,050 (±3140) 24,110 (±4930)	1기(따뜻한)	2층	갈색 찰흙	1문화층	병산리 1기
	2기(추운)		언땅트기		병산리 2기
58,960 (±5560) 73,910 (±2590)	3기(따뜻한)	3층	질은 갈색 찰흙 열은 갈색 찰흙	2문화층	병산리 3기
	4기(추운)		언땅트기		병산리 4기
129,840 (±3050)	5기(따뜻한)	4층 5층	황적색 찰흙 모래	3문화층	병산리 5기
	6기(추운)		?		

다. 이런 문제는 병산리 1기(1문화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데, 병산리 1기도 후기 구석기 시대 늦은 시기와 중석기시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글에서는 병산리 1기의 유물을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이런 주장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몇몇 유적에서 병산리 1기에 속하는 지층이 알려졌다. 그런데 어느 유적의 경우에는 후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 그리고 또다른 유적에서는 중석기시대로 설명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좀더 많은 연대측정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중석기시대라는 개념에 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병산리 5기에서 1기 사이의 변화과정은 전곡리 유적(배기동 1989)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전곡리 유적 뿐만 아니라 남한의 강가 언저리에서 지금까지 발굴보고된 구석기 유적, 그 유적이 두번째 강언덕 위에 놓여 있던 또는 세번째 강언덕 위에 놓여 있던간에 각 유적의 문화층은 병산리 5기부터 1기에 걸치는 시간들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뒷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나. 철기시대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병산리와 양덕리 토기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유적의 성격 및 연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토기로 본 특징

병산리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3점으로 워낙 양이 적어 다른 지역과의 충분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출토된 끈무늬 토기는 무늬로 보아 주변지역에서 나온 토기와 비슷하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양덕리 토기와도 비슷하다.

병산리의 끈무늬 토기는 2점이다. 한점은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에 모래알이 많이 섞여 있고(답본 1), 다른 한점은 정선된 바탕흙에 두께가 얇고(3.8mm) 매우 약한 느낌을 준다(답본 2). 이렇게 병산리 끈무늬 토기가 약한 느낌을 주는 것이 혹시 시기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병산리의 끈무늬토기가 양덕리의 것보다 이른 시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너무 적은 까닭에 더 이상의 추정은 무리일 것으로 여겨진다.

양덕리의 토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 곧 1)민토기와 2) 끈무늬·문살무늬 등의 두드림무늬 [打捺文] 토기이다.

ㄱ. 민토기

이 토기의 경우 대개 붉은색을 띠는 갈색 계통이 많고,¹⁰⁾ 바탕흙에는 모래알갱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두께는 8-10mm가 가장 많다. 입술은 바라진 것과 곧선 것이 반반씩 나왔고,¹¹⁾ 겹입술이 퇴화한 것처럼 보이는 토기가 1점(그림 77, 사진 70-4 참조) 나왔다. 그밖에 손잡이 1점과 밑 3점, 시루바닥 1점이 나왔다. 밑은 모두 납작밑으로 바닥에서 바로 몸체로 올라가는 대야밑 모양(그림 92, 사진 75 참조)과 굽이 있는 모양(그림 93, 사진 76 / 그림 94, 사진 71 참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나온 민토기는 청동기시대에 쓰였던 민토기와 철기시대까지 계속 만들어졌던 민토기가 있다. 철기시대 민토기의 경우 남부지방에서는 ‘종말기 무문토기’(정정원·신경철 1987) 혹은 경질 무문토기(최성락 1988), 중부지방 특히 한강유역에서는 ‘중도식 무문토기’(이홍중 1991)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풍납동·중도·둔내·하천리·이곡리·가평리·마장리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므로 일단 피하고자 한다.

철기시대 민토기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라진 입술모양이다. 그러나 양덕리에서 지표 채집된 유물은 주로 몸체부분으로 입술이 적은 편이고 또한 입술조각도 그러한 특징을 살피기에는 너무 작아서 시기설정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양상이 대체로 끈무늬·문살무늬의 두드림무늬 토기와 민토기가 공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여기서는 민토기를 철기시대로 포함시켜 다루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나. 끈무늬·문살무늬 등의 두드림무늬 토기

양덕리에서 나온 두드림무늬 토기는 무늬로 보아 끈무늬와 문살무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무늬를 기본으로 하여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무늬를 돌리기도 한다. 이렇게 무늬를 베푸는 방식은 대심리·양수리·마장리·문호리·중도 등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토기 안쪽면에 무늬를 두드림한 경우가 있다(탑본 9, 사진 82 참조).

빛깔로 보면 크게 적갈색 계통과 회청색 계통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나, 주황빛이 도는 갈색

10) 민토기 조각 가운데 크기가 4×6cm가 넘는 76점을 대상으로 나누어 본 빛깔은 다음과 같다.

- ① 붉은색을 띠는 갈색 계통 : 63점 (82.9%)
- ② 회색-검은색 계통 : 10점 (13.2%)
- ③ 밝은 미색 계통 : 3점 (3.9%)

11) 관찰된 15점의 토기 가운데 바라진 모양이 8점, 곧선 모양이 7점 된다.

· 밝은 갈색 · 회백색 · 어두운 회색 등 이 두 계통으로 뚜렷이 집어넣을 수 없는 중간색들도 많다.¹²⁾ 따라서 적갈색 · 경질 · 회청색 · 경질 · 회색 연질 등으로 대표되는 철기시대토기들에 비해서는 각 빛깔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토기의 바탕흙은 민토기의 바탕흙처럼 모래알갱이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과 정선하여 모래알갱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주로 적갈색계통에 모래알갱이들이 많이 들어 있어 있는 편이며 굳기도 무른 편이다. 굳기는 병산리의 두드림무늬 토기에 비해서는 단단하지만 다른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에 비하면 역시 약한 편이다.

안팎면에는 정면흔적이 남아 있고, 특히 회전대를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었던 흔적도 엿보인다.

요컨대, 양덕리의 두드림무늬 토기는 무늬로 보아 한강 줄기를 따라 자리를 잡고 있는 여러 유적과 맥을 같이 하며, 색은 적갈색 / 회청색 계통으로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회청색 계통에 비해 적갈색 계통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민토기와 비슷한 바탕흙을 사용하여 만든 것도 상당수 있고, 굳기도 다른데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적의 성격

양덕리에서 나온 토기를 한 시기(철기시대)로 보고, 주변 지역에 분포한 철기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대심리 · 문호리 · 금남리 · 이곡 2리 · 마장리 · 중도 등이 있다.

대심리 유적에서는 민토기 단지 · 粗質有文土器 · 김해식토기와 함께 쇠칼 · 쇠도끼 · 쇠살촉 · 쇠찌꺼 등이 나왔다. 금남리에서 양수리로 내려오는 북한강가의 문호리에서는 민토기 · 단지 · 접시 · 김해식토기를 찾았고 금남리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마장리 유적에서는 민토기 · 단지 · 문살무늬 토기 및 대심리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된 토관(쇠를 달구려고 불을 때면서 바람을 넣을 때 쓰던 관) · 쇠찌꺼기 · 반달칼 등이 출토되었고, 따라서 이곳은 가내공업으로 제철을 하던 특이한 유적으로 풀이된 바 있다(김원용 1971).

이곡 2리는 마장리에서 가평천 상류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석기시대-철기시대에 걸친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 가운데 철기시대 유물은 마장리의 것과 매우 닮았다고 보인다. 중도는 알려진대로 집터유적이다.

12) 크기가 4×3cm를 넘는 두드림무늬 토기 57점을 빛깔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갈색 계통(밝은-어두운 갈색) | : 30점(52.6%) |
| ② 붉은색 계통 | : 10점(17.6%) |
| ③ 회색 계통 | : 17점(29.8%) |

지금까지 앞에서 예로 든 유적들을 살펴보면, 철기시대 유적은 대개 철제도구들 뿐만 아니라 제철과정·공정과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심리·마장리 유적에서 나온 토관·쇠찌꺼기 등이 그러하며 대심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사철층이 있다는 것도(이용조 1974, 127쪽)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양덕리 유적조사에서도 불탄 흙덩어리들이 꽤 채집되었는데 이 부근의 모든 철기시대 유적이 제철작업에 관련된 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양평을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의 철기시대 유적들은 제철작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단위 취락지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3) 유적의 연대

병산리 양덕리에서 채집된 토기의 연대를 가늠하는데 마장리와 풍납동의 다음과 같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최성락 1982)이 참고된다.

유 적	성 격	연 대 (반감기 5568)	교정연대 (Ralph <i>et al.</i> 1973)
마장리	주거지	1700±250 BP	50 BC-440 AD
풍납동	토 성	1720±110 BP	250 BC- 30 BC

중도 주거지(2호)에서는 1535±95 BP(415 AD)가 나온 바 있다(《중도 IV》 참조).

참고문헌

- 김양욱 1976. <한반도 철기시대 토기의 연구>《백산학보》 20.
 김양욱 1987. <토기>《한국사론》 17.
 김원용 1971. <가평 마장리 야철주거지>《역사학보》 50 51.
 김정학 1962. <광주 명일리 주거지 발굴약보고>《고문화》 1.
 김정학 1963. <광주가락리 유적조사보고>《고문화》 2.
 김한규 1991. 《동위원소 지질학》(대우학술총서·자연과학 74).
 문화재관리국 1974. 《팔당 소양댐 수몰지구 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박한설·최복규·노혁진·최은주 1982. 《중도발굴조사보고서》.
 배기동 1989. 《전곡리: 1986년도 발굴조사보고》(서울대 고고인류학총간 15).
 손보기 1988. 《한국구석기학 연구의 길잡이》(연세대 출판부).

- 손보기·이용조 1974. <양평군 양근리지역 양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팔당 소양댐 수몰지구 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문화재관리국).
- 손보기·한창균·홍현선·조태섭·공수진 1989. <상무릉리 유적의 층위와 퇴적>《상무릉리》(강원도·강원대 박물관).
- 신경철 1980. <웅천문화기 기원전상한설 재고>《부대사학》4.
- 신경철 1982. <부산 경남 출토 와질계 토기>《한국고고학보》12.
- 원영환·최복규 1984. 《둔내》(강원대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1).
- 윤내현·한창균·신숙정·양현주·성현경·손기연·진소래 1992. <일산 3지역 고고학조사>《자연과 옛사람의 삶》(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1).
- 이건무·이강승·한영희·김재열 1980. 《중도》(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2).
- 이건무·이강승·한영희·김재열 1981. 《중도》(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3).
- 이동영 1987. <한반도 제4기 지층의 층서적 고찰>《제4기학회지》1.
- 이동영 1989. <상무릉리 유적의 염토질광물 분석>《상무릉리》(강원도·강원대 박물관).
- 이동영 1992ㄱ. <제4기 지질학과 고고학의 공동연구>《선사 고고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충북대 선사문화연구소 제2회 학술발표회).
- 이동영 1992ㄴ. <유적의 지형과 지질>《양평 병산리 유적》(단국대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4).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1).
- 이동영·김주용 1992. <지질환경조사: 제4기 지질 및 퇴적환경연구>《자연과 옛사람의 삶》
- 이동영·김주용·한창균 1992. <홍천 하화계리유적의 지형 및 지질>《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강원도).
- 이백규 1976. <양주군 인창리 유적: 횡산자료>《고고미술》129·130.
- 이백규 1977. <양주군 지금리 유적: 횡산자료 3>《고고학》4.
- 이백규 1978. <서울 월곡동 유적: 횡산자료>《고고미술》138·139.
- 이백규·고승태 1976. <양주군 교문리 유적: 횡산자료 2>《고고미술》131.
- 이성주 1988ㄱ. <원삼국토기 태토의 유형>《영남고고학》5.
- 이성주 1988ㄴ. <삼국시대 전기토기의 연구>《고문화》37.
- 이용조 1981. <양평 양덕리 고인돌 조사>《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적 연구》.
-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한국상고사학보》1
- 이홍중 1991. <중도식 토기의 성립과정>《한국상고사학보》6.
- 임세권 1977. <춘천시 은의동 무문토기 유적>《사총》21·22.
- 임세권 1980. <춘천 중도의 선사문화>《한국고고학보》9.
- 정정원·신경철 1987. <중말기 무문토기에 관한 연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예비적 고찰>《한국고고학보》20.

- 지건길·한영희 1982. 《중도》(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4).
- 지건길·이영훈 1982. 《중도》(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5).
- 지건길·이영훈 1984. 《중도》(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16).
- 최무장 1979. <가평 이곡리 철기시대 주거지 발굴조사보고서>《건국대인문과학논총》 12.
- 최무장 1983. <한강유역의 무문토기>《한국고고학보》 14·15.
- 최복규 1984. 《중도 고인돌 발굴조사보고》(강원대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2).
- 최성락 1982. <방사성탄소측정연대 문제의 검토>《한국고고학보》 13.
- 최성락 1988. <원삼국토기의 변천과 문제점>《영남고고학》 5.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 한림대박물관 1986. <<신매리 지석묘 발굴조사 보고서>>.
- Brézillon M. 1977. La Dénomination des Objets de Pierre Taillé, IVe supplément à *Gallia Préhistoire*. CNRS, France.
- Clark J. D. 1955. The stone ball: its association and use by prehistoric man in Africa. *Actes du Congrès Panafricain de Préhistoire II, Alger, 1952, Paris*. Arts et Métiers Graphiques, France.
- Martinson D. G., Pisias N. G., Hays J. D., Imbrie J., Moore T. C. and Shackleton N. J. 1987. Age Dating and Orbital Theory of the Ice Ages: Development of a High- Resolution 0 to 300,000-Year Chronostratigraphy. *Quaternary Research* 27, 1-29.
- Chavaillon, J. et Lavallée D. 1988. Bola. A. Leroi-Gourhan(éd.), *Dictionnaire de la Préhistoir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Edey M. A. 1973. *Le Cha non manquant*. Time-Life International(Nederland) B. V.
- Klein R. C. 1989. *The Human Career: Human Biological and Cultural Origi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vallée D. 1988. Marazzi(ou Marassi)(abri de). A. Leroi-Gourhan(éd.), *Dictionnaire de la Préhistoir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Lee Dongyoung and Kim Juyong 1990. *Geological Excursion for Quaternary Terrace Deposits and Their Stratigraphy along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Quaternary Natures, Seoul, Korea(1990).
- Lee Dongyoung and Kim Juyong 1992. Review on the Quaternary Strati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China Quaternary-Prehistory Symposium*.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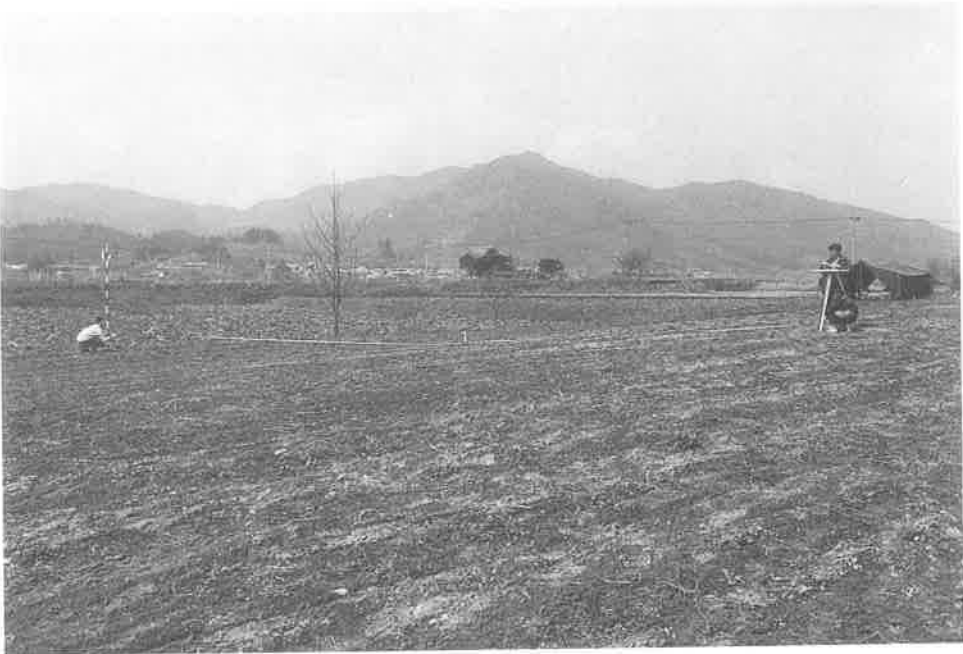
- Shackleton N. J. and Opdyke N. D. 1973. Oxygen Isotope and Palaeomagnetic Stratigraphy of Equatorial Pacific Core V28-238: Oxygen Isotope Temperatures and Ice Volumes on a 10^5 Year and 10^6 Year Scale. *Quaternary Research* 3.
- Shackleton N. J. and Opdyke N. D. 1976. Oxygen-Isotope and Palaeomagnetic Stratigraphy of Pacific Core V28-239. Late Pliocene to Latest Pleistocene. *Geol. Soc. American Mem.* 145.
- Toth N. 1987. The First Technology. *Scientific American*, vol. 256, no. 4.
- Willoughby P. R. 1985. Spheroids and battered stones in the African Early Stone Age. *World Archaeology*, vol. 17, no. 1.
- Willoughby P. R. 1990. Contribution à l'Etude des Sphéroïdes et des Bolas de Sites Paléolithiques (Afrique). *L'Anthropologie*, tome 94, n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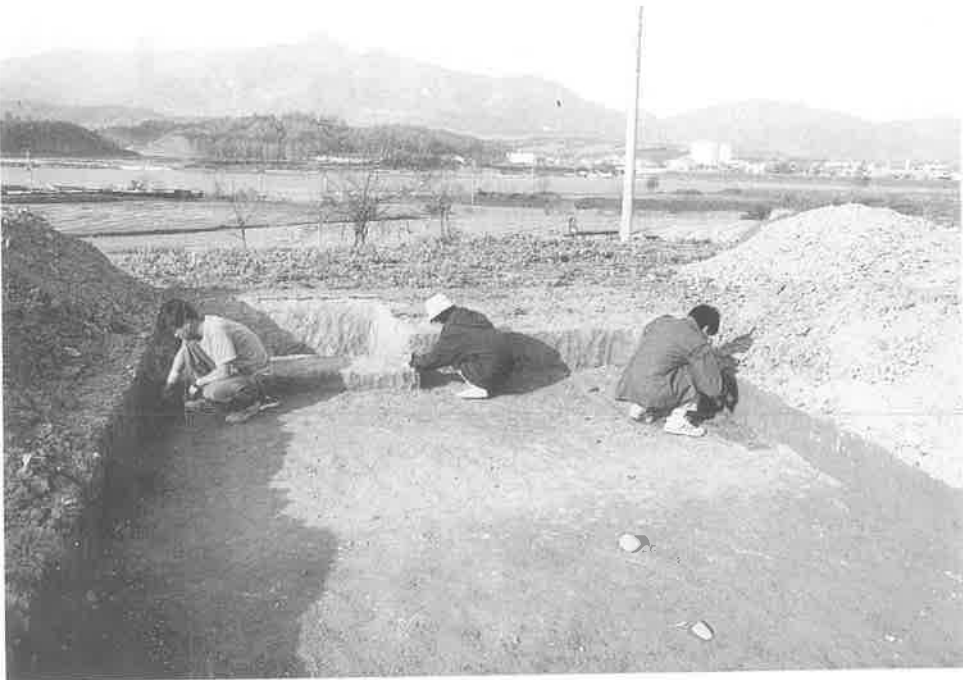
〈사진 1〉 남쪽에서 바라본 유적의 모습
유적 앞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양평읍이 보인다.



〈사진 2〉 동쪽에서 바라본 유적의 모습



〈사진 3〉 밭갈장의 실측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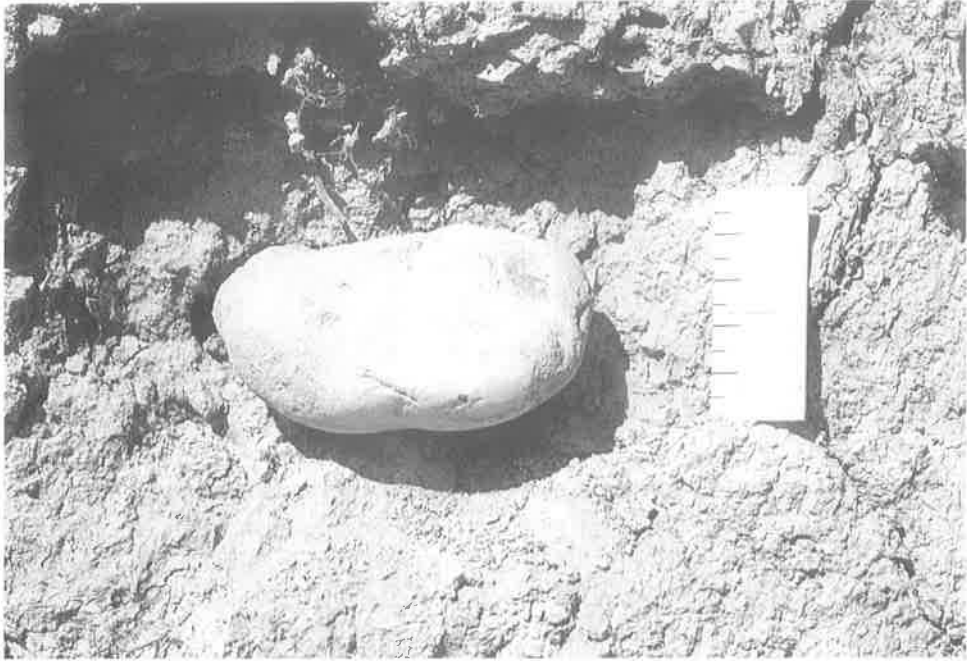
〈사진 4〉 I 지구 ㄹ칸의 밭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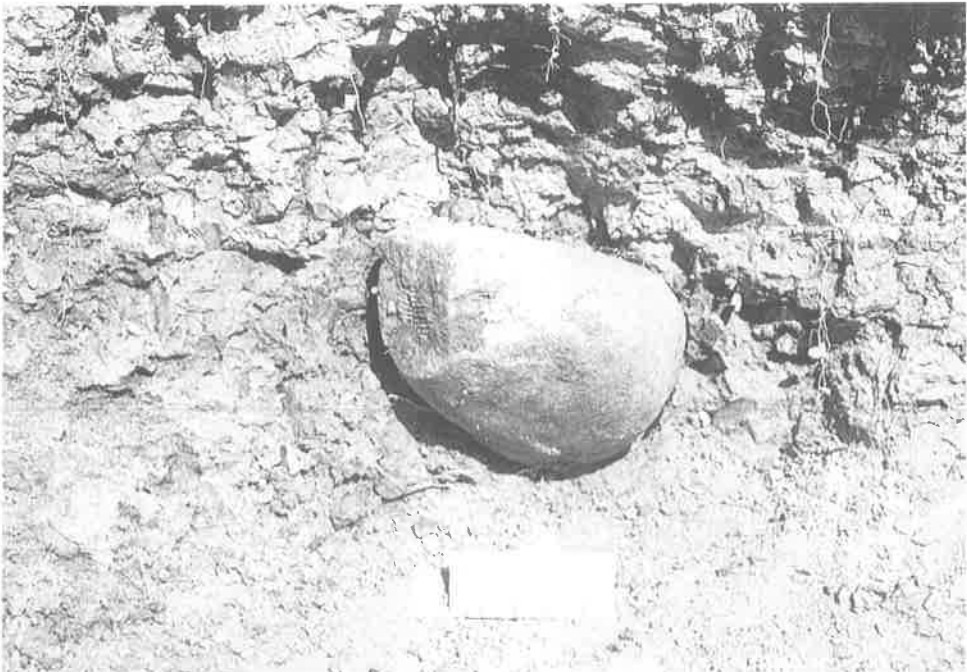
〈사진 5〉 지층(3층)에 박혀 있는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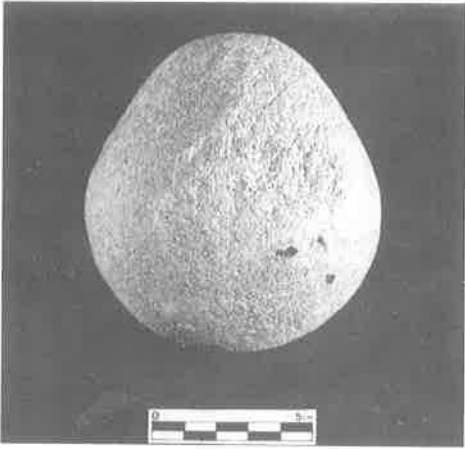
〈사진 6〉 농지정리로 드러난 지층(3층)에서 석기가 관찰됨



〈사진 7〉 지층(3층)에 박혀 있는 석기(찍개)



〈사진 8〉 지층(3층)에 박혀 있는 석기(찍개)



〈사진 9〉 망치돌(오른쪽 사진은 윗부분에 보이는 때린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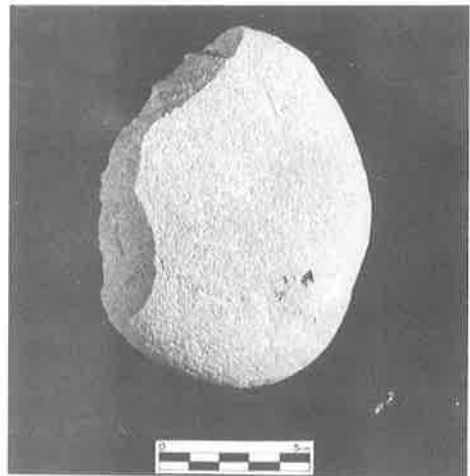
〈사진 10〉 새기개



〈사진 11〉 새기개



〈사진 12〉 망치돌



〈사진 13〉 짝개



〈사진 14〉 둥근날 몸돌석기



〈사진 15〉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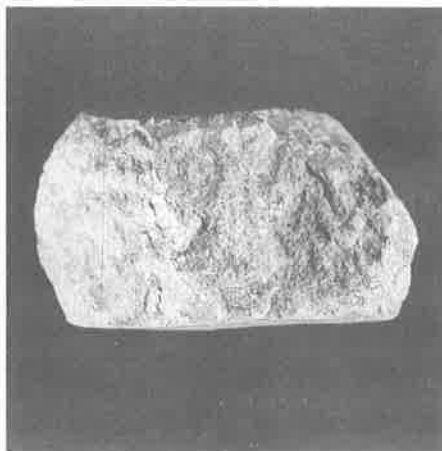
〈사진 16〉 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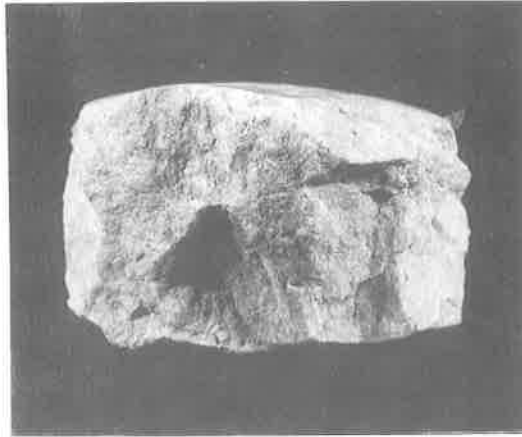
〈사진 17〉 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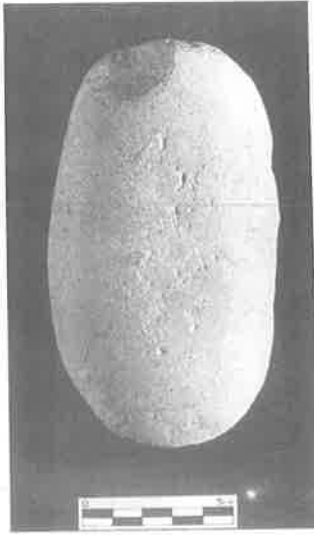
〈사진 18〉 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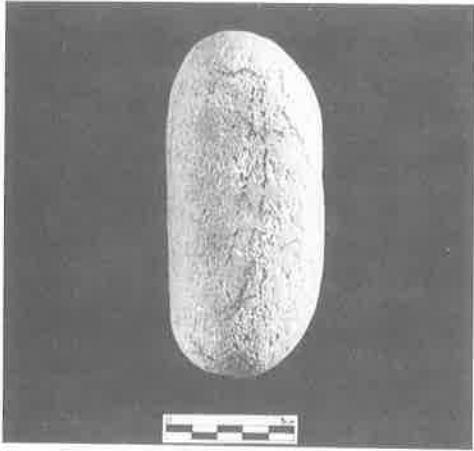
〈사진 19〉 몸돌



〈사진 20〉 몸돌



〈사진 21〉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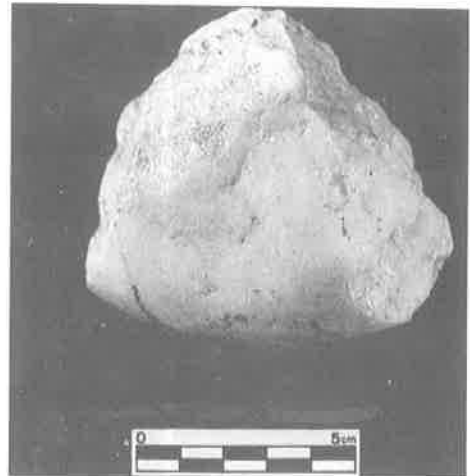
〈사진 22〉 망치돌과 쓰임새



〈사진 23〉 자르개



〈사진 24〉 찌개



〈사진 25〉 찌개



〈사진 26〉 짝개



〈사진 27〉 짝개



〈사진 28〉 짝개



〈사진 29〉 여러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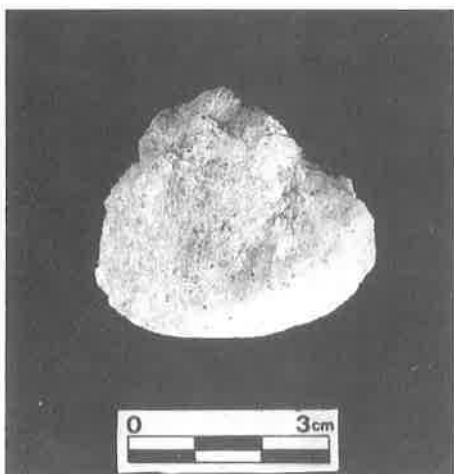




〈사진 30〉 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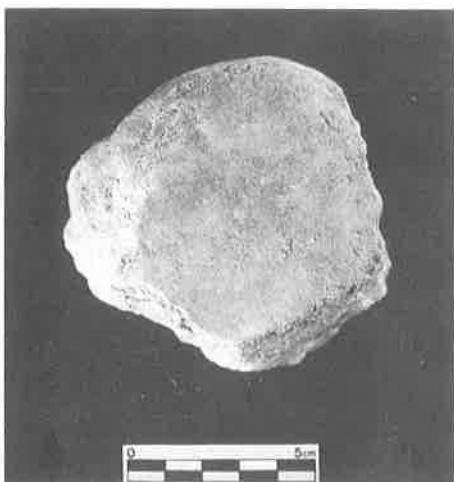
〈사진 31〉 굽개



〈사진 32〉 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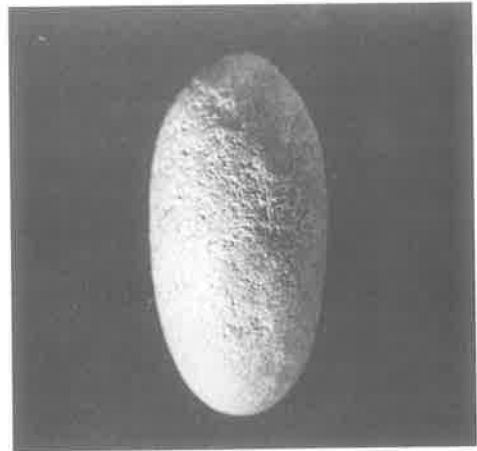


〈사진 33〉 몸돌



〈사진 34〉 몸돌





〈사진 35〉 망치돌



〈사진 36〉 찧개



〈사진 37〉 찧개

〈사진 38〉 찧개



〈사진 39〉 짝개



〈사진 40〉 짝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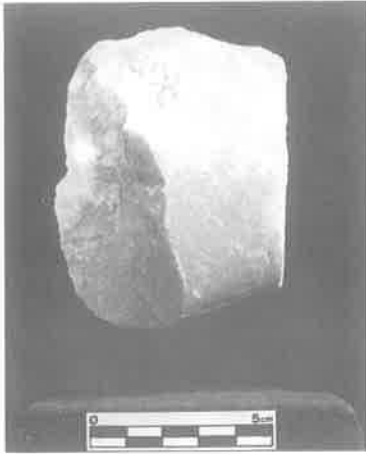


〈사진 41〉 짝개



〈사진 42〉 짝개





〈사진 43〉 찌개



〈사진 44〉 찌개



〈사진 45〉 찌개



〈사진 46〉 찌개



〈사진 47〉 여러면석기



〈사진 48〉 여러면석기



〈사진 49〉 여러면석기



〈사진 50〉 여러면석기



〈사진 51〉 여러면석기



〈사진 52〉 여러면석기



〈사진 53〉 여러면석기



〈사진 54〉 밀개



〈사진 55〉 밀개



〈사진 56〉 밀개+긁개





〈사진 58〉 굽개



〈사진 57〉 밑개+굽개



〈사진 59〉 굽개+톱니날



〈사진 60〉 톱니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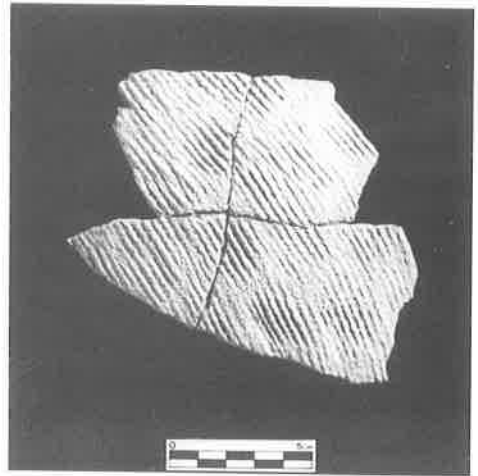
〈사진 61〉 흙날



〈사진 62〉 민토기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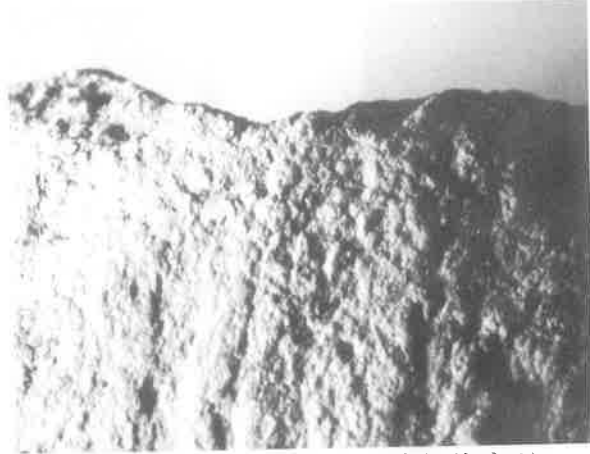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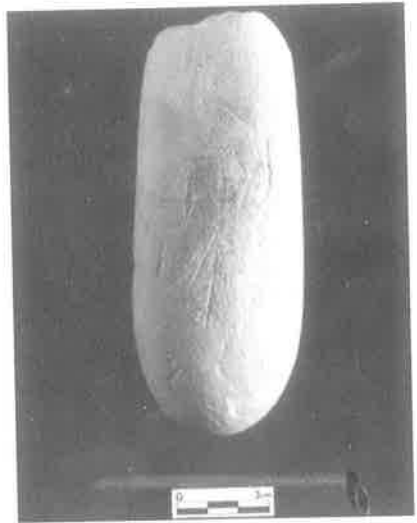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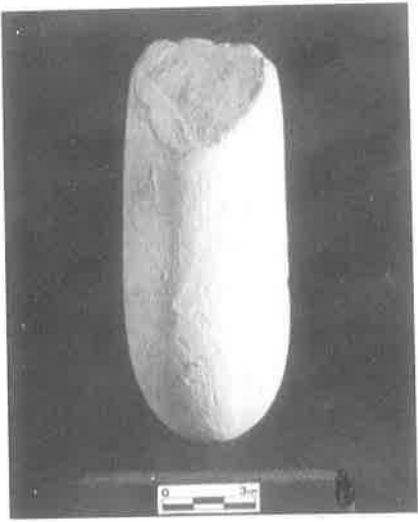
〈사진 63〉 두드림무늬 토기



〈사진 64〉 두드림무늬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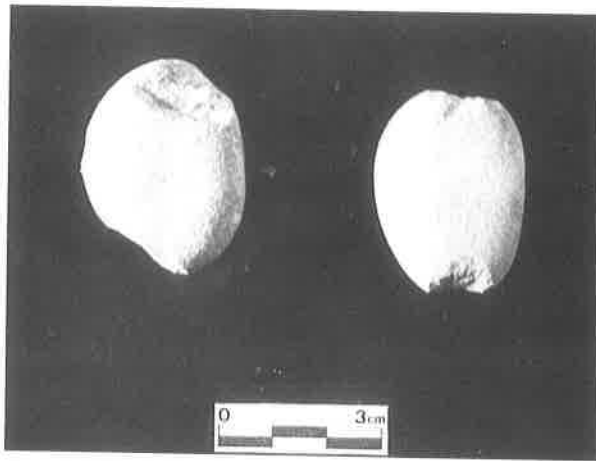
〈사진 65〉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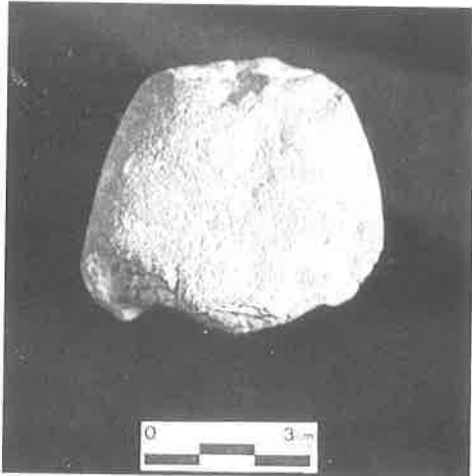
〈사진 66〉 돌도끼(아래 사진은 쓴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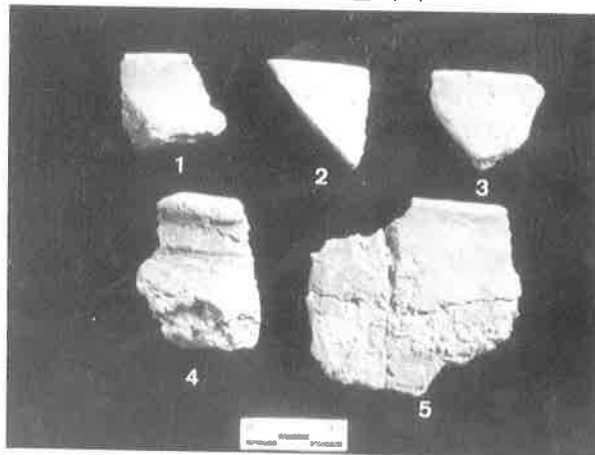
〈사진 67〉 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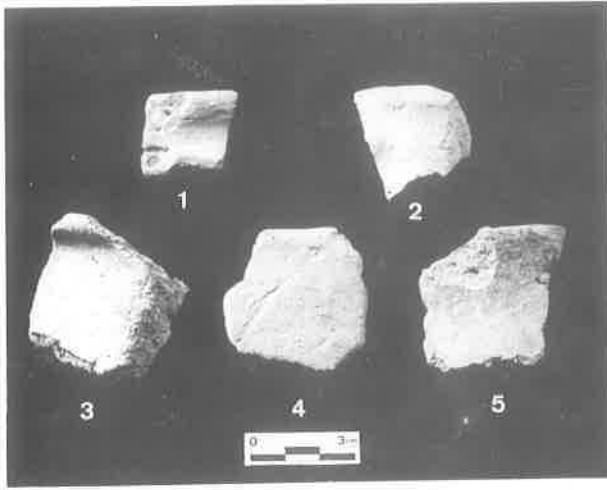
〈사진 68〉 그물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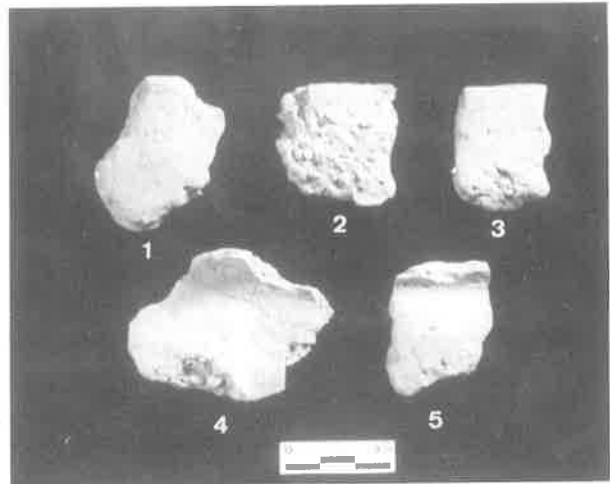
〈사진 69〉 떼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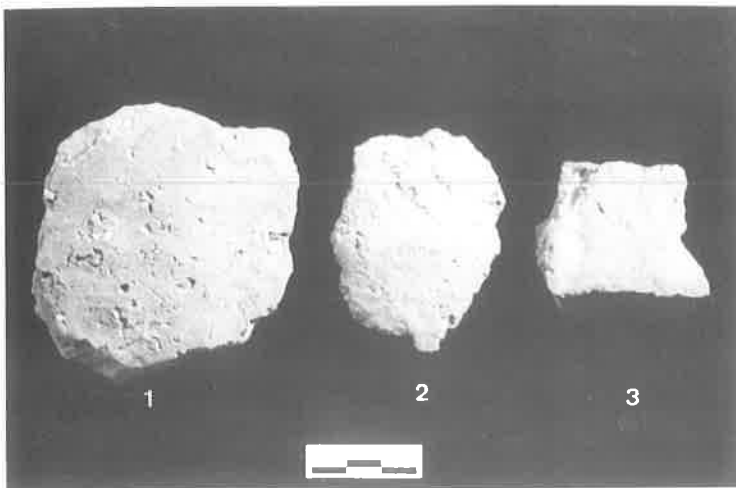
〈사진 70〉 민토기 입술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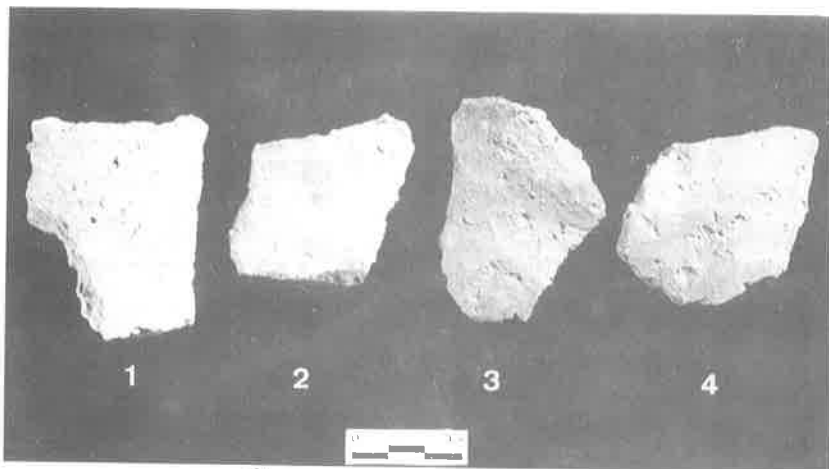
〈사진 71〉 민토기 입술(1-5)



〈사진 72〉 민토기 입술(1-3)과 목(4-5)



〈사진 73〉 민토기 몸체 (1-3)



〈사진 74〉 민토기 몸체(1-4)



〈사진 75〉 민토기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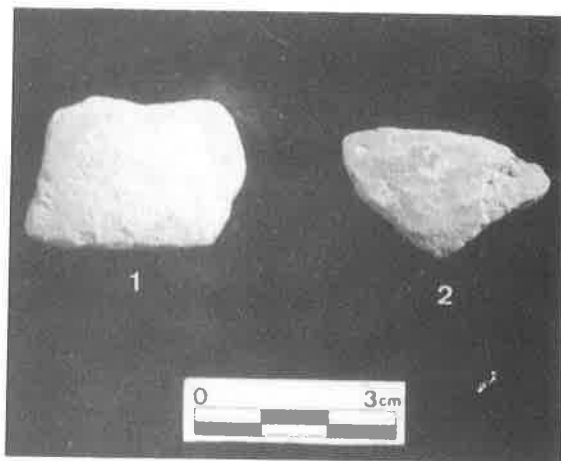
〈사진 76〉 민토기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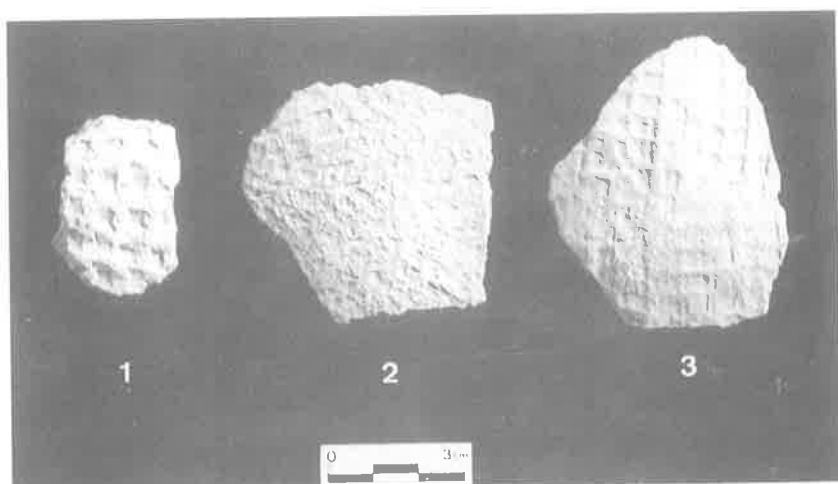
〈사진 77〉 민토기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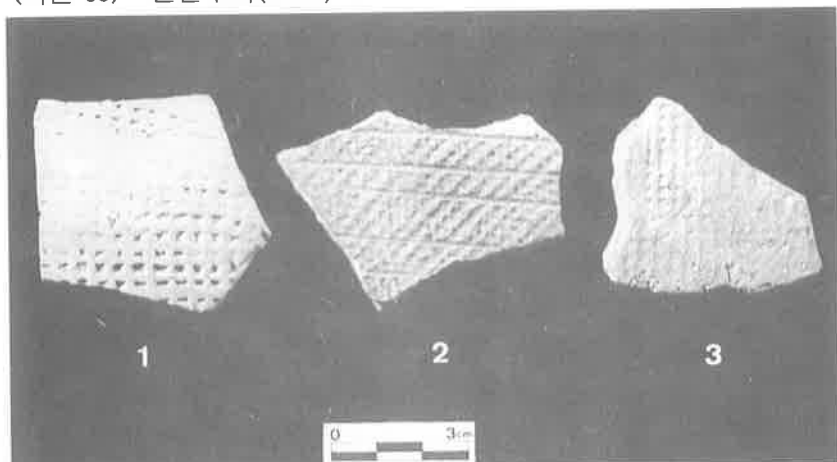
〈사진 78〉 시루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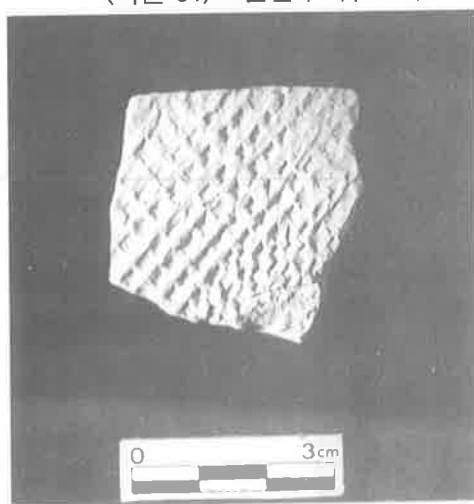
〈사진 79〉 붉은간토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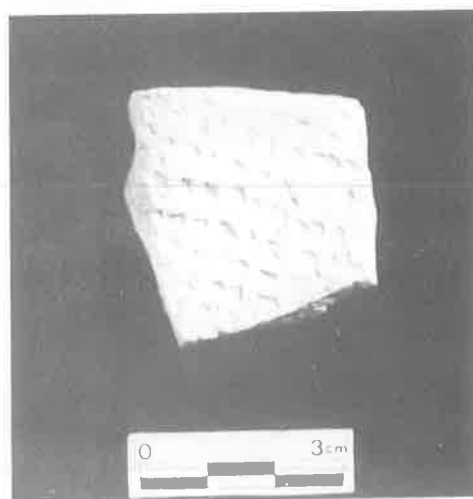
〈사진 80〉 문살무늬(1-3)



〈사진 81〉 문살무늬(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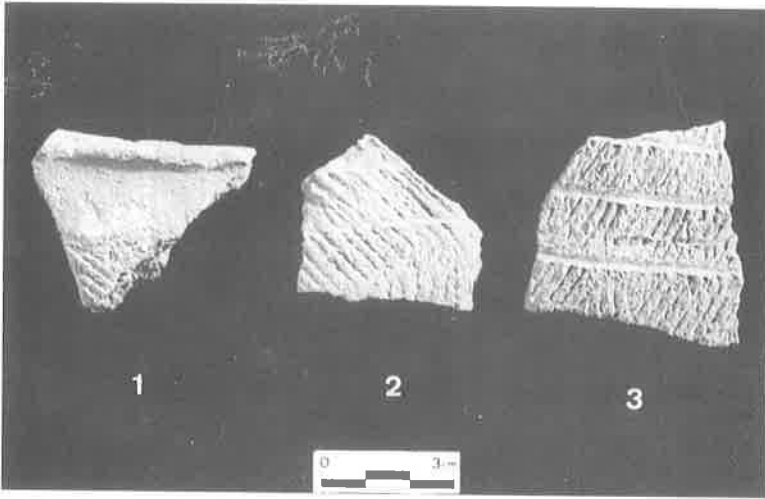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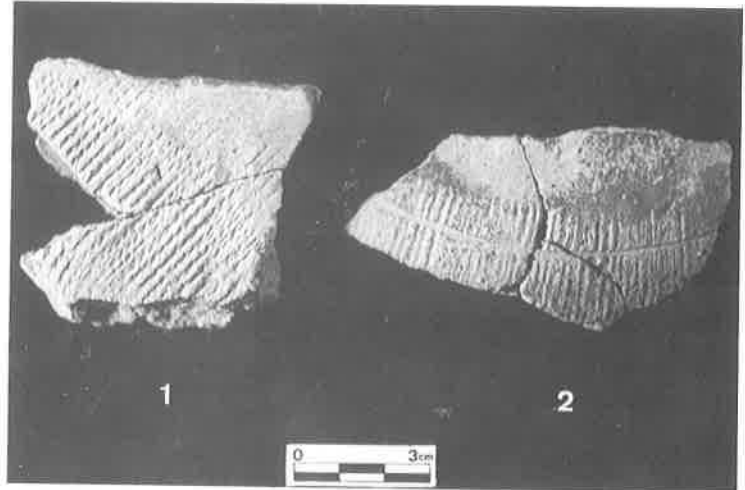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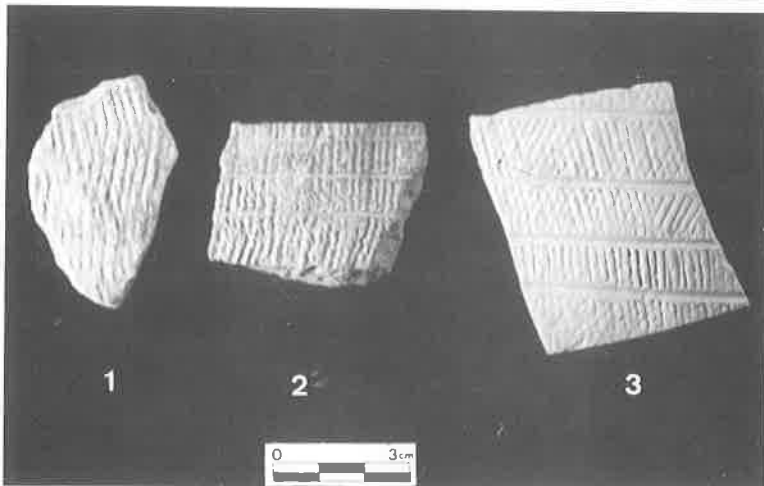
〈사진 82〉 문살무늬



〈사진 83〉 끈무늬(1-3)



〈사진 84〉 끈무늬(1-2)



〈사진 85〉 끈무늬(1-3)

유적의 발굴성과와 보존대책

윤내현 · 한창균

1992년 실시된 병산리 유적의 발굴성과와 아울러 이 유적의 보존대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 병산 4리에 있는 유적이 1992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이번 조사는 주로 유구와 유물이 나오는 문화층의 존재 범위를 확인하는 시굴작업의 성격을 띠고 실시되었다.

2) 발굴대상면적은 약 1,000평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것은 대상면적의 6-7%에 불과하다. 그러나 20개 남짓 넣은 시굴구덩이에서 5개의 지층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2층(1문화층), 3층(2문화층), 4층(3문화층)에서 구석기시대에 뎀석기가 나왔다. 그리고 1층(갈흙층) 주변에서는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 돌도끼, 돌끌, 뎀석기 그물추 등이 나왔다.

3) 구석기시대의 뎀석기가 나오는 지층은 13만년 전에 시작하는 후기 갱신세 동안에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에 이루어진 산소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면 병산리 유적에 쌓인 퇴적은 5번에 걸친 기후변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다시 말해서 병산리 유적의 퇴적은 병산리 5기부터 1기에 걸치는 동안 쌓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병산리 5기(따뜻한 기후)는 약 130,000-74,000 BP, 병산리 4기(추운 기후)는 약 74,000-59,000 BP, 병산리 3기(따뜻한 기후)는 약 59,000-24,000 BP, 병산리 2기(추운 기후)는 약 24,000-12,000 BP, 병산리 1기(따뜻한 기후)는 약 12,000 BP 이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산리 유적에서 적용된 각 시기의 상대연대측정방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구석기문화 시대구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병산리 5기, 3기, 1기에 찰흙층이 쌓였고, 이들 찰흙층에서 뎀석기가 나온다. 5기는 3문화층, 3기는 2문화층, 1기는 1문화층에 각각 속한다. 병산리 4기와 2기는 추운 기후로 인하여 언땅 트기 현상을 일으켰다.

6) 발굴범위가 매우 좁았던 병산리 3문화층에서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망치돌, 격지 등이 나왔다.

7) 병산리 2문화층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에 속하는 몸돌, 망치돌, 자르개, 찌르개, 찌개, 둥근날 몸돌석기, 여러면석기, 굽개, 격지 등이 나왔다.

- 8) 병산리 1문화층에서 망치돌, 새기개, 격지 등이 나왔다.
- 9) 걸흠에서는 철기시대의 토기 조각, 돌망치, 돌끌, 그물추, 땀석기 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찾은 토기의 특징은 양덕리에서 새로이 발견된 유적의 토기와 매우 닮은 모습을 띠고 있다.
- 10) 병산리 구석기유적의 지층과 유물은 일산 지역, 전곡리, 금파리 등에서 자주 관찰된다. 이들 유적의 연구를 통하여 한강이나 한탄강, 임진강, 금강 언저리에서 드러난 구석기문화와 좀더 자세하게 비교,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 11) 병산리 유적에서 나온 여러면석기는 사냥돌이라기보다는 석기를 떼거나 다듬는데 또는 먹거리를 으깨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12) 병산리 유적에서 채집된 여러 종류의 돌망치와 작은 격지들의 존재를 통하여, 당시 구석기인들이 이곳에서 직접 석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짜임새있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증거가 좀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발굴조사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 13) 계속되는 농지정리로 인하여 이곳 유적은 조만간 훼손될 위험에 놓여 있다. 이 유적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보존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산 3리에서도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땀석기가 나오고 있다.
- 14) 양덕리 유적에서 매우 많은 유물이 나온다. 이 지역도 농지를 다시 개간하거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차츰 훼손되고 있다. 수천평에 이르는 유물의 분포범위로 판단할 때, 이 지역에 규모가 큰 옛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한국 고대사회의 참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연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도위원회 회의록(초록)

정리 : 양현주 · 진소래

- 1) 때 : 1992년 5월 1일 오전 11시
- 2) 곳 : 병산리 구석기유적 발굴 현장
- 3) 참석자 : 지도위원(손보기 교수, 김원용 교수, 이용조 교수)
발굴단장(윤내현 교수)
책임연구원(한창균 교수)
경기도 문화예술과(강대욱 학예연구원)
양평군(양평군수, 문화예술 담당관)
조사보조원(양현주, 김인한, 성현경, 손기연, 진소래)
이밖에 많은 분이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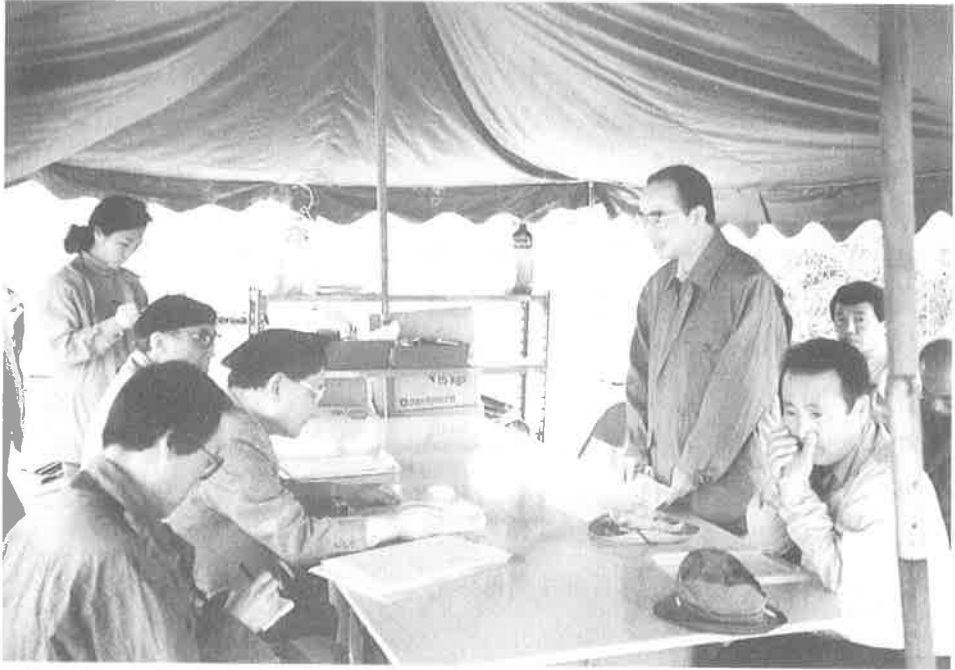
• 윤내현(인사말) : 바쁘신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도편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균(회의 자료 설명) : 한강 유역에 있는 유적과 유물은 우리 나라의 선사문화를 연구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발견된 병산리 유적은 한국 구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의 학술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석기 유적이 나오는 지역의 많은 부분이 농지정리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현재 발굴하고 있는 곳만이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교란되지 않은 곳의 발굴대상면적은 약 1,000평 정도에 이르는데, 현재 대상지역의 6-7%만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번 발굴조사는 유구와 유물이 남아 있는 곳을 찾기 위한 시굴작업의 성격을 띠고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개 지층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확인하였고, 가장 위에 있는 지층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물이 병산리 유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20개 정도의 구덩(2×2m)을 발굴하였고, 이 가운데 10개 구덩 정도에서 구석기시대의 뎀석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집자리나 석기제작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층에서 나오는 돌망치나 작은 격지의 존재를 통해서 판단할 때, 석기제작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병산리 구석기유적의 지층은 전곡리나 일산 지역의 것과 매우 닮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 고고학 자료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산리 선사유적의 성격은 우리 나라 구석기문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용조 : 충주나 일산에서 나오는 구석기유물과 비슷한데 석장리와는 어떻게 됩니까?
- 손보기 : 석장리와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원용 :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 한창균 : 발주인은 이곳의 흙을 파내어 인삼밭을 만들 예정입니다.
- 김원용 : 이번 발굴은 순수한 학술발굴입니까?
- 한창균 :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손보기 : 잘 남아 있는 층위를 전사해서 박물관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대욱 :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용조 : 팔당댐수몰지역 문화유적을 발굴조사 하면서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양평군수 : 유적의 발굴과 함께 이 일대의 지명유래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창균 : 이번 발굴은 시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발굴면적은 전체 조사대상의 6-7%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변에서 채집된 석기의 종류와 양으로 볼 때, 좀 더 깊이있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원용 : 현재 우리 나라의 발굴현황으로 보아서는 국비를 받아 발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급하게 구제발굴을 해야 할 곳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 이용조 : 앞으로 이 유적의 전체지역을 발굴하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 한창균 : 흙이 매우 굳고 단단하여 적어도 2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 김원용 : 한강 유역에는 강가를 따라 구석기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병산리 유적에서는 유물이 집중되어 나오는 곳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군요.
- 이용조 : 농지개간으로 유적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붉은갈색층에서 나온 석기 등으로 보아 좀더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원용 : 그 면적을 발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 이용조 : 저쪽 산기슭(병산 3리)에서도 유물이 나오는데, 그곳도 조사해야 합니까?
- 한창균 : 그렇습니다.
- 이용조 : 조사단에서 발굴을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원용 : 발굴자금이 문제입니다.
- 손보기 : 지표에서 찾은 석기는 조금 구른 것 같은데, 발굴층에서 나온 것은 구른 흔적이 없습니다.

- 한창균 : 그렇습니다.
- 김원용 : 구덩이 하나를 넓고 깊게 파보면 어떨까요?
- 이융조 : 발주인이 이곳의 흙을 제거할 예정이어서 걱정입니다. 도비나 군비의 지원을 받아 발굴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 양평군수 : 군비는 어렵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해할지 문제입니다.
- 김원용 : 중요한 유구나 유물이 집중되서 나온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발굴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 양평군수 : 이 지역에도 석기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요.
- 한창균 : 양평 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뎀석기가 나오는 붉은갈색염토층은 이곳 병산 4리에만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용 : 이 지역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땅을 사 두면 이 다음에라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자금이 문제군요.
- 손보기 : 이번 달에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 김원용 : 추후의 병산리 구석기유적 발굴 문제는 경기도와 더 의논을 하여, 내년에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진 1〉 발굴 중간보고



〈사진 2〉 발굴 중간보고



〈사진 3〉 발굴 중간보고



〈사진 4〉 발굴 중간보고



〈사진 5〉 발굴 중간보고



〈사진 6〉 발굴 중간보고